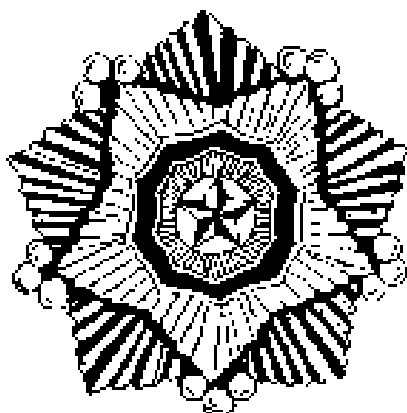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4

주체91(200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1(2002)년 제4호

(루계 제 654 호)

◇◇◇◇◇◇◇◇◇◇◇◇

## 차례

◇◇◇◇◇◇◇◇◇◇◇◇

태양의 생애는 영원합니다.....	4
수령님의 회고담 (1).....	5
주체 1년—주체 91년... ..	5
수령님과 노래.....	6
4월에 드리는 노래(외 1편).....	7
수령님의 취미.....	8
나의 《아리랑》.....	9
집.....	19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20
전선길에서 드리신 경의.....	23
4월명절 날자풀이노래.....	24
조선의 총대는 말한다.....	25
혁명소설의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 세워 주시며.....	26
봄날의 선언.....	27

수령님과 영웅인민 .....	28
수령님의 회고담(2).....	30
7 천만의 무도회 .....	31
우리의 세월 .....	31
편집부의 말 .....	32
어버이수령님과 땅, 봄··· .....	32
추억속에 바라보는 조국의 미래 .....	34
작가와 함께 장편소설 《붉은기》 회고해 본다 .....	36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	38
민족성이 구현된 고전소설 .....	39
전 우.....	41
수령님의 회고담(3).....	42
나의 《전선수첩》을 펼치며 .....	42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정서세계와 불멸의 송가 .....	43
피테, 요한 월프강 폰.....	47
위대한 사랑 .....	48
병사는 평양을 지켜 산다네 .....	48
태양과 거목의 뿌리 .....	49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	52
나는 사랑으로 함께 간다.....	53
이 땅은 무엇으로 젊어 지는가 .....	53
우리의 불은 뜨겁습니다 .....	54

봄의 고향.....	55
젖줄기 .....	63
평화의 붓 .....	63
까툴골사람 .....	64

# 태양의 생애는 영원합니다

김송남

날과 달이 흐르는 절기 따라  
하늘도 변하고  
세월이 흘러 흐르면  
땅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허나 오직 하나  
세상에 변치 않는 빛발이 있어  
우리러 태양으로 받드는  
은혜로운 그 빛발  
인민은 제 목숨같이 안고 사나니

아, 위대한 **김일성** 동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 생은  
어제를 밝히고  
오늘과 래일을 다 밝혀 주는  
영원한 사랑의 해발

만경대옛집  
수수한 초가지붕우에 빛발쳐 올라  
가슴 부푸는 희망을 처음으로 꽃 피운  
력사의 그 4월은  
이 강산이 안아 본  
기쁨의 첫봄이었습시다

백두산 즐기줄기  
천년장설을 다 녹이며 온 길  
항일전의 장엄한 총포성이 불려 온  
광복의 해 8월의 그 아침은  
새 조선이 마중한  
행복의 첫 해돋이였습시다

또 한차례

미제원쑤와의 어려운 싸움을 이기시며  
전후의 폐허우에  
사회주의무쇠기둥을 높이 세우시며  
인민을 위해 걷고 걸으신 길은  
력사의 초행길 몇백 몇천만리

그 길에 자신을 다 바치시며  
우리의 저 밝은 하늘을 열어 주시였습니다  
온 누리 가득히 비껴 가는  
저 해발  
주체의 영원한 노을을 펼쳐 주시였습니다

대를 이어 붉게 타는  
정일봉의 노을로 이어 진 그 생애  
천만시련 다 이겨 나가는  
선군혁명의 벽찬 새 진군길우에  
오늘도 맥맥히 굽이치는  
천출위인의 그 숨결을 우리 함께 숨 쉽니다

아, 하늘이 없던 이 땅에  
하늘이 되신 한생입니다  
해빛이 없던 이 누리에  
해빛이 되시여  
《이민위천》의 영원한 봄을 꽃 피워 주신  
태양의 한생입니다

높이 쌓으신 그 위업속에  
사회주의 빛나는 오늘이 있고  
강성대국 룡성할 삼천리의 래일이 있어  
아, 위대한 수령님  
태양의 생애는 영원합니다!

# 수령님의 회고담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는 나의 인생행로에서도 많은 작용을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이 <자장가>로 시작되었다면 나의 혁명투쟁은 <압록강의 노래>로 시작되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포평나루터를 떠나 압록강을 건널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을 찾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압록강가에서 다진 그 맹세를 생각하며 싸움의 길을 다그치군 했습니다.

중학시절부터는 자체로 가사도 쓰고 곡도 붙이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조선의 노래>가 나오고 <반일 전가>가 나오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가 나왔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군 했습니다. 식량이 없어 맹물로 끼니를 이어 갈때에도 노래를 부르며 힘든 고비를 넘기군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성장하고 혁명도 발전하였습니다.》

## 주체 1년—주체 91년…

### (수령님과 인민)

김석주

주체1년 봄날에 오시여  
주체91년 봄날에 계시다  
수령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신 덕에  
인민이 광복을 맞았다  
수령님 굶은 길, 험한 길 걸으신 덕에  
인민이 좋은 길만 걸었다  
수령님 휴식날 명절날도 일하신 덕에  
인민이 기쁜 날만 지냈다  
수령님 세월의 눈비 다 맞으신 덕에  
인민이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  
내가 편안하면 인민이 고생하게 되고  
내가 고생하면 인민이 행복하게 된다고  
《나》를 고생시키신  
《나》를 바치신 만고풍상의 한평생

아, 만고풍상의 한평생  
만가지 불행속에 산 인민이기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만가지 복을 다 누려야 한다고  
아버이로서  
수령으로서

은인으로서  
스승으로서  
천년을 겪고도 남을 그런 고생 그런 고초를  
몇십년 한생에 겪으시였다  
심혈을 다해, 땀을 다해, 심장을 다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고 불 태우셨기에…

아  
피눈물의 그날  
아이들은 길을 가면서도 흐느껴 울고  
온 나라는 비를 맞으며 엎드려 울며  
아버이를 목 놓아 부르던 그 소리  
깼수 없는 깊은 잠에서도 들으시였다!  
평생 기쁨만을 안겨 주시던 그 인민을  
슬픔에 울리지 않으시려  
아아, 다시 오시였던가, 수령님  
다시는 인민을 슬픔에 울리지 않으시려  
오늘도 봄날같이 웃으시며 함께 계시다  
사랑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며 영원히  
주체91년… 주체101년…



## 수령님과 노래

주체81(1992)년 12월 3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쁘신 잠을 내시여 4. 15문학창작단 작가들과 만나 담화를 나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뜨거운 감회속에 잠기시여 항일전의 나날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생동한 사실들을 들어 가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시었다.

수십년세월 망각의 비줄기속에서 씻기워 버렸을 그 많은 사건들의 세부까지 생동하게 기억하고 재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수한 이야기는 그대로 하나의 소설이었다.

흥분하기 잘하는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실것을 바랐다.

간고하고 준엄했던 혁명투쟁의 머나먼 나날들을 회억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광에도 이름할수 없는 흥분의 빛이 어렸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에게 이제는 점심식사나 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하시었다.

오래간만에 작가들과 만나 잇을수 없는 옛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며 저으기 격동된 심정에 휩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찬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다가 석식하신 음성으로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  
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들을수록 뜻 깊은 《사향가》였다. 혁명의 먼 길을 떠날 때 동구밖에서 배려주시던 어머니, 엄혹한 투쟁의 나날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어머니조국에 대한 혁명투사들의 열렬한 그리움과 끝없는 애정이 은근한 선율에 넘쳐 흐르는

불후의 명작이었다.

숙연한 감정에 휩싸여 서 있는 작가들과 일군들도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다.

아버이수령님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는가 싶었다. 이제는 퍼그나 년로하신 몸으로 부르는 노래여서 인지 더욱더 류달리 그들의 심장에 파고 들며 여분을 남기었다.

《사향가》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이장을 펼치시고 동무들은 아마 이 노래는 잘 모를것이라고 하시며 한번 부를테니 들어 보라고 하시었다.

곡도 가사도 처음 듣는 노래였다. 어딘가 비장하면서도 절절한 정서가 넘치는 노래였다.

소무는 호지에 잡혀 있어도  
절개를 욕되게 하지 않았네  
눈과 얼음 덮인 흥노땅에서  
19년

목 마르면 눈을 먹고  
배 고프면 요털을 삼키며  
북해변에서 양을 몰았네  
마음은 한나라에 가 있으나  
늙도록 몸은 돌아 가지 못했네  
모진 고생 겪을수록  
마음은 철적으로 굳어 저  
변강의 밤 때로 피리소리 들으면  
가슴은 아프고 쓰리었네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시절에 배워 항일전의 나날에 많이 부르시였던 중국의 애국가요 《소무가》였다. 원명은 《소무목양》이다. 노래는 B. C 2세기 한나라의 충신이었던 소무라는 사람이 북쪽의 흉노족들에게 잡혀서 19년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였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4(1935)년 여름 2차북만원정 당시 바로 이 《소무가》를 가지고 중국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반일투쟁에 불

러 일으키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해방후 《소무가》의 가사를 찾으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던중 바로 이때 중국말 원문으로 된 가사를 입수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는 그때 너무도 기쁜 나머지 80고령이라는것도 잊고 <소무가>를 불렀다. 80객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잘 불렀겠는가. 목이 막혀 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멀리 구름너머로 아득히 사라진 청춘시절의 감회가 새롭게 솟아 올랐고 우리가 고난속에서 개척한 북만의 대지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이 섬처럼 북받쳐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노래는 참으로 지울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들은 열렬한 박수를 쳤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잘 부를수 없다고 하시며 웃으시었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것을 보면서 작가들은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많은 노래들을 지으시었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문학예술의 대가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시간이 있으면 기타나 피아노를 즐겨 타시는가 하면 산에서 싸울 때를 생각하며 하모니카도 부시였으며 풍부한 성량에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시곤 하시었다. 그이께 있어서 노래는 인간생활의 떼여 놓을수 없는 한부분이었다.

노래 없는 혁명은 승리할수 없으며 노래 없는 나라는 흥할수 없다는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신조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혁명활동의 전 기간 노래를 매우 즐기고 사랑하시었다.

## 4월에 드리는 노래 외 1편

장원준

세월이 길어  
생각은 이리도 깊어 지는것인가  
땅이 피워 올린 꽃보다  
인간이 엮는 노래의 백화가 더 만발한  
이 아침

꽃이야 피고 지고  
봄이야 가고 오련만  
피는 날만 있고 지는 날이 없는 꽃  
오는 날만 있고 가본적이 없는 봄이  
내 마음에 있어

오, 4월이여  
4월도 화창한 보름날이여!  
이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자리를 잡고  
조선의 역사를 빛내이며  
흘러 흘러 90년 수 놓아 온 뜨거운 아침이여

세상에 나서 부터  
너 가슴에 새겨 진 날이다  
우리 수령님  
인간중심의 철학을 발견하시고  
인간중심의 참세상을 가꾸시며  
만고풍상을 헤쳐 오신  
위대한 그 한생이 력력히 응축되어 있는

계절에 앞서  
민족의 가슴에 넘치는 봄빛을  
다 안았다기엔 너무도 좁구나  
고향집의 작은 뜨락이여  
만민이 찾아 와 들어 서기엔  
너무도 낮구나 만경대초가의 나지막한 지붕이여

좁고도  
가장 넓은 뜨락  
낮고도  
가장 높은 추녀가  
수령님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이었음을  
이 마음속에

파아란 잔디  
그 한줄기의 흔들림에도  
다함 없는 민족의 정이 파도쳐  
그 잎잎이  
만민의 심장을 불 태워...

진정 우리 수령님은  
오로지 탄생하신 날만이 있어  
4월은  
태양절로 영원하고  
그이의 90여성상을  
다만 한평생으로 매듭 지을수 없어  
가는 세월 오는 세월  
다 함쳐  
이 땅에 무궁할 시간과 시간들을  
우리 수령님의 세월이라 노래하는것 아니냐!

아!  
만경봉의 저 푸른 숲숲은  
락락장송이 되어 4월의 봄빛을 더 높이 받들라  
수령님  
그 업적 비껴 안고 거센 대하가 되어 출렁이라  
4월은  
인민의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영원한 인민의 태양절로 백화의 향기를 뿌리리라

## 대오는 안도에서 떠나왔다

천천히  
락엽을 밟으시며  
끓으신 장군은  
소사하 토기점골등판에 오르시였다

앞에는  
사령관의 사열을 기다리며 쉼 짓고 서 있는  
첫 무장대오  
그우엔 나뭇기는

붉은 기발의 세찬 퍼덕임!

천년을 쌓이고  
만년을 덮인 락엽을 딛고 서계시는  
**김일성** 동지의 마음속 생각은 깊으셨으리  
이날을 위해  
아버님과 어머님 바쳐 오신  
그 천신만고가 어려 와...



김형직선생님 물려 주신  
두자루 권총을  
아드님에게 넘겨 주실 때  
어머님은 벌써  
조국광복의 래일을 굳게 믿으셨거니

정녕  
소사하의 토기점골안을 흔들던  
첫 무장대오의 환호성이여  
그 두자루의 권총에서  
우리 건군의 력사가 시작되었고  
이 땅우에  
조국광복의 새 아침이 밝아 온것 아니냐!

그렇더라  
안도의 수림속  
그 천년락엽을 밟으며 첫 걸음을 댔

## 혁명일화

# 수령님의 취미

주체81(1992)년 4월 중순, 부주필 조세프 샤이너를 단장으로 하고 그의 언니를 단원으로 하는 미국 《워싱턴타임스》기자단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샤이너는 우리 나라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해당 일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4월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워싱턴타임스》기자단을 접견해 주시였다.

그때 샤이너가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 올렸다.

《주석각하께서 즐기시는 취미가 무엇이고 어떤 오락과 체육을 좋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사실 국가수반이나 이름난 정객들의 개별적취미에 대하여 언제나 호기심이상의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것은 서방기자들 일반의 공통된 심리이다.

세계적으로 것처럼 명망이 높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취미는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어떤 오락과 체육을 즐기실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기심에 어려 있는 샤이너와 그의 언니를 잠시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였다.

《나에게는 내놓고 말할만 한 특별한 취미나 오락은 따로 없습니다. 》

《예?!...》

불패의 우리 군대  
생각할수록 오, 생각할수록  
장장 만리 승리만을 펼쳐 온  
건군 70년의 세월이  
이 심장에 뜨겁구나

안도에서 떠난 대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필승의 강군으로 더 억세게 자라난  
무적의 대오  
그래서 이 대오의 맨 앞자리엔  
영원한 그 두자루의 권총이 빛나오고  
인민의 가슴속엔  
첫 무장대오의 환호성이  
천년을 만년을 메아리치리라!

샤이너도 그리고 그의 언니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도 그 어떤 취미가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샤이너가 다시금 말씀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답대신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굳이 취미라고 한다면 뒤가지로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책보기를 좋아 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지내는것이 나의 취미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예?!...》

샤이너도 그리고 그의 언니도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렸다.

이윽하여 샤이너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 올렸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수반들과 제노라하는 정객들로부터 사냥이나 낚시질, 수영이나 유흥이 자기의 취미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책읽기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을 취미라고 하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주석각하의 취미는 너무도 소박하고 지어 그것을 취미라고 할수 있겠는지 의문스러운것이지만 담겨진 뜻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주석각하의 취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명실공히 세계적위인의 취미입니다.》

# 나의 《아리랑》

김청수

## 1

여러차례의 회답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자 요시꼬의원은 실망하고 말았다.

이날도 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에서 숙소로 돌아온 그 녀자는 우울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요미우리신보》 최근호에 차디찬 시선을 던졌다.

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 일군이 준 그 신문에는 도쿄에 사는 한 녀인이 조선으로 건너 간 자기 시누이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기절하였다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일본정부는 일본인녀성들의 고향방문을 진심으로 바란다는겁니까?》

그 일군의 어조는 준절하였었다.

자기의 조선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신문에 낸 도발적인 기사… 요시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녀자는 처녀시절부터 보도매체들을 경멸하여 왔었다. 신문, 방송들은 그 시절부터 줄곧 허위보도만 하면서 그 녀자를 괴롭혔던것이다.

하긴 요시꼬도 오랜기간의 배우생활을 끝장내고 후지텔레비존방송에서 5년간 《당신은 오후 3시에》 프로를 주전한적이 있었다.

7년전인 1972년 9월 23일 《중일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중국인민에 대한 속죄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요시꼬는 성명의 첫 부분에서 일본측이 지난 전쟁에서 중국인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데 대하여 통감하며 깊이 뉘우친다고 강조한 구절을 보면서 방송했었다.

그러자 우익깡패들이 얼마나 위협공갈하고 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했던가…

하지만 이번 보도는 색채가 달랐다. 《정부의 시녀》로 지탄 받고 있는 《요미우리신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것은 여기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사실 요시꼬가 조선방문을 요청한것은 몇년전 부터였다.

방문목적은 두 나라 의회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조선의 발전모습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었다.

그런데 방문을 요청할적마다 외무성에서는 조선에서 요시꼬의원의 입국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보내왔었다.

처음 요시꼬는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과거에 조선인민앞에 지은 죄때문이었다.

요시꼬는 실망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때문에 조선으로 가려 하지 않는가.

그러나 외무성의 통보는 매번 현바스음향처럼 길게 울려 퍼지며 그 녀자의 마음을 괴롭히었다.

(샤미생으로 아리랑을 타면 《아리랑》이 죽지.)

이상하게도 그때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하였다. 자기의 조선방문이 세줄짜리 샤미생으로 《아리랑》을 타는것과도 같은 부조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위구심때문인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샤미생으로 《아리랑》을 탄 일은 없어. … 더구나 나는 지금 말년에 이르지 않았는가.)

마침내 요시꼬는 총련중앙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총련의 견해는 요시꼬를 아연질색케 하였다.

《우리는 그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가?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설마 정부에서 그럴수 있겠는가.)

요시꼬가 의혹에 잠겨 있을 때 저택으로 정부대변인인 내각 관방장관이 찾아 왔다.

《우리는 의원선생이 평양을 방문하여 일본인녀성들의 고향방문을 성사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하고 관방장관은 한참후에 힘겹게 말하였다.

모든것을 자기들의 목적달성에만 리용하려는 정부의 처사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요시꼬는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대답했었다.

그러나 정작 조선방문요청이 수락되었다는 통보가 외무성에 왔다는것을 외상이 직접 요시꼬에게 전화로 알려 왔을 때 그 녀자는 당황하였다.

그날 《아사히신보》을 비롯한 주요신문들에는 국회 요시꼬참의원의원의 조선방문에 관한 보도가 1면에 실려 있었다.

국회와 부인회의, 적십자사와 여러 친지들이 전화를 걸어 왔으나 그 녀자는 도쿄만의 후나바시초흐화거리에 있는 저택의 서재실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니 이제껏 조선방문을 승인하지 않은것은 평양이 아니라 우리 일본정부였던 말이지, 정부에서 왜?...)

여기까지 생각한 요시꼬는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너무도 명백한것이 아닌가. 조선을 《적국》으로 보는 정부로서야...

중요한것은 평양이 이 야마구찌 요시꼬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그것이였다.

(내가 감히 정부의 요구를 가지고 조선으로 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바깥에서 명멸하는 전광불빛이 마치도 고민하는 그 녀자의 얼굴에 순간마다 삶과 죽음을 엿바꾸며 부여해 주는 듯 싶었다.

요시꼬는 도쿄노마 (바람벽 한부분을 장식벽함으로 만들고 꽃과 골동품을 놓는 곳)에 있는 목각상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요시꼬에 대한 회상실기를 보고 유럽의 한 승배자가 선물로 보낸 그 목각상은 언제나 그 녀자의 생각을 흘러 온 세월속에 밀어 넣곤 하였다.

작업복을 입고 람루한 수건을 걸친 로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목각상의 받침대에는 《아리랑》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아리랑》!

요시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노래와 류다른 연으로 맺어져 있었다.

요시꼬는 만주 굴지의 로천탄광도시인 무순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엄청나게 큰 골뎡이 겹겹처럼 한돌기 한돌기씩 골짜기바닥으로 감돌아 내려 간 계단모양의 푸른 절벽, 검푸른 석탄층, 화차의 긴 행렬, 먼곳에서 울려 오는 기적소리, 공장상공에서 날리는 검은 연기, 골짜기로 서서히 내려 앉으며 길옆에 무성하게 피어 난 여귀바늘꽃을 더 새빨강게 물들이는 무순의 피빛 태양…

대륙광인으로서 《만철》에서 근무하던 아버지 야미구찌 후미오와 함께 요시꼬는 무순 시내 중심거리인 룡조대도로에서 살았다.

그러나 남쪽교외의 광구부근에 있는 영안소학교에 다녔으므로 요시꼬는 매일처럼 탄광공기를 마셨다.

학교로 가는 길옆에는 음식점들과 기생집들이 늘어 서 있었는데 그중에는 《오텐야(선술집)》도 있었다.

이 《오텐야》에는 《요보》라고 경멸받던 조선인로동자들이 단골손님으로 다녔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탁한 음성으로 노래를 중얼거리곤 하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

조선로동자들은 《…비분참페 괴롭고도 쓰라린 하소연 방랑의 하루해도 저물어 가네》와 같은 《방랑인》도 울며 부르곤 하였는데 어린 요시꼬에게는 《아리랑》이 마음에 들었다.

배척 받은 사랑, 배척 받은 운명에 대한 슬픈 하소연… 캄캄한 미래, 그러나 행어나 하는 미래를 품고 사랑과 운명의 캄캄한 미래에로 한발자욱 한발자욱 발터듬해 가는 녀 주인공…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던 요시꼬는 《오텐야》의 창문결에서 《요보》들의 노래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아리랑》을 불렀다. 그러자 몇명의 로동자들이 달려 나와 요시꼬를 《오텐야》안으로 잡아 끌었다.

뿐만 담배연기속에서 만취되어 중얼거리던 그들은 시뻘겋게 피진 눈에 생기를 번뜩이며 요시꼬를 바라보았다.

《애야, 한번만 더 불러 주렴.》

아무생각없이 노래를 다시 부르던 요시꼬는 중도에서 끊고 말았다. 자기를 바라보는 《요보》들의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내렸던 것이다.

《한번만 더!》

그들은 울면서 호주머니의 돈을 털어 요시꼬앞에 내놓았다. …

이렇게 소녀 야마구찌 요시꼬는 《아리랑》으로부터 노래를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그로 하여금 극적인 인생체험을 겪게 하였다. …

요시꼬는 안락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다가가 암갈색 문보를 찢히고는 창문을 열었다.

불야성을 이룬 도쿄만의 원경은 장관이었다. 그러나 탁한 바다바람이 불어 와 요시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등대 저 멀리에는 짙은 어둠속에 잠긴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공포와 신비를 품에 안고 격랑치는 저 대자연이 별안간 무서워 졌다.

(조선은 나에게 있어서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나는 대일항전을 선포하고 20성상을 만주광야에서 싸운 조선인민혁명군에 있어서 명백히 전쟁범죄자였다. 그 사령관이 공화국주석으로 계시는 조선이 이 야마구찌 요시꼬를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나이 60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나 젊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듯 윤기 흐르던 검은 중발머리가 네온등불빛에 하얗게 퇴색되며 흘날렸다.

요시꼬는 쌍겹진 눈시울을 천천히 내리감았다.

리향란 (야미구찌 요시꼬)을 처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던 34년전 신문들의 글발이 점점 크게 확대되어 온다.

《베이징고등법원에서 녀주구 가와시마 요시꼬에게, 상해고등법원에서 리향란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하였다는것이 확실하다고 보아 진다.》

《12월 8일 오후 3시에 상해국제정마장에서 문화주구 리향란을 사형에 처한다.》

리향란을 처형할것을 요구하며 매일과 같이 대중시위를 벌리던 상해시민들…

요시꼬는 자기에게 잊을수 없는 치욕을 가져다 준 괴로운 수용소생활과 군사재판정을 상기하며 조선에 대한 범죄의식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의 의식은 사실상 전후 수십여년동안 잠재해 있던 의식이였다. 그래서 요시꼬에게는 조선으로 가는

길이 일본속담 그대로 구름사이에 다리를 놓고 가야 할 길처럼 힘겨웠었다.

이렇게 떠나온 조선방문길이였다. 요시꼬는 온 일본이 지금 자기를 주시해 보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요시꼬의 조선방문을 반공화국선전에 써먹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사이를 더욱더 반목과 대결으로 몰아 가는데 리용하려 하고 있다.

요시꼬의 난감한 처지를 알게 된다면 수다스러운 언론은 물론 정부에서 때를 만난듯이 얼마나 떠들겠는가. 이것은 요시꼬의 정치생명에 또다시 치명적인 흑점을 남겨 놓게 될것이다. 보다 두려운것은 이 요시꼬가 조선인민앞에 다시한번 죄를 짓게 된다는 그것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풀어야 했다. 그러자면... 가슴이 후둑후둑 떨리었다.

(내 처지에 어떻게 감히...그러나 다른 길은 없지 않는가...)

고뇌속에 시달리우던 요시꼬는 마침내 결심을 가다듬고 손에 힘을 주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 2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하늘에는 얇은 구름층이 덮였을뿐인데 눈물처럼 맑은 비가 내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금수산의사당의 운하기슭을 거닐고 계시었다. 그이의 주변을 감돌면서 포석을 쫓던 흰 비둘기들이 비를 내려 보내는 하늘이 원망스러운지 이따금씩 안타깝게 날개를 퍼덕이였다.

땅도 하늘도 조용히 젖어 들고 있었다.

부관은 그이의 사색에 방해될가봐 조심조심 뒤따르면서도 속으로는 조바심을 치고 있었다. 부관은 수령님의 귀중한 시간이 이렇게 흘러 가는것이 안타깝기만 했다.

이제 하시간후면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대표단이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찾아 온다. 그다음은 제6차빨력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서 우리 나라가 조정위원회 성원국이 된것과 관련하여 이 운동을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협의회가 있게 된다. 그리고 래일은 수령님께서 북부지구의 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떠나셔야 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곳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래동안 거닐고 계신다. 부관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멀리 대성산 주작봉마루를 바라보시었다.

《야마구찌 요시꼬...》하고 조용히 되뇌이시는 그이의 안팡에 서글픈 같은 표정이 피곳 어리었다가 사라져 갔다.

방금전에 금수산의사당 외사국장이 수령님을 찾아 왔었다. 그는 지금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일본국회 참의원의원인 야마구찌 요시꼬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자기를 접견해 주실것을 요청해 왔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외사국장의 말에 약간 놀라움을 표시하시였었다.

《야마구찌 요시꼬?!...》

《그렇습니다. 수령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니.》 수령님께서서는 눈귀를 약간 잔조롭히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머리를 흔들시였었다. 《하도 이름이 같애 뉘서...우리가 남패자에서 북대정자로 갈 때 일본군을 종군한 <리향란>이란 유명한 배우가 있었소. 그 녀자의 본명도 야마구찌 요시꼬였더랬지.》

《수령님.》 외사국장의 얼굴은 심각한 표정을 띠며 굳어 저 갔었다.

《저희들이 그 녀성에 대한 회상록을 본데 의하면 그 야마구찌 요시꼬는 바로 <리향란>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무말씀없이 집무탁우에 놓여 있는 담배팩에서 담배를 꺼내드시였다.

그러나 불을 붙이실 생각은 없으시고 담배로 툭툭 집무탁을 두드리시였다.

《음- 그가 왔단 말이지.》

《자국내에서 요시꼬의원의 우리 나라에 대한 동향은 비교적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녀성의 지난날은 용납키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토벌>대를 종군한것도 그렇고 <백란의 노래>나 <지나의 밤> 같은 수많은 반동영화들에 출연했던것도 문제이지만 개인생활에도 흑막이 있지 않았는가 우려됩니다.

가령 패전말기에 쏘련과의 평화교섭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조선전쟁시기에는 미국동군사령부의 고위정보책임자였던 카농과 인간적으로 가까왔던것으로 하여 <리향란-CIA간첩설>이 신문들에 대서특필로 보도된적도 있었습니다.》

《요시꼬의원이 나를 만나겠나는 목적은 뭐요?》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그와 두 나라 국회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련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적십자 중앙위원회에 우리 나라에 있는 일본인녀성들의 고향방문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하며 외사국장은 그이의 앞에 야마구찌 요시꼬에 대한 자료철을 펼쳐 놓았다. 얼핏 보시니 요시꼬의원이 참의원에서만아니라 중의원에서도 공화국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자료들이 있었다.

《알겠소.》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자료철을 덮으시며 무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외사국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에게 정중히 인사 드리고 집무실에서 나갔다....

멀리 주작봉마루는 희뿌연 물안개속에 잠겨 있

었다. 그러나 왜서인지 항일전에서 전사한 투사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히 안겨 와 그이께서는 선풍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저 주작봉만 바라보면 고난에 찌든 항일의 불바다가 떠오른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것은 남패자를 떠나 북대정자로 가던 고난의 행군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던 그 시절... 먹을것이 없어 눈을 움켜 먹고 한발자욱 한발자욱의 전진을 목숨과 바꾸던 혈전의 나날들...

뒤에서는 수십만의 대군이 따르고 있다. 광란하는 그 무리속에 울리던 처녀의 노래...

보아라 흥안령 뿔어 내린 저 별관을  
나라 지킨 부형의 뉘 잠들어 있다  
...

《만주영화협회》의 유명한 영화배우이며 가수인 그 처녀가 《천황》의 조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충성용무》라는 피색글자를 새긴 흰 천을 머리에 동여 매고 일본도를 휘두르며 《관동군가》를 부를 때면 일만군병사들은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속에 말려 들어 가 《공산군박멸》을 맹세한다, 《나를 웃고 울리는 쌍줄배기상등병 더욱 좋다》를 부르면 그 어떤 마술적힘이 작용하여 백년래의 강설에 거칠어 지고 이지러진 《토벌》대 병사들은 광적인 소리를 내지른다.

그러나 빨찌산대원들의 극도의 분노를 자아낸 그 처녀도 불우한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할수 있었다.

외사국장이 가져 온 야마구찌 요시꼬에 대한 자료철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다.

《...열네살때 요시꼬는 봉천에 가서 산동의 친일파군벌로서 <만주국>창설과 청나라황제 부의를 비밀리에 천진에서 빼내기 위한 쿠데타의 주모자인 리제춘장군의 양딸이 되어 <리향란>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요시꼬는 베이징에서 녀고를 다녔는데 열일곱살때 신경으로 돌아 올 때는 <만영>의 배우로 탈바꿈을 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 <일만천선>, <5죽협화>의 꽃을 탄생시킨것은 화북파건군 보도부의 야마이에소좌였다.

야마이에가 청나라 숙친왕의 딸로서 상해사건을 조작하고 안국군사령이 되어 열하전에 참가하였으며 여러 정계, 군부수뇌들과의 치정관계로 많은 비화를 창출해 낸 가와시마 요시꼬의 첫 애인으로 그 녀자를 타락시킨 근본 장본인이라는것을 상기할 때 참으로 기묘한 일치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다년간 <만주국>과 중국을 뒤흔들어 놓은 두 요시꼬, 한명은 청나라왕녀로서 일본처녀의 탈을 썼고 한명은 일본처녀로서 만주처녀의 탈을 쓴 일본의 꼭두각시들이었다. 결국 두 요시꼬는 전후에 군사재판정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40여년 세월이 흐른 오늘 그 야마구찌 요시꼬가 접견요청을 해온것이다.

《수령님.》

누군가의 석심하고도 저력 있는 음성이 뒤에서 들려 왔다. 돌아 보시니 인민무력부의 최진국장령이 정중히 거수경례를 붙인다.

수령님께서는 피곳 (이 사람이 왜?... ) 하는 의문이 찾아 들었으나 다음 순간 반가운 생각이 드시였다.

최진국은 그이와 함께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온 로투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묻는 눈길로 바라보시자 장령은 차렷자세로 말씀 올렸다.

《수령님, 근간에 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계선에 무력을 배로 증강, 전진배치하였는데 무슨 불집을 일구지 않겠는가 우려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가로이 포석을 쫓는 흰비둘기들을 다정한 시선으로 보시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지금 부산, 마산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전역에서 일어난 투쟁의 불길을 놔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끄지 않겠는가 우려됩니다. 미국최고위당국자의 지난 남조선방문에 이어 일본반동들도 계속 날아들어 공공이판을 벌리고 있는데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진국은 거센 숨을 내뿜으며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힘주어 말씀 올렸다.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을 모두 철수시켰으면 합니다.》

《남조선정국이 복잡한건 사실이지.》 수령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아까 당중앙위원회 김정일조직비서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남조선에서 가까운 어간에 무슨일이 생길거라고 하였습니다. 독재자의 말로 같은거말이요. 나는 그의 판단과 예언을 믿소. 우리 군대는 의연히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에 서야 하오.》

《알겠습니다, 수령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돌아 가려는 장령을 멈춰 세우시였다.

《가만, 진국동무...거 야마구찌 요시꼬라고 일본인 가수가 생각나오?》

《?...》

최진국은 머리를 기웃했다.

《우리가 북대정자로 갈 때 일만군을 종군한 리향란이 말이요. 그 녀자가 지금 우리 나라에 왔는데...》

《아니 그 녀자가 아직도 살아 있던 말입니까?》 하고 최진국은 몹시 놀라와 하며 반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물음에 웃음이 나왔으나 머리만 끄덕이시였다.

《국회위원의 자격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 나를 만났으면 한다오.》

최진국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진노하기에는 너무도 어이없는지 빈 웃음소리를 냈다.

《자기가 땅을 밟고 다니는지 하늘을 밟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녀자군요.

자기 인생에 조선사람들 그것도 우리 혁명군의 피가 어떻게 얼룩져 있는지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고 최진국은 격해서 말했다.

《모르지야 않겠지》

수령님께서서는 장령의 말을 조용히 부정하시었다.

《그러니 일본것들이 더 밍단 말입니다.》 최진국은 열 편 목소리로 말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버릇을 떼놓아야 하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진국의 심정이 이해되지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 하던 시련의 시기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몽강현 남패자를 떠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해 12월 말에 마의하에 대한 습격전투를 조직진행하시였다. 마의하에 등지를 틀고 있던 일만군을 격멸한 혁명군은 로획한 적의 군수물자들을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한편 그들속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을의 좌상로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고나서 출발명령을 내리시려고 자리에서 일어 서시었다.

그런데 이때 기관총소대의 부사수인 최진국이 뜻밖에도 축음기를 안고 달려 왔다.

《사령관동지, 이걸 보십시오. 축음기를 구해 왔습니다.》 진국은 기쁜지 싱글벙글하며 보고했다.

그이께서는 레코드들을 보시고 나서 락심하시였다. 전부 리향란의 노래들을 취입한것들이었다.

그러나 최진국을 실망케 하고 싶지 않아 그중 하나를 고르시었다.

레코드가 돌아 가기 시작했다. 축음기에서는 리향란의 노래가 울려 나왔다.

사나이이라면 사나이라면  
덧 없는 인생에 무슨 미련이나  
죽음 앞두고 내 사나이 담력으로  
일장기 불안고 나가노니  
사나이이라면 죽음이 두려울손가

하나, 둘... 일본노래가 계속 울려 나오자 최진국은 벌떡 성을 내며 레코드를 짓부시려고 총탁을 쳐들었다.

《가만.》 하고 그이께서는 진국을 제지시키며 말씀하시였다.

《마져 들어 보지요.》

여전히 일본노래가 흘러 나왔다. 그런데 마갑

에 상상외로 애수와 비애에 젖은 노래가 울려 나오기 시작했다. 《아리랑》이었다. 대원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마주 보며 두눈만 슬벅거렸다...

(그때 그 녀자는 《아리랑》을 불렀지. 《아리랑》을...) 하고 40여년전의 일을 회억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속으로 되뇌이시였다.

이때 《수령님, 요시꼬가 왜 수령님을 만나뵈겠다고 한답니까?》 하는 최진국의 물음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우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녀성들의 고향 방문문제를 실현시키려는것 같소.》

수령님께서서는 아무말씀없이 걸음을 옮기시였다.

관계부문 일군들은 일본이 이 문제를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려 하고 있으며 요시꼬참의원원이 이 여기에서 앞장서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야마구찌 요시꼬라는 녀성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있다.

그는 처녀시절에 만주처녀의 탈을 쓰고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에 리용되어 왔으며 나중에는 군사 재판까지 받았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공화국 공민으로 조선에 와서 사는 일본인녀성들에게 그 무엇을 주입시켜 일본의 반공화국선전에 써먹으려는것이 아닌가?... 일군들은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것 같다. 그래서 케케묵은 미중앙정보국간첩설까지 들고나오는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일본의 립장은 이해되지였으나 요시꼬에 대한 견해에는 납득이 가지 않으시였다.

과연 그가 오늘도 조선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앞장에 서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최고인민회의와 친선유지를 위해 본 합의는 무엇이며 또 점견요청을 한것은 무엇인가.

어쨌든 표면상에는 그가 정부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다.

요시꼬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 전범자였던 그가 빈손으로 돌아 가면 일본의 언론들은 때를 만난듯이 열을 올릴것이다. 이것은 정치인인 요시꼬에게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의 불온계층들은 우리가 야마구찌 요시꼬를 공정한 립장에서 《심판》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 믿고 있다.

그러니 요시꼬가 들고 온 《일본정부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관계부문의 일군들은 그 《요구》란것을 일본정부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데 리용할 《덧》으로 보고 있다.

그렇수도 있다. 패전후 수십년간 일본은 언제 한번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대한 적이 없었니까.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일본인녀성들의 고향 방문문제였다.

《수령님, 제가 요시꼬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최진국이 성난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때 수령님의 귀전에는 40여년전 겨울 마의하에서 들으신 요시꼬의 그 《아리랑》이 생생히 들려왔다. 그 무엇을 애 타게 바라는 슬픈 하소연, 눈물에 젖은 노래,··· 혹시 야마구찌 요시꼬는 오늘도 그 눈물의 《아리랑》을 부르고 있는것은 아닌가.

《건 왜?》

수령님께서 최진국을 돌아 보시였다.

《수령님, 아무리 세월이 흘렀기로서니 요시꼬가 어떻게 감히 그 무슨 요구에 대하여 운운할수 있습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 인민에게 지은 죄과를 청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편에서 식민지통치시기에 조선인민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고 채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동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팔을 잡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군국주의자들과 일본인민을 갈라 봐야 하오. 요시꼬녀성만 해도 그렇지. 그의 인생의 꿈은 예술이었을거요. 이것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지? 이 꿈을 유린하고 그를 침략정책수행에 내몬 군국주의가 나쁜거지. 요시꼬도 군국주의희생물들중의 한사람이요.》

《그러니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주시겠습니까?》

최진국은 놀라운 눈길로 수령님을 우러러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뚝 굳어 저 서 있는 그의 팔을 가벼이 잡아 쓰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래일 지방을 돌아 보러 가는데 바람도 쏘일겸 우리 함께 가지요.》

발치에서 장난하던 흰 비둘기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 올랐다.

### 3

장중한 관현악선율이 흐른다. 원래부터 서정가 요를 좋아 했던 야마구찌 요시꼬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출연한 3관현성으로 된 이 관현악선율에 인차 심취되였다. 그러나 순간에 심장을 틀어 잡는 이 노래의 제명이 《아리랑》이라는것을 깨닫는 순간 의문이 생겼다.

(식민지사회때 불리우던 이 비가가 어떻게 오늘에도?···)

이 의문을 풀 사이도 없이 요시꼬는 다시 《아리랑》에 끌려 들어 갔다.

절망과 몸부림, 그리운 님 찾아 사나운 폭풍길을 허위허위 걸어 가는 처녀···

종시 불우하게 생을 마친 그 처녀가 언제인가 세이류소호텔에서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보내왔던 장문의 편지가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작은 요시꼬!···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 허무하기 짝이 없구나. 사람은 세상이 칭찬해 줄

때 가 한떨기 꽃이야. 그때 너를 리용하려는 놈들이 벌떼처럼 밀려 들지. 그런 놈들에게 끌려가선 안된다! 너는 자기의 신념대로 행동해야 해. 네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남들에게 리용당하면 찢겨처럼 버림 받는 신세가 돼. 그 표본이 바로 여기 있다. 나를 잘 보아라. 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너에게 이 충고를 준다. 지금 내 심정은 황막한 광야에서 해가 지는것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는것 같은 심정이다. 나는 무척 괴롭구나. 혼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요시꼬의원은 걸잡을수없이 눈물이 솟구쳐 올라와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 갔다.

야마이에와의 첫 사랑, 실련, 사살미수, 양아버지에 의한 강간, 절망 청나라복귀의 꿈, 몽골왕자와의 결혼, 결별, 상해사건조작, 부의의 도주사건창출, 안국군사령··· 청나라왕녀로 태어나 갖은 모략에 다 참가했던 김벽휘(가와시마 요시꼬)는 벌써 그 시절에 자신이 갈 곳을 몰라 허덕이였다.

하다면 야마구찌자신은 어떠한가? 바로 오늘까지 갈 곳을 몰라 허둥거리는것은 아닌가?

《혼자서 어디로 가야 할지···》하는 가와시마의 부르짖음이 《아리랑》선율을 타고 반복되어 울렸다. 불현듯 가와시마가 베이징 제 1감옥에서 처형될때 했다는 마지막말이 생각난다.

《내가 일본옷을 입고 죽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그 녀자의 마지막말이 야마구찌 요시꼬를 편뜻 정신차리게 했다.

(지금 일본은 조선에서 사는 일본인녀성들에게 그런 정신을 고취하려는것은 아닌가? ··· 이 나라를 조국으로 믿고 사는 행복한 녀성들에게··· 내가 그런 요구를 제기했으니 조선측에서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단념하자! 가와시마의 그 유연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자!)

이렇게 결심 다시니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았다.···

불안과 고민과 후회속에서 체류일정이 다 지나 갔다.

요시꼬는 기자회견이라도 가지려고 생각하였다가 그만 두었다. 빈 말을 하기 좋아한다는 인상을 줄것 같아서였다.

빠져린 고통속에 떠날 준비를 갖추는데 위대한 주석님께서 그의 요청을 수락해 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왔다.

그 녀자는 자기가 어떻게 안내원처녀의 부축을 받으며 호텔을 나섰으며 얼마후에는 비행기에 올랐는가를 의식 못했다.

비행기가 리륙한지 반시간후야 가까스로 침착성을 회복한 요시꼬는 기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래로는 무연한 산밭이 끝없이 흘러 가고 있었다.

(백두밀림으로 간단 말이지. 이 얼마나 공교로



운 일치인가...)

요시꼬는 손수건으로 땀이 흥건히 내배인 이마 전을 훔쳤다.

40여년전 백두산을 향해 행군해 가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을 보려고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이 떠올랐다.

...일본 룡군성과 관동군 수뇌들의 **김일성**장군 유격대에 대한 공포심리는 요시꼬에게 그대로 감염되었다. 관동군은 불과 1만 5천여명의 군사로 수십만 장학량군대를 격퇴시켜 《무적황군》의 기적을 창조하였었다. 그런데 그때의 13배가 넘는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었으니 조선인민혁명군은 수십만의 우리 대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말인가.

요시오카장령의 말에 의하면 관동군은 이 작전을 위해 중국전선에서의 공세까지도 미루고 여기에 병력을 집중하였었다고 한다. 20만이 동원되었으나련이어 녹아 나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아니라 관동군이였다.

무서운 신비경에 사로잡힌 요시꼬는 《리향란을 보호하는 회》의 회장이며 부의의 고문인 요시오까야스나오관동군 부참모장과 함께 군용기에 올랐다.

천리 눈바다, 파몰아지는 눈보다... 이 림해설원에서 빨찌산이 싸운단 살인가.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무서워 진 요시꼬는 오스스 떨면서 물었다.

《조선으로 가고 있겠지.》

요시오카장령의 얼굴은 침울하였다.

《대체 무슨 정신이 빨찌산들을 지령하게 하고 있을가요?》

《<아리랑>이지.》

요시오까의 대답에 요시꼬는 와들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이 왜 《아리랑》이라고 말하는걸까?...

요시꼬는 무순의 《오덴야》에서 보았던 조선인로동자들을 회상하였다. 슬픔과 절망, 눈물과 고통의 얼굴과 얼굴들...

아니다! 결단코 그럴수 없다. 요시오까는 조선 빨찌산들을 비웃고 있으며 모독하고 있다. 저 눈보라를 헤치며 싸우는 강인한 사람들에게 슬픔과 눈물과 고통은 있을지언정 절망과 한숨은 없다.

절명이나 한숨이 회오리쳐도 한덩이 얼음으로 굳어 저 버릴진대 20만을 대적하는 그 철의 대오에 어찌 절망이 있을것이며 한숨이 있을것인가.

《부참모장님, 모독한다고 위대해 지는것이 아니며 모독 받는다고 추해 지는것은 아니지요.》 하고 요시꼬는 쌀쌀하게 말했다.

《모독?!...》 요시꼬를 얼추 훑어 보는 요시오까의 얼굴에 령소가 떠올랐다. 《나는 모독하고 있는게 아니야. 모독은 상등병들이나 애송이소위 따위들이 할 일이지. 조선민족은 류달리 <아리랑>을 사랑하는 민족이란걸 알아야 해. 지난해 조

선주둔군사령부에서는 보천보가 얻어 맞자 라남 19사단의 함흥 74련대를 급파했지. 간삼봉에서 큰 전투가 벌어 졌는데 저녁무렵에 산중에서 빨찌산녀대원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어. 황군병사들은 그 노래에 조별죽음이 됐거던. 나에게서는 어쩐지 그 불가사의한 대오에 <아리랑>이 흐르고 있다고 예상된단 말이야.》

요시꼬는 놀라왔다.

《아리랑》!

요시오까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시 음미해 볼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덴야》에서 울리던 그 음조와는 다를것이다.

가만! 《아리랑》은 슬픔의 노래만은 아니지 않는가. 그 노래에는 희망이 있다. 희망! 사랑하는 님께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과 님과의 상봉을 애타게 바라는 강렬한 희망!

하다면 빨찌산대원들의 마음의 님은 무엇인가?

조국?... 그럴수도 있다. 허나 그렇게만 보면 모순이 생기지 않는가.

이제 요시오까가 말한것처럼 조선민족은 류달리 《아리랑》을 사랑한다. 《아리랑》은 《오덴야》에서만이 아니라 조선독립군에서도 불리웠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가서 참패와 멸망의 쓰디 쓴 맛을 보았다. 그들은 혁명군대원들과 같은 기적과 전설아닌 전설을 창조해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혁명군대원들의 님은 무엇이겠는가? ...

그날을 돌이켜 보며 요시꼬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관현악을 상기하였다.

《요시꼬선생님, 저기 백두산이 보입니다.》

방문전기간 언제나 웃음을 머금고 각별히 대해주던 처녀안내원이 차창밖을 가리키며 환성을 질렀다.

요시꼬는 10월의 창공에 거인처럼 우뚝 솟아 올라 백발을 날리는 백두산을 신비경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처녀시절에도 100만관동군을 취락파락하던 **김일성**장군님의 존함과 직결된 저 백두산을 공포와 신비경속에 바라보던 요시꼬였다. 그 공포와 신비속에는 인생의 아름다운 희망이 비껴 있었다.

《오덴야》의 조선인로동자들의 피멍든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던 그 눈물에 젖은 기쁨!

어찌보면 림해설원을 헤치던 혁명군대원들 그리고 오늘날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것일지도 몰랐다.

그래서 요시꼬에게는 그자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저 백두산이 희망의 백두산이기도 하였었다.

백두산은 점점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자기의 용자를 나타냈다.

비행기는 기수를 낮추기 시작했다.

《항일유격대가 차지하고 있던 중국 길림성의 지하지휘부에서 당신이 출연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중히 인사 드리는 야마구찌 요시꼬의 손을 따뜻이 잡아 주시며 말씀하시였다.

당혹감으로 하여 요시꼬의원의 눈길은 허둥거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의자들이 놓여 있는 정원을 가리키시였다.

《지원한데 여기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앉으시오.》

요시꼬의원은 울창한 이팝수림속에 있는 정원을 얼핏 둘러 보고는 조심히 앉았다.

《그때 들은 <사랑 파는 노래>가 잊혀 지지 않습니다. <아편쟁반 화려하고 아편연기 달다 해도 아편빨면 자기 몸 망쳐요...> 허허.》 하고 조용히 노래가사를 외우신 수령님께서서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였다.

요시꼬는 위대한 주석님께서 수십년전에 영화에 나온 노래를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는것에 놀랐지만 보다는 그이의 뜨거운 인정미에 감격했다. <사랑 파는 노래>가 나오는 영화는 당시 야마구찌 요시꼬가 출연했던 수많은 영화들가운데서 진보적이라고 할수 있는 단 한편의 영화였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그 영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것이다.

《그 노래가 온 중국땅에 류행되었지요. 원래 아편을 빠는 사람은 사랑을 즐겨 먹었습니다. 중국이 아편때문에 망했으나 중국사람들은 아편을 끊을것을 호소한 그 영화를 모두 좋아했습니다.》

《주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 서서 주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 요시꼬의원은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머리를 수그렸다.

《그래 계획된 일정은 다 보았습니까?》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신 수령님께서서는 요시꼬에게 어서 앉으라고 손짓을 하시며 물으시였다.

《예... 다 보았습니다.》

《요시꼬선생이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일본 국회사이의 다리가 되겠다고 했는데 훌륭한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다녀야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있던 길도 없어 지게 됩니다.》

《그저 마음이 앞설뿐입니다.》

《그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마음이 화합하면 부처도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꼬선생은 어떻게 되어 정치가가 될 결심을 하였습니까?》

요시꼬는 잠시 생각에 잠겨 패망이후의 파란

많은 일들을 돌이켜 보다가 그이께 말씀 드렸다.

...패망된 이듬해에야 수용소에서 풀려 나온 요시꼬는 죄 많은 지난 날과 완전히 결별하려고 《은퇴성명》을 냈다. 허나 전후의 어려운 생활은 그를 다시 영화계에 떠밀었다.

일본과 미국의 영화들에 출연하던 요시꼬는 40이 가까와 와서야 자기를 그래도 이해해 주는 청년의교관과 결혼할수 있었다.

물론 외무성의 강력한 반대요구를 물리쳐야 했다. 그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녀자는 주재국인민들의 반일감정을 사무치게 느꼈다.

일본의 침략정책의 직접적수행자였던 요시꼬는 일본과 이 나라들사이에 친선관계를 맺는 문제를 자기 대에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다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 나서 후지 텔레비존에 출연하다가 정치무대에 나섰던것이다. ...

《음- 그래서 이번에 일본인여성들의 고향방문 문제를 제기했군요. 좋은 일입니다.》

《예?!...》

주석님의 말씀에 야마구찌 요시꼬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요시꼬는 그 문제를 오랜 고심끝에 스스로 철회하였었다. 그런데 주석님께서서는 지금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평가해 주시지 않는가.

당황해 진 요시꼬의 얼굴에 노을빛이 붉게 물들었다.

《저... 주석님, 저는 일본인여성들의 고향방문 문제를 철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왜 철회하려는겁니까?》

의자등받이우에 한팔을 얹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손으로 등받이를 다독이시였다.

《저는 이번에 평양과 원산에 있는 동포여성들을 찾아 가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뜻밖에도 맹대만을 받았습시다.》

《?!...》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나라를 조국이라고 부르는것은 우리를 차별없이 대해 주고 친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품속에서 새삶을 받아 안았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녀성들의 진정한 토로를 믿습시다.》

《하지만 그 말이 고향에 가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힌 요시꼬는 탄식 같은 한숨을 지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되살아 났으나 이 석상에서 토로할수는 없었다.

《주석님... 저는 어제날의 <리향란>입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요시꼬는 머리를 떨구었다.

《아니지요.》 수령님께서서는 가벼이 손을 저으시였다.

《오늘의 국회의원이지요. 우리 나라에 와있는

일본인녀성들도 그 누구에게 통락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갈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행복을 찾은 녀성들입니다. 고향에 가보는것은 그들의 응당한 권리입니다. 그 어느 개인도 국가도 이들의 권리를 무시할수 도 없으며 통락할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요시꼬선생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 요시꼬는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억제할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석님.》

젖은 목소리로 말씀 올리는 요시꼬의 눈앞에는 일본인녀성들이 경애하는 주석님을 자기들의 어버이로 흠모하며 칭송하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어버이! 이 사랑이야말로 정견도 국경도 초월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주위에는 어둠이 발뻘발뻘 내려 앉기 시작했다.

저 멀리 백두산마루에도 별이 돌아 빛을 뿌렸다.

요시꼬는 주석님의 말씀에 심취되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서방의 관계며 제3세계 나라들의 정치경제발전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발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었다.

《...토지개혁으로부터 건국을 시작한 우리 혁명은 오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치산치수를 힘있게 벌리는데 머지 않아 하를까지 길들일겁니다.》

《주석님, 옛글에 정치가는 토지의 구획을 바로잡는것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하여 치산치수로 정치를 마쳐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감동되는바가 큼니다.》

《허— 그랬는가요? ... 요시꼬선생,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백두고원을 개간하면서 량강도에서는 감자가 밭곡식의 왕이다, 그러니 감자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이곳 백두고원에서 감자대풍을 마련하였습니다. 저길 보시오.》

수령님께서는 길 건너편에 펼쳐져 있는 정원시험포전을 가리키시며 자리에서 일어 서시었다. 요시꼬도 일어 서며 포전을 바라보았다. 이미 가을단장을 한 감자이파리들은 그 무엇인가를 속삭이며 설레이고 있었다.

《저 포전들은 내가 째째가 가꾼것들인데 잘되었습니다. 역시 량강도에서는 감자가 밭곡식의 왕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씀하시었다.

《아니 주석님께서서는 여기서도 포전을 가꾸십니까?》

이미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 시험포전을 만드시고 손수 가꾸신다는 이야기를 들

은적이 있는 요시꼬는 외람된것도 있고 물었다.

《이 백두고원은 나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향일전을 벌릴 때 전우들은 이곳에 대농장을 일떠세우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지난 전쟁때 국영농장을 지으면서 5호농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때 일부 사람들이 이 농장을 없애자고까지 하였었는데 오늘은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되고 있습니다.》

요시꼬는 가슴이 뭉클 젖어 들었다. 어린 처녀 시절부터 수많은 정치가들과 한다하는 수반들을 만나본 그 녀자였다. 하지만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토록 마음을 쓰시며 로고를 바치시는 수령이 그 어디에 있었던가. 왜서인지 요시꼬에게는 정원의 감자이파리들이 설레이는 소리가 관현악의 《아리랑》 선율처럼 들려 왔다.

시험포전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호미를 쥐시고 감자 한알을 파내시었다.

《요시꼬선생, 이 감자를 보시오. 얼마나 크고 먹음직스러운가.》

《주석님, 정말 감자가 대단합니다.》

요시꼬는 그이께서 내미시는 감자를 받아 쥐고 가슴우에 얹으며 소녀시절에 어리광을 부리듯이 말했다.

《군침이 도는게 막 먹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 수령님께서서는 저녁기온을 가늠해 보시는듯 하나둘 별들이 돋기 시작하는 하늘과 어둠이 깃든 밀림을 보시고 나서 손바닥을 터시며 몸을 일으키시었다.

《좋습니다. 나는 원래 감자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오늘 요시꼬선생에게 솜씨를 보이지요. 가만, 저 누구의 손을 빌릴것 없이 빨찌산식으로 할가요?》

《주석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야마구찌 요시꼬는 《빨찌산식》이라는 말씀에 현혹되어 기쁨을 금치 못해 손바닥을 마주쳤다.

《좋소. 뭐니뭐니해도 빨찌산식이 제일이지요. 우선 삭정이들을 그러모읍시다. 진국동무도 빨리.》 하고 수령님께서는 옆에 서 있는 장령을 재촉하시었다.

《예.》

요시꼬는 그제야 비로소 이 정원에 불을 피워 감자를 구우려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온 세계가 자주시대의 수령으로 칭송하는 경애하는 주석님께 내 감히 무슨 청을 드렸는가 하는 자책감이 전신을 휩쌌다. 그 녀자는 허둥거리며 여기저기서 이빨나무삭정들을 주었다. 얼마간의 삭정들을 안고 가보니 수령님께서는 이미 정원숲속의 평퍼짐한 땅에 마른 버드나무가지들을 쌓아 놓고 시고 요시꼬를 기다리고 계시었다.

《하, 저 수확이 대단하군요. 그런데 그 나뭇불티가 너무 튀어 어떡한다? 글썽 나는 주인이니 일 없지만 요시꼬선생의 옷에 구멍이 나면 서방신문들이 얼마나 시비질하겠습니까?》 하고 그이

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요시꼬는 무안을 타며 얼른 삭정이를 놓아 버렸다.

《전 그저 나무면 다 되는줄 알고...》

《허허...일 없습니다. 이 버드나무면 충분하셨습니다. 강마른 버드나무는 불담이 센데다가 연기가 나지 않아 좋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무무지우에 최진국장령이 들고 온 감자를 쏟으시였다.

《땅에 감자를 묻고 그우에 불을 피워 삶는 방법도 있고 알불에 넣어 굽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굽는 감자도 별맛입니다.》

이어 버드나무무지에 불이 달렸다. 센 불길이 치솟으면서 어둠을 태웠다.

《요시꼬선생, 여기에 앉으시오. 진국동무도...》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요시꼬의 손을 잡아 자신의 곁에 앉혀 주시였다.

그이의 다심한 사랑에 요시꼬의 마음은 더욱 송구해 졌다.

《사실 요시꼬선생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을 때 생각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무지에 이따금씩 나무가지들을 덧놓으시면서 약간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전우들도 못 견디게 그림고... 나야 수많은 전우들을 저 백두산과 만주광야에 묻고 온 이전날의 사령관이 아닙니까.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아 무척 섭섭했겠는데 리해해 주시오.》

《주석님!...》 요시꼬는 그만에야 눈물을 쏟았다.

《저는... 주석님께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일만군을 종군하며 노래를 불렀고 군국주의영화들에 출연하여 침략을 고취했습니다. 마쯔오카의상이 모스크바에서 쏘일중립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의 아들과 사랑놀음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제가 감히... 감히 주석님앞에...》

《요시꼬선생. 인생에는 춤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오.》

《주석님!...》

요시꼬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 했으나 목이 짝메여 와 입을 열수가 없었다.

《이렇게 백두산기슭에서 우등불을 피워 놓고 감자를 구우니 백두산시절이 못 견디게 생각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이 활활 이는 불무지를 바라보시며 감회 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어느 전투에선가 이 최진국동무가 축음기를 하나 구한 일이 있었는데 레코드에 요시꼬선생의 노래가 취입되어 있더군요.》

요시꼬는 자기를 여겨 보는 장령에게 머리 숙여 레의를 표시했다.

《그때 우리 동무들이》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노래를 들어 보고 참 아름답게 생긴 처녀가

노래도 잘 부르는데 목소리가 아깝다, 산으로 훌쳐 와 혁명가요를 배워 주고 돌려 보내겠으니 승낙해 달라고 하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반세기가 되어 옵니다. 허허허.》

《정말 그때 조선인민혁명군에 잡혀 왔더라면 저의 일생이 크게 달라 졌을것입니다.》

요시꼬는 불그무레해 진 얼굴을 숙이고 젖은 목소리로 말씀 올렸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요시꼬선생이 <아리랑>도 불렀던것 같은데...》

《예,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시꼬선생은 어떻게 되어 <아리랑>을 잘 부르게 되었습니까?》

그이의 물음에 아마구찌 요시꼬는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타들어 가는 나무가지를 집어 들었다. 화광이 그 녀자의 얼굴에 각양각색의 얼룩을 지어 놓았다.

《<아리랑>은 나라를 빼앗긴 조선민족이 자기운명을 구원해 줄 님을 찾는 민족의 비가였습니다. 조선민족의 피 타는 갈망이 아마 그 시절에 저의 심장에도 간직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감자가 구워 지는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꼬챙이로 구워 진 감자들을 골라 내시여 그중 하나를 요시꼬에게 주시였다.

《우리 맛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두손으로 구운 감자를 정중히 받아 든 요시꼬는 물기가 반짝이는 눈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말씀 올렸다.

《주석님, 성찬도 이런 성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저의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 날입니다. 저는 이날을 축복하여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요시꼬선생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억의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요시꼬는 자리에서 일어 서서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화광이 그 녀자의 얼굴을 환히 비쳤다.

요시꼬의 노래는 불빛과 함께 백두밀림으로 서서히 퍼져 갔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달 뜨고 별 뜨고 해도 뜬다

요시꼬의 얼굴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주석님께서서는 죄 많은 저의 과거에 대해 인생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다는 뜻 깊은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사실 지은 죄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이 오래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새로운 청춘을 받아 안은것 같습니다.》

《요시꼬선생이 부르는 <아리랑>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와 집니다.》

수령님께서 뜻 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어제도 중요하지만 오늘과 래일은 더 중요합니다. 불우한 어제날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것보다 오늘과 희망찬 래일을 위해 헌신하는것은 인간으로서 정치가로서 요시꼬선생이 두 나라 인민들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석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청으로 새로운 오늘과 래일을 위해 살것

습니다.》 요시꼬는 환희에 찬 웃음을 지으며 수령님께 말씀 올렸다.

《주석님! 백두산에는 조선의 태양뿐만이 아닌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 있습니다. 어제날 나라 잃고 자기 운명을 구원해 줄 님을 그리며 <아리랑>을 울며 부르던 조선인민은 오직 위대한 주석님만을 믿고 따르고 있으며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스러운 대렬에 서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아리랑>은 주석님을 따르는 <아리랑>입니다.》

그 녀자의 말에 화답하듯 쉼-쉼-하고 밀림이 설레었다. 백두밀림이...

## 집

### 정동찬

집  
산자로 엮어 올리고  
흙을 발라 이영을 엮은 집  
옛 세월의 험악한 홍수에도 떠밀리지 않고  
곳곳이 솟아 있는  
만경대고향집

젊으신분들은 큰 뜻 품으시고  
다들 항일전의 마당으로 떠나보내시고  
만경대를 지키신 조부모님들  
사립문을 차며 들이닥친 회오리속에서도  
새벽이면 청 고운 닭울음소리 남산에 울렸고  
순화강가 수수밭고랑에선 예대로 김 매는 호  
미질소리

광복전에서 이기고 돌아 오는  
식솔들앞에 떳떳하자고  
할머님의 물레질소리는  
밤새 그칠줄 몰랐고  
새끼를 꼬시던 할아버님 모습은  
초가집 등잔불에 력력히 어렸어라

말아드님 비보에 문풍지 아파 울고  
둘째분 못관고문소식에 때 아닌 소낙비가 마  
당을 두드릴 때도  
한주먹 또 한주먹 흙을 빗어  
뒤뜰안 떨어 진 벽체의 상처를 메우고  
식솔들 그리울적이면 끌어 보는 가마전

보양계 물매를 놓던 집  
집을 나신 만장손이  
백두산을 타고 앉아  
이 집을 내려다 본다고  
낮은 이영 벗겨 버리고  
보란듯이 햇짚이영 올린 집

슬픔만 딛고 일어 선 집 아니더라  
기쁨을 안고도 설레던 집이더라  
바람처럼 날아 온 보천보소식에 들썩쿵  
농막 그늘아래 햇병아리야 어서 오너라 구구구  
토방돌아래 강아지야 이리 오너라 콩니리 콩니리

다 억세거라 백두산아  
초가이영 받들고 선 기둥목 부여안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백두산만 바라보며  
굳세여 진 만경대고향집  
**김일성**민족의 산 녀이 조용히 문을 열어 놓고  
력사의 교단우에 서 있는 집

모진 세월의 풍랑속에서도  
한시도 뜨지 않고  
조선의 뿌리를 지켜 낸 집  
불굴의 생애로 이 나라의 녀을 지켜 낸 집이여  
이 트랙에서 내 받아 안노라  
만경대혈통의 조국수호정신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전사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험하고 한평생을 오로지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김정일

##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아버이를 우러러

나라 없던 그 시절 청운의 뜻을 품고 갈 길 몰라 헤매이면서 운명의 앞길을 밝혀 줄 희망의 빛을 찾아 목 타게 부르던 우리 작가들을 은혜로운 품에 안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문학의 담당자로 키워 주시고 내세워 주신 아버지수령님.

정녕 그 품은 저 빛나는 태양같이 따사롭고 저 푸른 하늘처럼 넓고 무한대한 사랑의 품이다.

그 품속에서 참다운 인생의 진리를 배우고 크나큰 문학의 세계를 깨우치며 성장한 우리의 작가들, 지금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아도 그들의 진정이 담긴 심장의 목소리 4월의 봄하늘가에 울려 가며 오늘도 우리모두의 가슴가슴마다에 뜨겁게 젖어 든다.

## 내 운명의 찬란한 태양

《<신로심볼로>라는 말이 있다. 몸은 늙었으나 마음은 늙지 않았다는 말이다. 꼭 나를 두고 한 것같은 말이다.

나는 지금 비록 몸은 늙었지만 젊었을 때나 다름 없는 왕성한 기력을 가지고 창작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이 미약하고 년로한 작가를 친아버이 심정으로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이 있었기때문이다.

나는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한다. 만일 내가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것인가?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깊어 진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대해 더욱 절절히 느끼게 되는것이 나의 심정이다.

나는 젊어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진리도 몰랐으며 사람의 운명은 마치 그 무슨 불가항력의 힘에 의하여 좌우되는줄 알고 행

운이 차례지기를 기다리었다. 광복전 50평생을 허망하게 살아 오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서야 비로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으며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는것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나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 주시고 나를 혁명하는 인간으로, 당의 작가로 키워 주시고 이끌어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내 운명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만물을 소생시키고 키워 내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나를 품에 안아 키워 주시고 내세워 주신 은혜로운 품! 한생을 돌이켜 보는 나의 마음속에는 죽어서도 정녕 잊지 못할 아버지수령님의 해빛 같은 미소 어린 친근한 영상만이 하늘 가득, 가슴가득 안겨 온다.》

리기영

## 하나의 물방울로 크나큰 바다를...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를 놓고 열, 백을 헤아릴수 있다는것을 뜻하는 말일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에게 돌려 주신 사랑과 배려, 이것은 비단 나 한사람에게 돌려 주신 사랑과 배려가 아니다. 거기에는 우리 작가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가 비껴 있는것이다.

그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도 같은 존재였던 내가 혁명문학을 하는 작

가로 성장할수 있었다.

내가 우리 혁명력사를 그릇되게 외곡한 작품을 써서 커다란 걱정을 끼쳐 드렸을 때에조차 작가와 작품을 아껴야 한다고 하시며 저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분이 바로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때로는 엄하게 비판도 해주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이른바 순수 <문학정신>의 몽롱한 신기루속에서 헤매이던 나의 눈을 띄워 주시고 손잡아 이끄시여 키워 주신 아버지수령님!

태양의 빛과 열과도 같은 빛나는 예지와 뜨거

운 사랑으로 하나의 물방울로 크나큰 바다를 만  
들어 내시는 수령님! 인류력사의 갈피를 헤치고  
또 헤친들 이렇듯 위대한 사랑과 고매한 덕성을

지닌 수령을 어디서 찾아 볼수 있으랴!》

천세봉

## 내 인생의 자애로운 스승

《사람들은 아름답게 핀 한송이 꽃을 볼 때 그  
꽃의 아름다움은 흔히 느끼기 쉬우나 그 꽃이 어  
떻게 되어 그토록 아름답게 필수 있었는가에 대  
하여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름다운 꽃이 피자면 오래동안 따뜻한 해빛을  
받아야 하며 깊은 땅속에서 맑은 물과 갇가지 영  
양소들을 끊임없이 빨아 올리여야 한다. 철이 오  
면 저절로 피어 나는것 같은 한필기 꽃도 그렇지  
늘 한 인간이, 한 작가가 자라온 길이 어찌 단순  
하며 순탄할수 있으랴.

인간으로서 또 작가로서 나의 성장과정에는 평  
범한 문학신인에 불과했던 나를 믿어 주시고 내  
세워 주시며 거듭거듭 타일러 깨우쳐 주시고 때  
로는 엄한 질책도 해주시며 키워 주신 어버이수  
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 있다. 그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지난 날 문학이 무엇인  
지, 당과 혁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내가 혁명문  
학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당당한 작가로 성장  
할수 있었다.

이 땅우의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태양의  
빛과 열에 있듯이 내가 쓴 모든 작품에 담겨 진  
환상과 열정과 지혜의 원천은 어버이수령님의 자  
애로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있는것이다.

세상에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그것은  
흔히 세속적인 사랑에 그치고 마는것이며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육신을 키워  
주는데 그치고 마는것이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  
께서는 나에게 넋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여 작가로 키워 주시였으니 그것을  
어찌 자식을 키운 부모의 세속적인 사랑에 비길  
수 있으며 이 세상 어디에 자기 자식에게 이렇듯  
황홀한 환희와 고귀한 정신적재부를 안겨 준 부  
모나 스승이 또 있으랴!

하기에 오늘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문  
학의 현명한 스승으로, 운명의 자애로운 어버이  
로 부르고 있는것이다.》

백인준

## 진정한 애국자가 될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애국가>를 쓴 작가라고,  
어떻게 그런 훌륭한 가사를 쓸수 있었는가고 문  
군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군 한다. <애  
국가>의 가사를 쓴것은 나이지만 그의 종자를 주시  
고 구체적인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  
주시여 훌륭한 명가사, 명곡으로 완성시켜 주신  
분은 바로 어버이 수령님이시라고-

진정한 애국자가 될 때 훌륭한 작품을 쓸수 있  
다고 하시며 <애국가>에 담아야 할 내용과 창작  
방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그 모습은 진정 우리 조국과 인민을 제  
일로 사랑하시는 참다운 애국자의 빛나는 모습이  
였다.

참으로 <애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뜨겁게 사랑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심장에서 태어난  
노래이다.

광복전 진정한 문학의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이  
고 방황하던 나를 그 크나큰 품에 안아 주시고  
친히 손 잡아 키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여 오늘과  
같은 영광을 안겨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내 무슨 말로 노래할수 있으랴.

내 몸은 비록 늙었을망정 나에게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을 안겨 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대하여  
한생토록 노래하고 싶은 심정은 언제나 내 가슴  
에 붉게 붉게 타오른다.》

박세영

## 하찮은 조약돌을 빛나는 옥으로

《광복직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안던 그날이 엇그제 같  
은데 어느덧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 땅우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조선을  
을 세울데 대하여, 새 조국건설에서 우리 녀성지

식인들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  
쳐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론 그 모습은 세  
월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잊을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때로부터 머리우에 흰 서리 내린 오늘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갈 길 몰라 헤매이던 평범한 문학소녀였던 나를 따사로운 품에 안아 키워 주시어 어엿한 녀성작가로 내세워 주시었다.

한없이 친근하시고 인자하신분, 언제나 부드러우시고 활달하시고 열정적이신분, 빛나는 예지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모두를 품어 주시고 신념과 용기를 주시며 희망찬 래일에도 떠밀어 주시는 분!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넓고 넓은 품은 사랑과 은정으로 차고 넘치며 그 품속에서 사람마다 성장하고 행복을 찾고 하찮은 조약돌들도 다듬어져 옥으로 빛나는것이니.

내 백번을 다시 태어나 산다 한들 그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어찌 다 보답할수 있으랴.

언제면,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수 있을까, 나는 자나깨나 오직 이 생각뿐이다.

나는 남은 여생을 다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작품을 쓰고 또 쓸것이다.》

신진순

## 정치적운명의 어버이

《예로부터 인간은 세상에 한번 태어나 한번 생을 산다고 하였다. <일생>이라는 말도 바로 그래서 생겨 난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나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 안겨 이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나는 행복을 받아 안았다.

나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의 모해로 정치적생명을 잃고 10여년세월을 보냈다. 그 동안 나는 비로소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러니만큼 오랜 고뇌와 시련끝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보다 더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다시금 정치적생명을 받아 안았을 때, 이 땅에 두번 다시 삶을 받아 안고 새로 태어났을 때 나의 감격과 환희와 고마움이 어떠하였겠는가.

나에게 와닿는 찬란한 재생의 빛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문학과 작가를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빛발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 온 세계를 향해 목 터지게 웨치고 싶었다. <나는 다시 이 땅에 태어났노라! 다시 삶을 받았노라!>고—

그리고 쓰고 싶었다. 꼭질 많은 나날속에 체험으로 간직한 인생의 참된 진리를 붓글에 담아가슴 터지도록 웨치고 싶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은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이 영원토록 안겨 살 영원한 삶의 품이라고—》

김상오

## 죽어서도 안기여 사는 품

《인간의 육체적생명에 한계가 있듯이 작가의 생애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죽어서도 잃지 않는 생을 받아 안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

오랜 작가들이 우리결을 떠나갈 때마다 재능 있는 아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좋은 작품을 많이 쓴 당에 충실한 동무였다고 못내 애석해 하시며 떠나간 전사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인류의 력사와 함께 문학의 력사가 오래다 하지만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의 력사에 이렇듯 작가들을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세워 주시는 위대한 수령이 어디에 또 있으랴.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은 우리 작가

들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안기여 살 영원한 삶의 요람, 영생의 품이다.

그렇다. 인간의 육체적생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작가의 작가적 생애에는 한계가 없거늘.

우리결을 떠나간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추억속에,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

태양의 빛을 받아 저 하늘의 못별들이 영원히 빛을 뿌리듯이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위대하고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 있어 우리 작가들모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오를수 없는 최상의 지위에 올라 값 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것처럼 빛나는 삶을 누리고 있는것이다.》

리 맥

## 전선길에서 드리신 경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잊을수 없고 지울수 없는 송고한 추억과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심장속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소중한 추억과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를 이어 가시는 길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이 깃든 단위들부터 먼저 찾으시는것이며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길은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더욱 길이 빛내이기 위한 위대한 력사의 장정이다.

주체86(1997)년 4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선 전선동부 1211지에 대한 력사적인 시찰을 단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35돐이 되는 뜻 깊은 날에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1211고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1211고지의 인민군전사들을 만나보신데 이어 지혜산을 찾으시였다.

해발 1,237.3m의 지혜산은 1211고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비 쏟아 지는 최전방인 바로 이곳에까지 나오시여 전쟁사상 가장 가렬처절한 싸움이였던 1211고지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예지를 칭송하여 《지혜산》으로 부르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름 없던 이 산은 력사의 명산으로 그 이름 빛나고 있다.

지혜산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46년전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파로운 벼랑길을 뚫으시며 고지의 정점에 오르시였다.

력사의 증견자인양 잊을수 없는 그날의 사연을 고이 간직하고 거연히 솟아 있는 고지를 돌아 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숙연한 추억의 빛이 어려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어버이수령님께서 작전도를 펼쳐 놓으시고 1211고지전투를 지휘하시였던 너럭바위며 피어린 격전의 자욱이 력력한 폭

탄구덩이들과 포연에 불 타고 파편에 찢겨 진 나무들을 돌아 보시면서 가렬한 전화의 나날들을 되새겨 보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 만단사연을 불러 일으키는 지혜산이였다.

우리 전사들이 원썬들과 판가리싸움을 벌리고 있는 곳인데 왜 나라고 가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언제 한번 이런 곳을 위험하다고 피한적이 있었는가 하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비속을 뚫고 찾으시였던 지혜산, 차가 못 가면 걸어서라도 가자고 하시며 포탄이 날아 와 터지고 칙냉쿨이 뒤엎킨 길 아닌 길을 헤치시며 험한 고지를 앞장서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그날 여기 지혜산에서 지휘관들에게 미체의 《추기공세》를 격과할 주체적인 전법을 밝혀 주시고 콩과 찹쌀을 보내줄테니 전사들에게 콩나물도 길러 먹이고 떡도 해주라고 하시면서 1211고지용사들에게 한없이 뜨거운 육친의 사랑과 배려를 안겨 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싸우는 전사들이 그리우시여 1211고지를 몇번이고 뒤돌아 보시며 산을 내리지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군단장이 점심식사라도 드시고 떠나시라고 하자 전사들이 점심도 못 먹고 싸우고 있는데 나라고 앉아서 식사를 해서야 되겠는가, 점심을 가져 온것이 있으니 가다가 차안에서 들겠다고 하시며 그냥 떠나시였다. 하지만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타고 오신 차안에 마른 빵 두개밖에 없다는것을 그 누구도 몰랐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선 그 빵마저 전사들 생각에 드시지 않으시고 포연길을 이어 가시였다...

눈물겨운 그날의 일을 되새겨 보시는듯 지혜산 마루에 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빛은 저으기 추연하시였다. 하나의 바위, 한그루의 나무에도 수령님의 자취가 깃들어 있는 사적지주위를 천천히 돌고 또 도시는 장군님의 발걸음에서는 천만군의 무게가 느껴 졌다.

전화의 그날처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을 잊을수 없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리우시여 뜻 깊은 4월 15일에 지혜산의 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소중한 추억을 불러 주는 사적지를 둘러 보시

산 마루에는 숙연한 정적이 깃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중하신 음성이 뜨겁게 울  
리였다.

$$\ll \quad \gg \quad \gg \quad \gg \quad 1/4$$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머리에 올리시어  
탄생 35돛을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가장 경건  
한 심정으로 삼가 경의를 드리시었다.

선대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의 한없이 거룩한 수령승배의 모습이 불멸의 화폭으로 력사에 아로새겨지는 시각이었다.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선길에서 삼가 드리신 최대의 경  
의!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존경과 흠모, 절절한 그리움과 소중한 추억,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게야 말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관, 위대한 령도자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의 표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드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경의에서 수령의 위업의 불패성과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를 보았으며 장군님께서 지켜 주시고 꽃 피워 주시기에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미래는 략관적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력사에 길이 빛날 위인의 경의를 영원한 신념의 맹세로 가슴깊이 새겨 안고 우리 인민은 이 땅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며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 갈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격해 지는 마음을 다잡으시는듯 잠시 동안은 두시있다가 말씀을 이으셨다.

한포기 풀도, 한줌의 흙도 그이의 말씀을 새겨  
두는듯 하였다.

하시는 말씀, 짝으시는 자옥마다에 아버지수령  
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회고를 담  
으시며 지혜산마루를 거니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께서는 사적비안으로 걸음을 다시 옮기시며 동행  
한 일군들을 돌아 보시었다.

« » »İ »İ Ð » » »  
» » » » »  
É

그이께서는 사적비앞에 정중히 서시며 이제라도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시였다. 일꾼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사적비앞에 경건히 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엄숙하게 구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산천초목도 숨을 숙이고 바람결을 타고  
흘러 가던 구름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선듯... 지혜

뜻 깊은 4월의 태양절을 맞으며 남녘겨레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경모하는 노래들을 지어 부르고 있다.

편집부는 그중 하나를 아래에 소개한다.

## 4 월명절 날자풀이노래

일-일천구백십이년 사월 십오일  
 천-천하절승 만경대에 태양이 솟아  
 구-구만리 창공에 빛을 뿌렸소  
 백-백화가 만발하는 이날이 있어  
 십-십삼도에 광복의 해살 비끼고  
 이-이복에 **《이민위책》** 새 세상 꽃 폈소

년—년중에서 제일로 경사로운 날  
 사—사람마다 친어버이 생신날인듯  
 월—월력에 표시하고 기다린다고  
 십—십년세월 천만번 흘러 간대도  
 오—오매불망 주석님 탄생하신 날  
 일—일구월십 기다리는 태양절일세

# 조선의 총대는 말한다

간파미로브 레오니드 빠블로위치

령토와 인구가 작은 나라 조선  
허나 천만대적을 타승하는 강대한 나라  
이 나라의 방선에 철벽의 성새로 솟은  
조선인민군의 총대를 두고  
나는 이 시를 쓴다

나는 붉은군대 옛 병사  
반파쑈 판가리싸움에서  
청춘의 붉은 피도 흘렸고  
승리자의 영광도 떨치였다

그때 우리의 총대는 굳건했건만  
준엄한 시련의 나날  
배신자들에 의하여  
사회주의붉은기 내리워 질 때  
우리 손에 총을 쥐고도  
왜 지켜 내지 못했던가

그때 나는 보았다  
동방의 조선을 삼키려  
매없이 전쟁의 불구름 몰아 오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검은 마수 꺾어 버린  
일당백 조선인민군대의 총대를

이 총대의 주인은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사나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총대  
백두산의 뿌리에서 솟아  
장엄한 백두의 밀림처럼  
조선의 천리방선에 무성하여라

백두산의 번개우뢰 휘여 잡고  
무서운 불벼락 터쳐  
밀려 오는 천만대적 단숨에 쓸어 버리는  
전설적인 천출명장의 무비의 용맹  
이 총대에 빛발치거니  
이 총대 한번 노하면  
지구도 깨여 버릴 폭음을 터친다

이 총대는  
이 행성의 그 어떤 원쑤도  
무자비하게 쓸어 버리는  
백발백중의 철의 불줄기  
이 총대의 무성한 숲은  
오만한 침략자들의 령토우에 들쭉울  
꺼지지 않는 무서운 불바다

이 총대앞에서 원쑤들은 비명 지르고  
이 총대앞에서 벗들은 환성 올린다  
이 총대는 조선의 총대  
이 총대는 **김정일**장군의 총대

이런 총대 그 어느 나라에 또 있는가  
정권은 있어도 총대가 없어  
총대는 있어도 령장이 없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진통 겪었던가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패전했던가

준엄한 전쟁과 평화의 담판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삶과 죽음의 결전장에서  
누가 승리하였고  
누가 패전했던가

굳건히 들어 켜 총대는 승리하였고  
맥없이 흔들린 총대는 패망했거니  
들어 켜 총대의 주인은 누구였던가  
흔들린 총대의 주인은 누구였던가

심각한 시대의 이 물음에  
사회주의붉은기 끝까지 지키는  
백전백승의 군대  
조선인민군대의 총대는  
장엄한 철의 퇴성으로  
온 세계를 향해 말한다

—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  
총대는 위대한 령장이 잡아야 한다—

(로씨야)

수기

## 혁명소설의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 세워 주시며

### 《김일성상》 계관인 김정

화창한 봄빛이 무르녹고 온갖 꽃들이 피어 나 향기 풍기는 4월.

언제나 4월이 오면 그러한것이지만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의 4월은 류다른 감회를 불러 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과 깊은 감회로 가슴 젖어 드는 이 시각, 나의 눈앞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던 잊을수 없는 그날이 어제런듯 삼삼히 떠오른다.

지금으로부터 근 10년전, 주체81 (1992) 년 12월 30일 나를 비롯한 우리 4. 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되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4시간 남짓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간고했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었던 사연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 주시었다. 그리고 우리 작가들을 자신의 몸 가까이 한사람 한사람씩 불러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고 《사향가》와 《소무가》도 불러 주시였으며 친히 오찬도 마련해 주시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불바다 만리, 피바다 만리를 헤쳐 가시던 준엄했던 항일전의 그 나날들을 깊은 회억속에 돌이켜 보시는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심중에서 넘실거리는 추억의 바다는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것이였다. 그 바다의 격랑을 소설로 형상하는 문필전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우리들의 가슴은 무한히 높뛰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 회고담을 그치고 연회장을 둘러 보실 때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 나 수령님의 투쟁력사를 담은 혁명소설의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 드리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불멸의 력사》 독서열풍은 해외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재미교포들이 조국에 왔다가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항일무장투쟁편을 미국에서 출판하겠다고 하면서 원본을 일식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앞으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혁명소설들을 더 많이 써내겠습니다하고 우리 작가들 모두의 한결 같은 심정을 담아 말씀 올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렁우렁한 음성으

로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혁명소설의 머리우에 《금관》이 얹혀 지는 력사적인 순간이였다.

우리 작가들은 모두 감격과 희열에 넘쳐 혁명소설의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끌어 올려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경건한 심정으로 우러러 보았다. 과연 어느 누가 소설의 힘을 핵무기의 위력에 견주어 평가한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때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문적으로 형상하는 창작단체의 소설가로서 살며 일하는 자량과 보람을 가슴 벅차게 느껴 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0년대 초에도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백두산 기슭》, 《준엄한 전구》, 《고난의 행군》을 보아 주시고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금보다 훨씬 값 있다고 하시면서 금을 팔아서라도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더 많이 찍어 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금보다 훨씬 값 있는 혁명소설!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혁명소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창작한 총서소설들의 가치에 대한 최고의 평가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 소설문학전반에 내려 지는 총적인 평가이기도 하였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소설문단에서 태어나는 작품들은 모두가 혁명적인 소설이기때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날에 불러 주신 《사향가》의 선물은 애국애족을 총서문학의 영원한 주제로 삼고 있는 우리들, 혁명소설의 작가들에게 안겨 주시는 사랑과 믿음의 선물이였다.

우리의 소설문학은 지난 시기 《1932》년, 《혁명의 려명》,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대지는 푸르다》, 《예지》, 《평양시간》, 《새봄》, 《뜨거운 심장》, 《빈터우에서》, 《철의 신념》과 같은 시대의 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었고 우리 인민들을 열렬한 수령숭배자, 열혈의 혁명투사들로 키워 내는데 이바지하였다.

김광철, 길영조와 같은 선군혁명시대의 자폭영웅들은 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선군문학의 토양에서 자라난 새 세대 청년영웅들이다.

우리의 혁명적인 소설문학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인민군군인들과 로동계급, 농업

근로자들과 지식인들, 청년들에게 고귀한 정신적 양식을 안겨 주어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 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피 주신 라남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고 강성대국건설에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그들과 숨결도 호흡도 같이 하고 있다.

혁명의 1세, 2세는 말할것도 없고 3세, 4세들에게 혁명적수령관을 심어 주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우리의 혁명소설들은 실로 특기할만한 업적을 쌓았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정보산업시대의 발전과 함께 소설문학이 영상예술에 자리를 내주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우려이다. 영상예술의 《포위》속에서도 소설문학은 자기의 자리를 당당히 고수하고 있으며 의연히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을 틀어 잡고 그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있다.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하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은 영원한 시효를 가지고 있다.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소설이란 그 무게와 가치로써 세계를 들었다 놓을수 있는 그런 소설을 말한다.

세계를 들었다 놓지 못하는 소설이라면 그것은 벌써 조선의 혁명소설이 아니다. 우리 창작단의 전체 창작가들은 지금 이런 배심과 배짱을 가지고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높은 평가의 교시를 받은 혁명소설들과 같은 무게를 가진 그런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문학으로 받들자, 이것이 우리 작가들의 결심이며 목표이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랑과 최상의 믿음을 받아 안던 그날을 영원히 잊지 않고 혁명적인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것이다.

## 봄날의 선언

김형준

이 땅에 봄을 주시려  
봄에 탄생하신 수령님이시였기에  
겨레의 가슴에 새봄을 주시려  
이렇게 불러 온 광복의 봄인가

봄우뢰 울린다 만세소리  
봄씨가 솟는다 추켜 든 총들  
꽃바다 설렌다 환영군중  
광복의 태양 **김일성**동지

이날의 이 봄을 위해  
겨레의 운명 한몸에 안으시고  
유년시절의 애뜻한 봄을  
광복의 봄과 이어 놓으신 수령님

조국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 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던 눈 덮인 강변에서  
눈앞에 그려 보신 오늘의 이 봄

대오의 앞장에 나서신 수령님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을 바라보신다  
한사람 한사람 동지를 위해 바친  
피어린 나날을 그려 보신다

아, 이날을 위해 걷고 걸으신  
천신만고의 그 길은 얼마더냐  
저 어깨우에 한자루 총을 위해  
바친 목숨 흘린 피는 그 얼마?!

군대가 없어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어 망국노가 되어  
길가의 락엽처럼 흩어 진 겨레  
이역의 하늘밑에 뿌려 지던 울분의 창자...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피에 젖은 력사, 망국노의 운명에  
영원히 중지부를 찍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선언

—무장에는 무장으로! 일제타도, 조국광복!  
아 수령님 내리신 불멸의 선언은  
우리 혁명무력탄생의 선포  
일제에 대한 선전포고였나니

아 불멸의 선언을 하신 그날은  
만경대의 봄, 탄생의 봄을  
안도의 봄, 광복의 봄에 이어 놓은  
1932년 4월 25일이였다

## 수령님과 영웅인민

홍철진

아버이수령님의 력사가 흐르는 이 땅에 4월이 왔다.

자연의 봄만이 아닌 인간의 봄을 불러 온 아흔번째 4월이다.

하나 이 봄은 저절로 찾아 오지 않았다.

피어린 눈보라 만리광야를 헤치며 찾아 왔고 불 타는 강과 산을 넘으며 찾아 왔다.

전쟁이라는 력사의 준령을 넘어서 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의 봄이었다.

전쟁, 이 짧은 한마디가 력사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인류는 얼마나 큰 고통과 참화를 겪어야 했던가.

5500년 국가력사이래 1만 5천번의 대소전쟁을 겪으며 인류는 참으로 많은것을 잃었고 많은것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수백년의 고색창연한 력사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뜨리고 수천년동안 이룩해 놓은 고귀한 창조물도 한순간에 재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전쟁.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 전쟁을 통하여 참으로 귀중한것을 받아안았고 귀중한것을 체험하였다.

수령의 위대성은 전쟁에서 제일 잘 나타난다.

침략과 략탈의 무리들이 빚어낸 류혈전쟁의 고패를 우리 수령님은 한세대에 두번씩이나 겪으셨으니 수령님은 진정 전쟁으로 하여 더 위대해 지신 만고의 령장이시다.

### 1

망국의 비운속에 만경봉에 태양이 솟아 올랐다.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태양의 탄생임을 아직은 누구도 몰랐다.

너무도 어두운 세상이었어서 태양은 떠올랐으나 검은 구름은 첩첩이 태양을 가리켰다.

일제에게 국권을 잃고 망국노의 설움속에 《시일야방성대곡》의 비참한 현실이 이 땅 삼천리에 흐르고 있었다.

5천년의 력사국에 비긴 망국의 쓰라린 아픔을 안고 단재신채호는 단군조선을 목 놓아 부르며 《님 잃고 우는 아기들 두 하늘아래 모아다가 젖 주소서》라는 피눈물의 절규로 2천만동포를 울리였으나 무정한 단군조선은 대답이 없었다.

하나 감출수 없는것이 태양이고 막을수 없는것이 태양의 빛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십니다.》**

아직은 뼈도 채 굳지 않은 열다섯살, 도란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다.

《E. C》!

우리 혁명의 닻은 일하게 올랐으며 우리 민족은 이렇게 수령을 맞이했다.

얼마나 이날을 애타게 고대했던가, 찢겨도 보고 터져도 보고 뒤편기며 몸부림속에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던가.

《3.1》만세의 붉은 피는 어디에 스며배였느냐, 《6.10만세》의 더운 피는 어디서 흐르다 굳어졌느냐.

너무나도 진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린 우리 민족이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으로 불리워 왔다.

단군민족의 고구려기상은 동방의 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쳤으며 《대동강문화》를 창조한 백의민족의 슬기는 우리 민족

의 우수성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그렇듯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었으나 위대한 민족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임금은 있었으나 수령은 없었고 통치자는 있었으나 령도자는 없었다.

통상에서 바라본 백성은 한갓 개미에 불과했고 대렬에서 내려다 본 천민은 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슬기론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이라 백년을 외운들 무엇하리, 용감한 고구려의 후손이라 천년을 자랑한들 무엇하리.

수령을 못 만난 민족의 《자랑》은 결코 오래 갈수 없었다.

시퍼린 대낮에 바다 건너 온 섬나라 강도들이 한 나라의 국모를 룡지처참할 때도 주먹은 쥐었으나 반항은 못했던 약소민족의 설움, 임금의 옥새를 위조하여 국권을 강탈할 때도 사무라이족속들을 저주하며 피눈물의 곡성만을 터뜨렸던 불쌍한 백의민족아.

벼농사를 배워 주고 문화를 가르쳐 주어 인간의 면모를 갖추게 해준 우리 조상들에게 절은 못할망정 칼을 빼들고 우리 민족사를 도륙하려드니, 그 족발이들에게 먹히운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분통이 터져 칼로 배도 갈라 보고 목을 매달아 항거도 해보았으나 약소민족의 명예를 벗을수는 없었다.

죽어서도 벗지 못하는게 망국민의 명예였다.

천한 백정이라 어찌 왜놈의 목대 하나 부러뜨릴 힘이 있었으며 물동이 인 연약한 아낙네라 어찌 왜놈상통에 쥐여 뿌릴 돌맹이 질힘이야 없었으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랐던 탓에, 그 힘을 어떻게 합쳐야 할지 몰랐던탓에 짐승처럼 울기만 했고 참지 못해 일어 섰



다가는 선지피를 흘리며 쓰러져야 했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 잃기는 험해도 찾기는 힘든것이 바로 조국이였다.

5천년 민족사가 이대로 쓰러져 숨 거두고 마는가.

이 생사의 분기점에서 행운을 맞이한 우리 민족이였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온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시는 백두산장수벌이 삼천리를 비쳤다.

몽치면 살고 흠어 지면 죽는다!

하나로 단합된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민족의 이 위대한 힘으로 《미친개》를 때려 잡는 청년장군의 정의의 《주먹》은 무자비했다.

자기들에게 잠재해 있는 이 거대한 힘을 우리 인민은 소왕청에서도 체험하였고 보천보에서도 보았으며 간삼봉에서도 느꼈다.

항일혁명전쟁! 그것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시고 력사의 대상이였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워 주신 우리 수령님 진리의 전쟁이였다.

짜리나무가지처럼 연약하던 우리 민족이 우리 수령님에 의해 아름답게저목으로 억세게 자라났다.

반만년 민족사를 통채로 준대도 바꾸지 못할 우리 수령님의 항일의 20성상은 우리 민족이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을 맞이한 행운의 력사이며 그로 하여 우리 인민이 위대한 민족으로 된 존엄 높은 력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으로 20세기는 어두웠지만 태양이 솟아 오른 4월 15일이 있어 20세기는 또한 밝았다.

## 2

왜놈의 쇠사슬을 방금 끊어버리고 희열에 넘쳐 새삶의 깃을 펴기 시작한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터졌다.

섬나라 《미친개》를 때려 잡으니 이번에는 아메리카 《승냥

이》가 뛰어 든것이다.

단숨에 먹어 치울듯 으르렁대는 《맹수》앞에서 세계는 가슴을 조이고 이 땅을 지켜 보았다.

세상이 손에 땀을 쥐고 작은 인구와 인민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낼 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다.

조선사람을 잘못 본 미국놈들이 어리석으시여 웃어도 세상이 다 듣도록 크게 웃으셨다.

미국놈들은 몰랐다.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수령이 있고 어떤 위대한 인민이 있는지.

미국놈들은 오산했다.

우리 인민을 어제날의 식민지인민으로 잘못 생각했다.

우리 인민은 어제날 자기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 써놓아도 울분을 묵새기던 그런 민족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위대한 인민이기에 침략자들을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았다.

위대한 인민은 절대로 거꾸러지는 법이 없다.

위대한 수령이 있는 한 위대한 인민의 력사는 계속되며 영원하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어째서 이 전쟁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되는지 미국놈들은 알아야 했다.

이 정의의 전쟁을 어느분이 지휘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했다.

무엇을 전쟁의 기본수단으로 보는지 땅크나 비행기를 끌고온 미국놈들은 상상할수 없었다.

《군사의 천재》라고 자처하던 나폴레옹은 《승리는 대병력에 있다》고 하면서 흰소리를 쳤지만 꾸투조브가 지휘하는 로씨야군에 의하여 60여만의 대병력을 잃은 《패전영웅》이 되였다.

전쟁은 병력으로만 하는것이 아님을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이 증명해 주었다.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처절한 싸움이였던 1211고지방어전투.

적들이 쏘아 대는 포탄과 폭탄에 산의 높이마저 낮아 졌다

는 1211고지에 미국놈들은 7개 사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들이밀었다.

지켜 내는가 못 지켜 내는가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수도 있었다.

1211고지의 운명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또다시 가슴을 조였다.

어떻게 될것인가? 얼마만한 병력이 동원되야 저 《우세》한 적과 맞설수 있겠는가?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콩나물공을 《예비대》로 보내 주셨다.

어째서 콩나물공이 1대1고지를 사수하는 《예비대》로 되였는지 침략과 략탈이 고유한 기질로 된 미국놈들은 천년이 가도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군사지도가 놓여 있는 작전실 책상위에 콩나물시루가 놓이고 싸움을 눈앞에 둔 지휘관들이 콩나물 기르는 방법을 강습 받는 이런 꿈 같은 현실이 어느 전쟁사의 갈피에 있었던가.

그때 일을 회억하실 때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최소한 1개 사단이라도 예비대를 받지 않고서는 지켜 내기 곤란하다고 하던 1211고지를 단 한명의 예비대도 받지 않고 끝까지 지켜 냈다고, 결국 1211고지는 콩나물을 가지고 지켜 낸거나 다름없다고 감회깊이 말씀하곤 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 3년간은 이런 사랑과 믿음이 무수히 태어난 날과 달들이였다.

적후에 있는 평범한 전사의 가족을 위해 한개 련대가 동원되어 가족은 물론 그 집의 낡은 비자루까지 구원한 전설 같은 이야기는 미국놈들에게는 환상처럼 들릴것이다.

인류가 알지 못하는 《무상치료제》라는 말도 이 불길속에 태어난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불과 불의 밀고 당김만이 아니였다.

사랑으로 불이 다스려 지고 믿음으로 인간들이 아름다와지는 인간사랑의 전쟁이였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용감해지지 않으랴.

불 뿜는 화구가 막아 서면

피끓는 가슴을 서슴없이 그앞에 세울줄 알았고 땅크가 막아서면 수류탄을 품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주저없이 그밑에 뛰어 들줄 알았다.

그들은 다 어제날의 꼴머슴이었고 이름석자도 못 가졌던 어제날의 부덕데기였다.

그리고 《양순》하던 민족이 어째서 사자처럼 용감해 졌는지 식인종들은 알아야 했다.

노예로부터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 주신 김일성장군님의 그 믿음에 고마와 죽어서도 밝힐 수 없는 존엄을 지켜 선량하고 순박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인민이 되었다.

어느 전쟁사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세등분, 네등분으로 쪼개가며 원수를 죽인 전례가 있었던가.

팔다리가 떨어 지면 이발로라도 증기압철을 눌러 원수를 징벌한 인민.

앞을 보지 못하면 목에 수류탄을 매달고서라도 적진속에 뛰어들줄 안 인민을 과연 대포나 비행기로 굴복시킬 수 있나라.

위대한 인민의 자각은 철부지 아이들도 영웅으로 키웠으니, 《소년빨찌산》, 《소년근위대》는 모두 위대한 수령이 키운 조선의 어린 영웅들이었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을 영웅으로 만든 위대한 혁명전쟁이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또다시 그 지위가 높아 졌고 우리 인민은 영웅적조선인민으로 그 존엄이 비상히 올라갔다.

미국놈들은 200여년의 침략전쟁사에 114차례의 《패배 없는 전승》만을 기록해 오다가 조선전쟁에서 첫 패전사를 기록하였다.

3년간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끝수에 새기었고 폐부로 절감하였다.

결국 미국놈들은 우리 인민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킨셈이다.

미제는 시체가 되고 조선은 영웅이 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50년대의 교훈을 망각한 패배의 후예들이 오늘 또다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 있다.

우리에게서 영웅인민의 존엄을 기어이 짓밟으려고 침략의 검은구름을 한사코 몰아 오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놈들이다.

이 땅에 위대한 수령님과 꼭 같이신 위대한 백두산장군이 계신다는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영웅인민의 피줄을 이어 받은 후손들이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빨찌산의 아들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슬하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세번

째 전쟁에서도 승리한 인민이다.

총포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세계대전보다 더 힘겨운 전쟁을 치르었다.

눈앞의 원수는 없었지만 자기자신을 이기는 신념의 전쟁을 했다.

이 신념의 전쟁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무서울것이 없는 인민으로 자랐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인민으로 성장했다.

조선인민의 진두에 누가 계시는가를 보라.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시여 총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시며 장군의 담력과 배짱을 어리실 때부터 체현하신 천출명장이 계신다. 누구보다 전쟁을 잘 아시는분이여서 침략자들의 전쟁에는 조금도 자비를 모르신다.

인민은 수령을 닮는다. 우리는 이미 전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인민, 영웅인민으로, 된 민족이다.

미국놈들이 우리와 기어이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는 침략자들을 씨종자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인민은 두번째, 세번째 영웅으로 될것이다.

수령님슬하에서도 우리는 승리한 인민이며 장군님슬하에서도 우리는 승리한 인민이다.

이 력사는 위대한 수령에 의해 역척같이 담보된다.

## 수령님의 회고담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언제인가 일본의 이름난 성악가이며 참의원 의원이었던 오다카 요시꼬(리향란)에게 인간생활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다는 말을 한적이 있다. 인간들이 사는곳에는 응당 생활이 있어야 하고 생활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예술이 있어야 한다. 예술이 없는 세계를 어떻게 인간세계라고 할수 있으며 예술이 없는 생활을 어떻게 인간생활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늘 문학예술을 사랑하라고 말해 왔고 또 온 나라 대중에게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줄 아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있다.》

## 7 천만의 무도회

김정철

4월의 봄날  
류경의 평양에  
화려한 춤판이 펼쳐 졌구나  
아리랑가락에 맞추어  
10만이 어울려 함께 도는 춤판

노래가락 한가락을 휘여 잡고  
선녀 같은 처녀들은  
훨훨 공중을 춤 추며 날고  
능금 같은 아이들은  
아름다운 톨돌으로  
련이어 신비로운 화폭을 펼치누나

수령님 헤쳐 가신 혈전만리  
백두의령봉이 일어 서 마주 오고  
장군님 헤쳐 오신 철령의 굽이가  
날리는 눈발속에 어리어 온다  
반만년 내 조국의 기나긴 역사가  
꿈속처럼 흐르고...

아리랑 아리랑 장단에 맞추어  
내 조선의 장한 딸 《마라손녀왕》도  
바람처럼 춤 추며 저속에서 돌아 가고  
아리랑 아리랑 장단에 맞추어  
지옥의 문을 부시고 나온  
신념의 강자들도 흥에 겨워 어깨 들썩

날도 좋다  
바람도 좋다  
노래도 좋다  
고난이 천리면 행복은 만리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내 나라 력사에 이제껏 없었던  
행복의 아리랑고개에 올라 선 인민  
  
는 부신 새 세기우에  
강성대국 내 조국이 일어 서 마주 오니  
흥이로다 멋이로다  
경기장안에서는 10만이 춤을 추고  
경기장밖에서는 7천만이 춤을 춘다

아 우리 겨레 수수천년을  
기다려 맞이한 인민의 태양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북남이 한 장단에 맞추어 가자  
통일의 큰 잔치도 아리랑춤판으로

오늘의 아리랑은 태양의 찬가  
아리랑민족은 태양의 민족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을 축으로  
우리 우주의 중심에 살자  
아리랑꽃바람 아리랑항기로  
우주를 채우며 채우며

가사

## 우리의 세월

문동식

푸르른 저 하늘도 수령님 펼치셨네  
풍요한 이 땅도 수령님 가꾸셨네  
나라의 주인으로 복된 삶 안겨 준  
수령님 은덕속에 우리 세월 흘러 왔네

불비를 헤치시며 조국을 지키셨네  
눈비를 맞으시며 락원을 가꾸셨네

인민의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우신  
수령님 은덕속에 우리 세월 꽃 피었네

수령님 밝은 해빛 넘치는 이 강산에  
장군님 높이 모셔 만복이 꽃 피나네  
백두의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려  
태양의 내 나라에 우리 세월 영원하리

## 편집부의 말

4월, 4월의 봄이 왔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인민의 다함 없는 그리움이 꽃으로 피었는가. 연분홍빛 진달래가 만첩으로 피여 그 향기 이 강산에 차고 넘친다.

해빛을 받아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짙은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어 난 꽃들을 바라보는 우리 작가들의 마음은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싱싱하게 싹 트고 자란 주체문학의 아름답고 풍만한 꽃들에 대한 감회로 뜨겁게 달아 오른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나라 없던 지난 날 세월의 모진 눈비속에 속절없이 쓰러졌던 붓대를 소중히 안아 혁명의 대하에 세워 주시고 그 붓대들이 창조한 열매들을 제일 먼저 하나하나 보아 주시고 값 높은 치하의 말씀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우리 작가들은 눈시울 적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한편의 시나 연극, 소설이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킨다는것을 체득하시고 항일의 피 어린 불바다속에서 몸소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시였으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나날 문학예술작품들을 지도해 주시는것을 국사중의 한 부분으로 여겨 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은정속에 우리 주체문학의 화원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만하게 꽃 피났던가. 하기에 우리 작가들은 뜻 깊은 4월의 태양절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과 남 다른 인연을 맺고 오늘도 그 나날의 사연을 전하여 주는 작품들을 추억속에 더듬어 본다.

편집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아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신 소설작품들중 장편소설 《새봄》, 《빈터우에서》, 《붉은기》, 고전소설 《박씨부인전》, 《하진량문록》, 《옥린몽》(상)들에 대한 회고평론을 소개한다.

### 회고평론

## 어버이수령님과 땅, 봄...

—장편소설 《새봄》에 깃든 회고—

김성우

발자국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찍힌다. 하기에 우리의 어버이수령님을 알려저든 땅을 보아야 한다. 만경대일가분들이 대를 이어 같고 씨 뿌리고 갈고 가꾸어 온 그 땅의 풍토가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인격과 풍모를 이루었다. 땀에 절고 눈물에 젖고 피에 물들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청초한 숲의 설레임과 난알향기로 가득 찬 그 땅의 역사가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와 혁명실록을 이루었다. 언제나 우리 수령님의 옷깃에서는 땅냄새가 떠날줄 몰랐다.

그것은 그이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고이 덮고 가신 한쪽의 붉은 기폭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천추에 못 잊을 민족대국상의 그날 불처럼 타는 피눈물을 우리는 바로 그 땅에 뿌렸다. 불시에 갈마드는 그리움의 눈물도 그 땅에 묻었다.

아, 땅이여! 너는 그 눈물의 의미와 무게를 잘 알아 소중히도 한품에 걸어 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의 보습으로 갈아 엮은 이랑들우에 대홍단의 감자꽃을 피워 주고 장강의 두벌농사, 세벌농사의 알찬 열매를 주었지...

우리 어버이수령님께서 땅을 것처럼 사랑하시였기에 우리 주체문학의 력사도 땅과 것처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발자국이 제일 많이 찍힌 곳은 주단이나 아스팔트길이 아니라 두엄냄새 폭 배인 포전길이었기에 우리 작가들의 붓대가 제일 많이 찾은 곳도 소밭곶이 찍힌 그 땅이었다.

우리 작품에서 그 땅이 보이면 그이께서는 기뻐하시였다. 그 땅을 딛고 선 광바위(《땅》), 김창혁(《석개울의 새봄》), 마영기(《대하는 흐른다》), 박대성(《생명수》), 최명진(《새봄》)—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땅을 닮았으면 만족해 하시였다.

이제 우리가 끝없는 그리움속에 회고하게 되는 장편소설 《새봄》[김규엽, 주체67(1978)년]도 그 짙은 땅냄새로써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귀중한 사적을 간직하고 있다. 이 소설의 폐지폐지에, 글줄글줄에 그이의 추억이 실리고 사색이 담겨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편소설 새봄은 확실히 잘 썼습니다.

**특히 계급투쟁에 대하여 날카롭게 잘 묘사하였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새봄》이 광복 직후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아주 잘 형상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에 떠받들려 장편소설 《새봄》은 인식교양적의의와 문학사적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빛나고 있다.

광복직후 준엄한 계급투쟁속에 흘러 간 토지혁명의 역사를 진실한 형상으로 재현한 이 소설은 그 문체로 보아 결코 현란한 작품이 아니다.

땅은 자기의 줍과 온기로써 대지에 천만 꽃을 피우고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지만 그 본바탕을 파헤치면 가장 수수하고 소박한 법이다. 땅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바쳐 땅의 모든 빛과 향기, 풍요한 재부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한다. 소설가 김규암은 그 땅처럼 수수한 문체로 그 땅에 눈물과 피를 뿌려 운명의 새봄을 마련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그렸다.

땅을 닦아 순박하고 곧으며 어질고 억센 양지말세포위원장 최명진, 리인민위원장 변귀남, 농조책임자 동석준, 자위대장 동형근, 머슴군 손억쇠와 야학선생 리분옥 등의 형상은 우리에게 매혹보다 먼저 친근하고 다정한 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들은 우리 사람들이다. 땅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땅을 닦아 땅처럼 순박한 그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안겨 주는 철학세계, 미의 세계는 황홀한것이다.

땅이 없을 때 그들에게는 광복의 기쁨도 없었다. 소설에 그려 진것처럼 광복은 되었으나 농민들의 어깨에 썩워 진 예측과 가난의 굴레는 벗겨지지 않았다. 한해반동안의 징역살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 온 명진의 눈앞에 펼쳐 진 현실은 어떠했던가. 마을북판에는 게딱지 같은 농가들을 숨막히게 짓누르며 지주 강병기놈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거만하게 솟아 있었고 어머니는 쌀밥을 해먹자고 졸라 대는 손자애를 달래며 눈굽을 훔치고 있었다. 여전히 부농의 집에 고용되어 부뚜막밥에 허청간의 새우잠을 먼치 못하는 변귀남, 빛값을 다 물 그날만을 기다리며 무더운 머슴방에서 허덕이는 손억쇠... 마을농민들을 일떠세워 지주놈의 고간도 들이쳐 보았으나 강병기놈의 눈총을 한번 맞자 메고 가던 쌀가마니를 내던지고 허겁지겁 뿔뿔이 흩어 지는 양상한 종아리들... 땅은 또 한번 눈물의 소나기를 맞았다.

소설은 이런 눈물의 대지에 마침내 비껴 온 태양의 광명을 펼쳐 보이고있으니 그것은 이 나라 농민들을 토지개혁의 주인으로 불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령도의 손길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광복직후 토지문제는 말 그대로 눈섭에 불이 달리는 절박한 문제였다. 내가 디디고 선 땅이 내것이 아닐 때 나는 나로서 살수 없다. 자주적인 생명을 누리려면 그 생명이 뿌리 박고 자라난 땅부터 찾아야 하는것이다.

땅의 아들이신 위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땅에 눈물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불씨를 심어야만 자주적인 삶의 새봄이 온다는 진리를 최명진이네들의 가슴속에 안겨주시였다. 농민들을 조합에 묶어 세우고 3.7계투쟁을 거쳐 그들을 정기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킨 기초우에서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내는 결정적투쟁에 나가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빛발아래 양지말농민들은 폭풍 세찬 계급투쟁의 한길로 노도쳐 갔다. 그 길에서 마음 어질고도 열정적이던 변귀남이가 원쑤의 흉탄에 맞아 피 흘리며 쓰러졌다.

어느 한 시구절에 있는것처럼 땅이여, 너는 눈물을 마신 그만큼 피를 마셨는가. 그래서 시인들은 너를 두고 땅은 흙이 아니라고 웨쳤던가.

하기야 땅위에 뿌려 진 피도 적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수천수만년 흘러온 땅의 역사에 헛되지 뿌린 피를 다 모으면 이 땅을 통채로 잠글 피바다가 되리라. 그 피가 헛되지 않자면 신화와 전설에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창조할 거인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 위대한 거인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하지만 작가는 이 소설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려 낸 아버지수령님의 형상을 혁명의 수령이시기전에 만경대일가가 낳은 수수한 농민의 아들이시고 그 천품으로 하여 땅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평민으로 형상하였다.

양지말농민들이 정성 담아 선물로 드린 햇쌀을 받으시고 오히려 농민들의 고생을 헤이리시며 잠 못 드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한겨울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몸소 양지말을 찾아 가신다.

수령님께서서는 키 낮은 오막살이에서 양지말의 세 당원을 만나시고 그들이 겪어 온 쓰라린 생활 이야기도 들어 주시였으며 허물없이 담배를 권하시며 씨앗과 부림소, 농쟁기문제까지 걱정해 주시였다.

《우리 가난한 농민들이 땅의 참된 주인이 돼서 쌀밥에 고기국을 먹구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구 사는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두 한시름 놓겠습니다.》

가물철 땅위에 내려 지는 단비처럼 농민들의 터갈라 진 마음속에 스며 들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말씀!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백하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이 땅의 주인이 되여야 자기 운

명의 주인으로 되고 자주적인 삶을 누릴수 있다는 진리를 얼마나 농토색이 짙은 평범한 말로 다 표현하고 계시는것인가.

이 말씀속에 담겨 있는 그 뜨거운 인간사랑의 빛발을 받아 안고 이 땅의 첫 농촌혁명가들이 자라났고 오직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토지개혁의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었다.

이리하여 소설은 또 한단계 더 높이 새로운 철학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우리 농민들이 땅의 주인, 운명의 주인이 되자면 그 땅의 모든 소원과 인정과 의지를 한몸에 체현하신 참된 땅의 아들을 수령으로 내세우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헌신적으로 싸워야 한다는것이다.

땅은 태양의 빛이 없으면 영원한 어둠속에 잠든다.

땅은 소박하다. 그러나 태양이 주는 열과 빛을

받으면 땅은 더운 김을 내뿜으며 푸른 싹을 움트우고 꽃바다를 펼치고 풍작의 대지를 마련한다.

그때에는 묵묵하던 땅도 숨 쉬고 노래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봄의 송가, 태양의 송가이다. 장편소설 《새봄》이 바로 우리 삶의 은혜로운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소박하나 진실하고 낮으나 힘찬 땅의 노래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사랑한다. 이 작품을 손에 들면 어버이수령님의 숨결이 느껴 지고 이 땅에 찍힌 어버이수령님의 발자국이 그대로 안겨온다.

한 없는 그리움속에 안아 보는 그 땅, 그 봄의 대지에 오늘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의 보습을 박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봄을 가꾸어 가신다. 그 땅은 우리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과 땅, 봄은 영원히 하나이다!

## 추억속에 바라보는 조국의 미래

윤종성

라남의 봉화 따라 새로운 비약으로 날으는 조국의 미래를 그려 보느라니 우리의 가슴은 추억으로 뜨겁게 불 타오른다.

추억의 갈피갈피를 헤치며 그 세계에 들어 서면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문학이 걸어 온 자욱자욱이 헤아려 지고 문학형상으로 력사에 부각된 시대의 주인공들의 모습, 그들의 신념의 목소리가 이 가슴 울려 준다.

우리 조국의 발전력과 인간들의 성장과정은 혁명적신념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시대의 전형들의 목소리가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빛나고 오늘도 새 세기 혁명적대진군의 추동력으로 되고 있는것은 바로 그들이 지닌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충배심,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한 신념의 체현자이기때문이다. 오늘도 뜨거운 감회속에 안겨 오는 불비 쏟아 지는 전화의 나날에나 전후의 나날에나 변함없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한 락원의 로동계급을 형상한 장편소설 《빈터우에서》.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얼마나 기뻐 하시였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달사이에 무려 여섯차례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8(1989)년 1월 어느날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를 날카롭게 잘 썼다고 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성단련과 계급교양에 좋은 작품이므로 많이 출판하도록

하여 주시였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를 오늘 다시금 읽어 보며 그 뜻을 재음미하게 되는것은 이 소설을 높이 평가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의 참뜻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만고공상을 다 겪으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를 되새기면서 시대의 주인공들이 체현하고 실천에 옮긴 그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정신을 본받기 위해서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정전직후 빈터우에서 기어이 대형양수기를 생산해 낸 락원의 로동계급, 10명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선로동당원들이 지닌 높은 정신세계와 불패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정신적특질인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그들이 지닌 혁명적신념과의 관계속에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는 겨우 문맹을 퇴치한 《몸매 작은》 로동녀성이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살아 온 생활체험에 의해 수령님만 계시면 만사가 다 바로 된다는 신념과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품성이 체질화된 진짜배기충신이다.

주용녀의 의식수준과 정신적높이는 태양의 빛과 열이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운가 하는것을

응변으로 증시하고 있다.

《장군님, 너무 넘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 광복후에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 놓고 간것도 우리는 장군님말씀대로 복구해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놈들이 파괴한 용선로랑 복구해 보니 그리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 가지고 잘 살수 있습니다. 복구건설은 우리가 할테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를 수령님앞에서 신념에 넘쳐 말씀 드리는 주용녀의 이 충성심, 나라의 운명과 자기 운명을 하나로 생각하는 책임감,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 그것이 그 간고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힘으로 되었겠는가!

주용녀의 이 말은 어버이수령님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곧 자기들을 위한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인간의 성격적특질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말하여 주용녀 자신이 위대한 수령님과 한식솔이며 부모자식간의 관계속에 있다는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터득한 그의 정신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했기에 그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만 사고하고 실천하였다.

소재지에 있던 용선로를 폐목으로 끌어 오는 용녀에게 충상을 입히는가 하면 현장기사 흥만석을 양수기생산전투에서 때내려고 하는 간첩암해분자 생산부장 엄기태를 비롯한 암해분자들의 책동, 정인백부상과 같은 반당종파분자들의 끈질긴 방해책동, 권력과 지위앞에서 아부하고 맹종하는 지배인 염우진의 패배주의와 출세욕... 걸음걸음 뒤따르는 놈들의 이런 끈질기고 악착한 놈들의 책동속에서도 우리의 주인공 용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할 하나의 일념으로 대형양수기생산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쳤다.

더우기 용선로를 만들 철관을 해결 받자고 제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성에 올라 갔다가 제의서를 내는것은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해야 할 당원으로서 신념과 의리가 없는 행동임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 온 용녀 그리고 눈보라 치는 혹한속에서 물속에 박힌 용선로를 찾아 내여 얼음을 까고 물길을 내면서 운반해 오는 주용녀, 양수기 본체주물작업이 실패하자 양수기를 만들수 없다고 내각에 제의서를 올려 보냈을 때 그는 격분하여 정인백부상과 염우진지배인과 맞서 싸우며 그 제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당중앙위원회에 올려 보낸다.

이런 완강한 투쟁속에 주인공을 비롯한 로동계급들은 놈들의 파괴책동과 실패요인을 제거하고 지금껏 본적도, 생산한적도 없는 대형양수기를

만들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만 믿고 따르며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만 살아 가는 길에 인간답게 사는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마음의 기둥이 확고히 자리잡은 혁명적신념의 산물이었다.

어버이수령님과 전사사이에 흐르는 이 친혈육의 정은 그 원줄기가 수령님의 숭고하고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서 흘러 나온것이다.

주용녀가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불굴의 인내력으로 육체적고통을 이겨 내다가 마침내 병석에 눕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병원을 찾으시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동무가 왜 이렇게 됐소. 왜 자기 몸이 이렇게 되도록 자신을 돌보지 않았소. 왜 아픔을 숨기며 일했소. 동무가 그렇게 애 쓰다가 이 땅에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날을 보지 못할 때 누구보다도 내 가슴이 아프리라는것을 동무는 왜 생각하지 못했소.》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립회인이 되시어 주용녀의 수술을 보증하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였다.

이와 같이 소설은 우리 나라에서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가 령도하고 령도 받는 관계이기전에 혁명적의리와 동지적관계, 운명을 같이 하는 혈연적관계로 되어있으며 그 관계의 근원이 수령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1980년대에 전후복구건설시기를 그린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정신을 그리면서 그 무궁무진한 힘은 장차 찬란한 부강조국을 일떠세울것이라는 락관과 용기를 사람들에게 안겨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이 있어 락원의 10명당원들은 빈터우에서도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며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짧은 시일안에 자체의 힘과 지혜로 결사관철하였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 자신계 힘을 준 락원의 로동계급을 언제나 잊지 못해 하시며 그들의 투쟁을 형상한 장편소설을 보시고 그토록 기뻐하시였으리라.

이 소설에는 우리 수령제일주의, 우리 사상제일주의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빈터에서 조선은 일떠설수 있었고 사람들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워 내고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만이 승리와 번영의 길이라는 진리가 만년을 극복하게 하였고 승리할수 있게 하였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의 손길 따라 전후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해 온 우리 인민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20세기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불 타는 충성심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빈터우에서 맨주먹으로 기적을 창조한 락원의 로동계급,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영웅들의 투쟁정신은 오로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만을 믿고 따르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어졌으며 그 충성의 열도와 순결성에 있어서 같은 것이다.

올해 공동사설에서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호소한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1950년대에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뚫고 불 타는 불 타는 강도 건느던 그 불굴의 정신, 채더미를 헤치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혁명적기백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손길 어려있는 이 땅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

상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꽃 피워야 할 시대적의무가 나서고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문학예술은 진보적역할을 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소설문학의 몫은 크다. 소설문학은 지난 시기 시대가 제기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선군시대의 소설문학작가들은 모든 주제령역에서, 특히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대작들을 최상의 높이에서 창작해내는 동시에 선군시대의 전형들, 수령제일주의정신의 체현자들의 형상을 무게 있고 시대성 있게 형상하며 4대제일주의와 조국통일을 취급한 주제분야에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품위 있는 시대의 명작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떴떴이 내놓아야 한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충배심을 안고 한편한편의 작품을 창작할 때 우리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찬란한 미래는 얼마나 아름답고 무궁번영할 것인가.

## 작가와 함께 장편소설 《붉은기》 회고해 본다

### 최인경

내가 잠간 림재성의 집을 찾은것은 3월 말경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장편소설 《붉은기》로 어버이수령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렸던 작가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30돐을 맞게 되는 가슴속 감회는 남 다를 것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장편소설 《붉은기》에 대하여 회고해 보면서 작가에게 있는 그 무엇이 위대한 수령님께 그토록 크나큰 기쁨을 드릴 수 있었는가를 다시금 되새겨 보고 싶었다.

한것은 이러한 회고가 시대의 명작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려야 할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더우기는 혁명의 필봉을 21세기에로 줄기차게 이어 받아나가야 할 새 세대 작가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교훈으로 되지 않을 수 없기때문이다.

장편소설 《붉은기》의 창작수기와도 같이 작가의 회고담속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명료한 해답이 다 주어 져 있었다.

그것은 부피 두터운 장편소설의 갈피들에서도 미처 다는 알수 없었던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은 말주변이 없고 웅변가는 글재간이 모자란다고들 하지만 작가 림재성은 자기 소실과 같이 이야기도 구수하게 잘할 줄 아는 달변가였다. 후에 나는 그것이 그가 꾸며 낸 것이 없이 진실만을 그대로 이야기했기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진실성의 증견자이기도 한듯 나의 눈앞에는 근 20년전에 읽었던 장편소설 《붉은기》의 화폭들이 어찌런듯 생동하게 펼쳐 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장편소설 《붉은기》를 보아주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장편소설 《붉은기》를 재미 있게 잘 썼습니다. 소설을 보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던 때의 일이 생동하게 그려 졌습니다.**

장편소설 《붉은기》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기쁨과 시련도 함께 나누고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는 물론 숨결과 맥박도 수령님과 같이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구상을 결사관철하려는 작가의 한없이 깨끗한 충성심의 순결체라는것을 가슴뜨겁게 감득하였다.

장편소설 《붉은기》가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기, 작가 림재성은 그때 20대의 철도사령이었다. 10대의 그 시절에 부모를 잃고 전제교아가 되어 류랑걸식하던 그를 따듯이 품에 안아 먹여주고 입혀 주고 가정을 꾸려주고 어엿한 철도로 동계급으로 키워준것은 죽어도 잊지 못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하늘 같은 은정에 한생을 다 바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 태우던 그는 어느날 너무도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다.

방금 꾸리기 시작한 평양철도공장(지금의 김중



태전기기관차공장)의 전기기관차직장을 돌아 본 유럽의 어느 한 나라 사람이 만일 조선에서 자기 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낸다면 제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꺼리낌없이 말하였다.

교통상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이 너무도 분하고 가슴 아프시여 한밤이 다 지새도록 철길을 따라 걷고 다시 또 걸으시며 새날을 맞으시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이 사연을 전해 들은 철도로동자 림재성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 지는 듯 아팠다.

한생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바로 그날의 이 아픈 충격이 먼 후날 자기를 장편소설 《붉은기》 창작으로 떠밀었다고 작가는 걱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날의 심려어린 아버지수령님의 숭엄하신 영향을 그려 보는 듯 그의 목소리는 저이기 같고 떨리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찌릿해지는 눈으로 그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인차 자신을 수습하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가슴아픈 밤과 새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온 나라의 철도를 전기화할데 대한 자신의 결심과 구상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백배로 굳히시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1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구상을 펼치시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건 못해본 적이 없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내교야 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전기기관차는 우리 당에 영원히 충실하려는 로동계급의 충성심이 깃들어 있는 하나의 결정체라고, 공산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하시며 거기에 《붉은기1》호라는 참으로 뜻깊은 이름을 달아 주시었다.

그대로 가슴속에 안고만 살기에는 너무도 벅찬 이 위대한 현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미래의 작가는 어느 때이건 이 거창한 역사적사변을 소설에 담아 조국력사에 길이 남기리라는 결심을 남모르게 굳게 다지었다.

작가대오에 들어 선 그는 우리 나라에서 첫 전기기관차가 태어나던 못 잊을 력사의 그 나날들을 장편소설에 담을 대담한 결심을 다지고 그 창작전투에 달라 붙었다. 시작한 때로부터 5년, 마침내 그는 장편소설을 완성하였으며 자기 한생의 꿈과 소원, 피와 땀이 깃든 충성심의 결정체인 이 첫 장편소설에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깃든 《붉은기》라는 제명을 달았다.

장편소설 《붉은기》, 그것은 우리 나라의 첫 전기기관차 《붉은기》호가 아버지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로동계급의 충성심의 결정체이듯이 수령님을 문학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려는 작가의 순결한 충성심의 결정체이다.

소설에서 작가는 우리 나라에서 첫 전기기관차가 태어난 주체50(1961)년 그때로부터 12년전인

주체38(1949)년에 몸소 다 닳은 기관차의 불편한 운전실에 오르시여 구현령의 험한 령길을 넘으시며 열아홉살 흥안의 기관사에게 그리도 살뜰한 아버지사랑을 부어 주시고 철도전기화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향을 다함 없는 힘모의 마음을 담아 참으로 감동적으로 형상하였다.

그날의 그 애어린 그가 바로 우리 나라의 첫 전기기관차생산을 맡게 된 직장장인 장편소설의 주인공 김상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못 잊을 력사의 그날로부터 더 모처럼 차레진 휴식마저 뒤로 미루시고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였으며 심혈과 로고의 자육자육으로 첫 전기기관차 탄생의 역사적사변을 안아 오시었다.

작가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부어 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에 받아 안고 수령님의 교시를 결사관철해 나가는 주인공의 투쟁으로 소설전반을 줄기차게 일관시켰다. 소설의 모든 화폭과 갈피마다에는 아버지수령님께 바치는 주인공들의 순결하고도 열렬한 충성심과 함께 작가의 깨끗한 충성이 뜨겁게 흘러 넘치고 있다.

이처럼 장편소설 《붉은기》는 작가자신이 기쁨과 시련, 숨결과 맥박, 자기 삶의 전부를 수령과 함께 하는 수령의 제일승배자, 제일관철자, 진짜배기충신이 될 때 수령께 기쁨을 드리고 자기 수령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 참으로 귀중한 인생의 철리, 혁명적창작의 료리를 가르쳐 준다.

장편소설 《붉은기》를 다시 회고해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다음 이야기는 생활에 대한 놀라울 만큼 진지하고 성실한 작가의 창작적자세와 립장이다.

장편소설 《기관사》, 《찬란한 미래》, 《선행관》 등이 웅변으로 말해 주는바와 같이 작가 립재성이 《철도작가》라고 하리만큼 철도생활을 많이 취급한 작가인것만큼 철도생활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을 대하는 그의 자세와 립장은 예상을 초월할만큼 훨씬 더 진지하고 뜨거웠다.

장편소설 《붉은기》에 펼쳐진 화폭은 그대로 작가에게 있어서 몸에 뱄대로 뱌 생활그대로의 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 소설을 보시고 우리 나라에서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내던 때의 일이 감회깊이 되새겨 지시는 듯 거기에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여러가지 난관을 이겨 내면서 자체의 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낸 력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생동하게 그려져 있다고 몇번이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던 것이다.

둘이켜 보면 전기기관차직장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증기기관차직장의 작업장 한구석에 불과했던 형편에서 전기기관차의 제작사업이 시작되

었다.

없는것이 너무도 많았고 있는것이란 전기기관차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로동계급의 불 타는 심장뿐이었다.

전기기관차제작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은 순조롭지 않았다. 전기기관차의 뇌수와 같다고 할수있는 고속도차단기실험과 가로보용접에서 거듭되는 실패와 오작사가가 뒤따랐다. 게다가 어느 한 유럽나라의 전문가들이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전기기관차를 사가라고 요란스레 선전하며 지어 조선에서 고속도차단기를 만들어 내면 제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이도 나지 않은게 콩밥을 먹으려 하는 격이라고 하면서 조선에서 전기기관차를 시운전하게 되면 꼭 초대장을 보내라고 야유까지 하였다. 이에 아부굴종하여 철도관리국 기사장과 공장기술공정부장은 가로보수입을 주장하면서 로동자들의 투쟁을 음으로 양으로 반대하고 방해해나선다.

그러나 주인공 김상준을 비롯한 오랜 로동계급인 완성공 최운봉, 설계기사 오승환, 관호, 문태, 경팔 등 전기기관차생산을 위해 공장에 지원해온 젊은 로동자들, 지배인 우진과 당위원장 량갑석, 이들모두는 한마음한뜻이 되어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갔다. 그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없는것은 자체로 기어이 만들어냄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결사관철하여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첫 전기기관차 《붉은기》호를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소설에 그려진 이 모든 하나하나의 기름진 생활화폭들은 작가가 심장으로 체험하고 사랑과 애정을 담아 가꾼 생활 그대로의것이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고 결사관철하여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낸 그날의 그 작은 철도공장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날 나라의 굴지의 전기기관차생산의 기지로 자라났다. 이 보람찬 나날에 철도로동자 림재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영예의 《김일성상》 계관인으로, 우리 당을 문학으로 받드는 실력 있는 작가로 성장하였다.

그가 받아 안은 《김일성상》 계관인이라는 높은 칭호에 깃든 값 높은 뜻을 되새겨 보며 우리 새세대 작가들이 선배작가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창작태도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작가들에게 것처럼 간곡하게 요구하는 현실체험은 결코 빈 구호로 되거나 수박겉핥기식, 유람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장편소설 《붉은기》에 대한 평론에서 내가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론가들에게 하는 간절한 부탁이며 호소이다. 이것은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며 새삼스러이 다지게 되는 결의이기도 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작가를 알기전에는 그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평론을 쓰지 말자는 그것이다.

우리 문학을 선도해야 할 력사적사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우리 평론가들은 마땅히 작가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소중한 창조물인 작품을 성실히 읽고 진지하게 대하여야 할뿐아니라 그 작품의 바탕이며 터전인 생활을 작가처럼, 작가이상으로 잘 알아야 하며 그 작품을 보는데 그치지 말고 그 작가를 잘 알아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주체16(1927)년 겨울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주체16(1927)년 겨울

《딸에게서 온 편지》 ( ~ ~ ~ )

《3인 1당》 주체18(1929)년

《성황당》

《지주와 머슴군》 주체19(1930)년 여름

《8월추석》

《젊은 소작농》 주체19(1930)년 10월

《흡혈귀》

《아버지는 이겼다》

《유언을 받들고》

《승냥이》 주체23(1934)년

《기민탄식》 주체23(1934)년

《게다짜이 운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주체25(1936)년

《피바다》 주체25(1936)년

《경축대회》 주체25(1936)년 8월

《혁명의 한길에서》 주체28(1939)년

혁명가극

《꽃 피는 처녀》 주체19(1930)년

# 민족성이 구현된 고전소설

- 《박씨부인 전》, 《하진량문록》, 《옥린몽》을 중심으로 -

박춘명

화창한 4월의 해빛이 나의 집 서가를 어루만진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이 빼곡이 차 있는 책상, 그속에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전소설들을 바라보느라니 소설들에 어려 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으로 눈시울 뜨거워움을 금할수 없다.

혁명적문학작품들과 함께 민족문학유산작품들이 새롭게 발굴출판될 때마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기뻐 하시며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몸소 고전소설들을 보아 주시고 고전문학연구에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 주신 어버이수령님. 우리 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을 안고 태양절을 맞고 보니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 안던 그 날들이 가슴에 뜨겁게 안겨 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은 민족과 동떨어 진것이 아니며 민족의 력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봉건사회에서 만들어 진 예술작품들은 그 당시의 사회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제통치시기에 만들어 진 예술작품들은 역시 그 당시 우리 나라의 생활형편을 반영하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문학예술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민족성과 민족생활을 정확히 리해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세상에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찬란한 문학예술유산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민족문학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고전문학의 보급과 연구의 뚜렷한 방향을 밝혀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 깊은 사랑속에 《홍부전》, 《심청전》, 《춘향전》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고전소설들이 여러 형태로 개작윤색되었고 지금까지 목록으로만 전해 지던 작품들이 새로 발굴되어 인민들에게 안겨 지게 되지 않았던가.

그중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보아 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고전소설 《박씨부인전》, 《옥린몽》, 《하진량문록》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9(1980)년 1월 어느날 고전소설 《박씨부인전》을 보시고 《박씨부인전》을 비롯한 고전소설들가운데는 좋은것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고전소설을 읽는 목적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또한 주체79(1990)년 6월 어느날에는 새로 출판된 소설 《옥린몽》(상)을 록음으로 들으시고 하권도 마저 들으시겠다고, 그해 9월 23일과 11월 29일에는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을 보시고 이 소설이 좋다고, 주제가 선과 불의에 대한것들로 일관된 고전소설을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박씨부인전》, 《옥린몽》, 《하진량문록》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신것은 이 고전소설들에 민족성과 민족생활이 잘 구현되어 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작가이름이 잘 알려 지지 않은 고전소설 《박씨부인전》, 《옥린몽》, 《하진량문록》에는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들의 민족성과 민족생활들이 각양한 방법으로 형상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근로하기를 좋아 하고 평화를 사랑하였으며 외래침략자들과는 굴함없이 싸워 민족의 존엄을 지켜 온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침략자들이 쳐들어 올 때마다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어서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쳤으며 조국을 영웅적으로 방위하면서 반만년의 슬기로운 력사를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력사는 외적의 침략을 물리쳐 온 반침략, 조국방위의 력사로 되였다.

우리의 고전소설들에는 이러한 반침략투쟁을 벌려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친 조선인민의 민족성이 잘 형상되고 있다.

소설 《박씨부인전》에서는 외적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병자전쟁을 전후한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박씨부인의 성격장성과정들을 형상하였다.

《남존녀비》의 사상이 지배하던 봉건사회였으나 소설에서는 박씨부인을 중심주인공으로 설정하였고 적들과 타협 없는 투쟁을 벌리게 형상한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용모가 훤하게 생겼다고 하여 남편과 시집식구들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타하지 않고 외래침략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미리 간파하고 이에 대처할 준비를 한다. 그는 남편인 리시백과 애국명장 립경업을 살해하려는 정탐군

의 음모를 파탄시키고 적들이 서울까지 몰려 들어 나라의 정세가 위태로워 졌을 때는 시랑들을 자기집에 피신시키고 몸종 계화를 시켜 적장 룡골대를 차단하며 그의 형 룡골대가 침략군을 이끌고 물러가게 한다. 소설에서는 박씨부인이 체현하고 있는 민족적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리시백, 림경업과 같은 력사적으로 실재하였던 인물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 형상하였다.

《하진량문록》에서는 보다 더 큰 화폭으로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애국투쟁을 형상하였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하옥주와 진세백은 모진 고생과 시련을 뚫고 만났다. 이들은 사랑하는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수도 있었다.

외적이 침범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은 자진하여 싸움터로 나선다. 평동대원수, 평서대원수로 임명된 두사람은 악랄한 침략자를 물리치고 개선하였다.

이때 진세백과 하옥주는 서로가 사랑하며 그리던 사람들이라는것을 알았다. 하지만 침략자들이 다시 쳐들어 왔다는 말을 듣고 사사로운 감정을 누르고 반침략애국투쟁에 또 나선다. 특히 녀장수의 권위로 진세백의 련정적인 행동을 물리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감정은 일부다처제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본으로 한 《옥린몽》과 같은 소설에서도 생활론리에 맞게 형상하였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인 림경문, 류원은 일부다처제사회가 빚어 낸 가정모순, 봉건 지배계급들의 정권쟁탈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나 림경문은 항상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란의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적극으로 들어 간다.

그는 자기를 투항시키려고 회유와 협박, 모진 고통을 가하는 적들에게 굴하지 않았으며 변방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년세월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안해와 아들이 죽은 슬픔을 안은 류원은 거란군이 수십만대군으로 불의에 쳐들어 오자 병부상서겸 정복대원수의 벼슬을 받고 싸움터로 나선다.

이렇게 고전소설들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민들의 민족성을 잘 구현하였다.

고전소설들에서는 또한 선을 귀중히 여기며 출세와 돈보다 인간의 의리를 지키는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인민의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형상하였다.

먼 옛날부터 발전된 문화생활을 해온 우리 인민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다.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존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인민이 계승하여 내려 오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풍습이다.

소설 《옥린몽》이나 《하진량문록》에서는 정의와 대치되는 부정의, 진리와 도덕보다 재물이

나 권력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들을 부정인물로 설정하고 그 부패성을 신랄히 규탄하도록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구성을 엮어 나갔다.

《옥린몽》에서는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은 려교란, 권모술수에 능한 간사한 간의대부 사복 등 간악한 인간들을 부정인물로 설정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리가 있고 도덕, 지조를 지키는 림경문, 류원, 설억 등을 긍정인물로 설정하여 갈등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마침내 불의가 패하고 정의가 승리하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이 작품에서 림경문은 의리가 있는 인간으로 형상되었다. 그는 황제의 어명에 하는수 없이 려교란과 결혼은 하였으나 처음 혼약을 맺은 류혜란을 잊지 않으며 그를 다시 정부인으로 맞는다.

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류혜란의 오빠인 류원은 의리가 있고 재능 있는 인간으로서 가난한 설억을 적극 도와 주는가 하면 권세 있는 간의대부 사복의 딸과의 혼약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거절하고 인물과 재덕을 겸비한 장소저를 안해로 맞는다.

《하진량문록》에서도 의리 있는 인간관계의 형상이 부각되고 있다. 대사마장군 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는 하회지가 관찰사로 임명되어 지방에 내려 갔다가 의지할데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된 진세백을 집에 데려다가 키우면서 사심없이 그의 생활을 도와주며 나중에는 자기 딸 옥주와 결혼시키는 의로운 행동이라든가, 진세백이 하회지의 가정이 위협에 처하였을 때 적극 도와나서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도덕품성, 의리의 형상이다.

민족생활을 형상함에 있어서 애정륜리생활을 민족적특성에 맞게 형상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박씨부인전》, 《하진량문록》, 《옥린몽》 등 소설에서는 애정륜리관계를 민족적특성에 맞게 잘 형상하였다.

참다운 애정륜리관계는 가정의 화목을 이룩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인간들의 신뢰를 조성하는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박씨부인전》에서의 박씨부인은 한때 추한 용모를 하였다고 해서 남편과 시집사람들로부터 구박을 받았으나 조선녀성들이 간직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남편을 극진히 섬기며 그가 나라를 떠날들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나간다. 《하진량문록》에서의 진세백과 하옥주 한번 맺은 혼약을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잊지 않는다. 진세백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황제의 부마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 갈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었으나 생사도 모르는 하옥주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거절한다. 하옥주 역시 그러하다. 그는 녀성의 몸으로 자기에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자 깊은 산속에 들어 가 도사의 도움으로 무술을 연마한다. 그후 남자로 변장하여 과거급제도 하고 대원수가

지 되었으나 진세백이 고통을 겪는것을 보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종적을 감추기도 한다. 이러한 참다운 애정생활은 《옥린몽》에 형상된 일련의 남녀관계속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고전소설들에서는 량반상층부들의 형상을 통해서만 민족성과 민족생활을 반영한것은 아니다.

《옥린몽》에서의 기생 설빙심이나 배군 리소철, 《하진량문록》에서의 옥주의 시비 옥매 등은 모두 최하층에 속하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의리가 있고 어려움속에서도 남을 도와 주며 한몸을 바칠줄 아는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로서 민족성과 민족생활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고전소설들에는 일련의 제한성도 있다, 고전소설들에서는 작가들의 사회계급적, 시대력사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많은 경우 량반상층부들의 생활을 위주로 보여주거나 당대사회의 모순의 본질적측면을 형상하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적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비진실한 생활세부들을 택하기도 하였고 봉건유교교리를 절대화한 경향성도 나타내었다.

우리 고전소설들에는 일정한 부족점, 제한성이 있으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우리 인민의 창조적인 재능을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각이한 시대, 각이한 사회발전단계를 반영하고 진보적인것과 보수적인것, 인민적인것과 반동적인것이 뒤섞여 있는 민족고전문학예술유산에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드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00권에 달하는 조선고전문학선집편찬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최근에만도 고전작품들을 통한 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도록 하시었다.

이렇듯 우리 고전작품 한편한편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가 뜨겁게 흘러 넘치고 있다.

우리는 고전소설들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민족문화유산을 더욱더 빛내여 나가야 할것이다.

## 전 우

(총련)손지원

-수령과 전우

세상에 전우란 말이 생겨  
몇백년이 되는지 알리 없건만  
조선혁명박물관에 새로 전시된  
수령님과 함께 있는 전우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었던가

-수령과 전우

세상에는 투쟁속에서 맺어 진  
의리와 우정의 이야기는 많아도  
수령님과 함께 있는 전우들보다  
장군님과 함께 있는 전우들보다  
숭고한 모습이 그 어디에 있었던가

동지를 잇는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신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 전우  
김혁, 차광수, 오중흡...

민족의 태양이신 수령님을 우러러  
그이께 청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쳐 싸운

박달, 리제순, 마동희...

주체혁명위업의 력사의 갈피마다  
길이 남아 전해 진 이름이여  
영생하시는 수령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길이 남을 이름이여

원췌 미제를 무찌르는 전선길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묵숨으로 지키며  
하나의 숨결로 산 김책, 최현...

수령님 그대로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혁명선배로, 동지로 여기신 참된 전우들  
장군님을 우러러 모신 충신중의 충신들  
김일, 림춘추, 오진우, 최광...

아, 세상에 전우란 말이 생겨  
몇백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내 알리 없건만  
수령복, 장군복을 지닌 더 없는 영광속에  
길이 빛날 고귀한 이름들이여  
영원한, 영원한 혁명의 전사들이여!

## 수령님의 회고담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무가 조선혁명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었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여 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조선혁명처럼 노래와 밀착된 혁명, 노래로 엮어 진 혁명은 아마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혁명 그자체가 하나의 장중한 교향곡이고 노래를 낳는 터전입니다. 노래를 떠난 혁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 나의 《전선수첩》을 펼치며

박호범

십자가의 표말도 없이  
흙을 물고 덩구는 놈들의 철갑모  
원췌를 향한 통선마다엔  
돌가루가 발목을 묻는 무너진 전호

좁 으면  
창격전의 결전  
목숨 건 결전  
죽어도 이 고지를 지키고 죽어야 할 때  
살아도 이 고지를 지키고 살아야 할 시각

통선을 뒤덮으며 달려 드는 놈들  
꿈틀거리며 기여 오는 놈들의 거만한 땅크  
중대장은 전호를 차고 일어 서며  
소리높이 웨쳤다  
《중대 돌격 앞으로!》  
《중대 돌격 앞으로!》

고지우에는 혈전의 우뢰가 울고  
총창이 휘는 육박전  
승냥이 미제의 목줄을 타고 앉느냐  
아니면 승냥이 미제에게 먹히우느냐  
조국의 운명을 건 결전의 고지!

고지는 한순간 부르르 몸을 떨더니  
고지는 이리로 기울고 저리로 기울더니  
놈들을 털어 버리며  
다시 틀어 쥔 주먹으로 솟아 오르고  
서늘한 가을바람은  
포연을 저 멀리 남으로 몰아 가고

승리한 전사들은  
부둥켜 안으며 소리쳐 웃으며

멀리 평양하늘 최고사령부를 우러러  
소리높이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거니

어찌하여 조선의 전사들이 가장 어려운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며 육박의 길에 오르는지  
미제전쟁상인들이 알수나 있으랴  
어찌하여 조선의 청춘들이  
피 더운 가슴으로 적화구를 틀어 막으며  
소리높이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는지  
제국주의자들이 알수나 있으랴

**김일성**장군!  
위대한 그 이름은  
조선혁명의 승리의 기치!  
조선혁명의 영원한 미래!

미제는 판문점의 갈밭에  
무릎을 꿇는 그 마지막순간까지  
조선을 몰랐고 조선인민을 몰랐다  
그 진두에  
백만관동군의 목대를 부러뜨린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께서 서 계신줄  
놈들은 어리석게도 몰랐다

가련하게 뚫어 진 병거지를 쓰고  
조선인민앞에서  
세계의 면전에서  
미제는 통곡을 터뜨렸다  
-**김일성**장군!  
이 무서운 거인과  
우리는 잘못된 전쟁을 했다

##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정서세계와 불멸의 송가

김려숙

봄빛 무르녹아 화창한 태양의 계절이다. 태양 조선, 태양민족과 더불어 전 세계 인류가 최대의 경사의 날로 기념하는 태양절송가가 하늘땅에 차고 넘친다.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대대로 수령복을 누려 오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궁지와 영광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도 웃음꽃 피어 나는 거리와 마을, 이 땅의 산천초목에도 뜨겁게 어려 있고 그것은 그대로 노래가 되어 온 강산에 울려 퍼지고 있다.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생각할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수령제일주의 사상감정은 우리 인민이 오랜 기간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신념으로 굳히고 의리로 다진 **김일성** 민족의 특출하고 고유한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며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핵이다.

태양절을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함께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어 오늘과 같은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체혁명위업을 꽃꽂이 이어 나갈수 있게 해주시고 **김일성** 민족의 존엄을 더욱 빛내여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여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수령님 영생하시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유훈은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현실로 꽃 피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흥하는 오늘의 로동당시대를 두고, 문무충효를 겸비하신 백두령장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기에 보다 룡성변영할 우리 민족,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두고 그토록 만족해 하시며 몸소 지으신 불멸의 시가들의 구절구절이 깊이깊이 되새겨진다.

### 1. 민족의 존엄과 룡성변영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의 최절정-《묘향산 가을날에》

조국, 그것은 한없이 숭고하고 신성한 부름이다. 조국의 운명속에 너와 나 개인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있고 사랑과 행복의 영예, 삶의 모든것이 조국과 함께 있다.

지난 날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 왔으며 오늘의

우리들이 살고 있고 래일에 우리의 후대들이 대를 이어 살아 갈 거래의 영원한 삶의 요람, 생활의 보금자리가 바로 조국이다.

조국을 위해 모든것이 있고 또 조국이 있어 모든것이 있는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한생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풍찬로숙하시며 혁명을 하신것도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서였고 곁쌓이는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것도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서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주시고 내세워 주신 조국, 그것은 곧 수령님의 품, 장군님의 품이고 그품이 있어 우리 인민의 행복도 민족의 존엄과 찬란한 미래도 있다.

사회주의조국을 승추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민족의 존엄과 룡성변영, 찬란한 미래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 락관이 높은 경지에 이른 불멸의 시가이다.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8(1979)년 10월 15일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으시었을 때 단풍든 묘향산을 부감하시며 읊으신 시가이다.

로대우에 올라 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 절경이야 래고부터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내려 퍼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만산에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니  
로동당 새 시대에 해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와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 수놓누나 이 나라 새 력사를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 든다  
5천년 력사국에 처음 꽃 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 주리

고전적명작은 일대 민족적변영과 룡성기에 펼쳐진 로동당시대에 대한 레찬과 민족적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더없는 궁지와 자부심이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체험세계를 거쳐 그이의 시점에서 분석일관화된 독특한 서정으로 일관되어 있다.

천하절승 묘향산, 단풍든 묘향산의 풍경은 예로부터 시재들의 관심을 모은 하나의 시적묘사대

상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에서 묘향산풍경을 노래한 그 어느 시가도 고전적명작 《묘향산 가을날에》에 대비할수 없다.

아니, 앞으로도 력사는 이보다 더 훌륭한 묘향산 노래를 지을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체험의 폭과 깊이, 사상정서의 기백과 열정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문학예술의 대가이신 우리 수령님의 그 숭고한 세계를 누구도 따를수 없기때문이다.

명작의 시적계기는 묘향산풍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에 비친 민족의 존엄에 대한 강렬한 체험이라고 볼수 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로동당시대 민족의 존엄과 긍지의 빛나는 상징이다.

명작은 묘향산절경에 대한 레찬의 감정을 민족의 존엄과 긍지로, 로동당의 위대한 새 력사에 대한 열렬한 칭송으로, 사회주의조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락관과 확신으로 높이 승화시키고 있다.

《로대우에 올라 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라고 묘향산경치에 대하여 호방한 정서적분출로 시작된 1련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는 국제친선전람관이 불러 일으키는 격동된 시적감흥을 더치며 묘향산의 주봉 비로봉의 높이를 민족의 존엄의 높이에 비겨 칭송하고 있다.

1련이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민족제일주의감정으로 격조높이 토로했다면 2련에서는 1련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묘향산 단풍의 붉은 색조로 민족의 새 력사를 수 놓아 가는 로동당의 위력을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레찬하고 있다.

1련과 2련에서 묘향산의 가을경치에 대한 정서적토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존엄과 로동당의 위대성을 긍지높이 찬양하고 시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데 있다. 묘향산절경은 태고부터 있었던것이고 만산의 붉은 단풍도 가을마다 붉었을것인즉 어찌하여 오늘에 와서 묘향산은 천하절승을 펼치고 있는것인가.

인민의 명승지로 꽃 피난 묘향산을 바라보아도 인류의 흠모의 정이 어린 국제친선전람관을 바라보아도 더없이 기뻐 하시고 만족해 하신 우리 수령님.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온갖 로고도 바로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기쁨 넘친 인민의 모습에서, 존엄 높은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에서 한평생 인민위해 애 쓰신 온갖 시름이 다 풀리시는듯 그이께서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보내실 때 묘향산도 해빛에 찬란히 빛나고 명시구가 흘러 나오는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에 국제친선전람관의 푸른 추녀도 더욱 높이 나래 펴는것인가.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긍지를 안고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를 반드시 이 땅에 세우시려는 불 타는 열정을 담은 애국애족의 노래 《조선의 노래》를 지어 부르시였던 우리 수령님.

그 녀원, 그 맹세가 활짝 꽃 핀 로동당시대의 기쁨과 행복이 이 묘향산절경에 한껏 어려 있으니 만고풍상 헤쳐 오신 우리 수령님의 감회 깊은 추억인들 얼마나 많으며 그 추억속에 뜨겁게 안겨오는 찬란한 래일에 대한 락관은 또 얼마나 환희에 넘친것인가.

명작의 3련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가슴에 안으신 우리 수령님의 걱정, 5천년 민족사를 꿰며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 많던 어제날과 온 세계 친선의 사설들이 구름같이 찾아 드는 오늘의 현실과의 극적인 대조속에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에 물려 줄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환희의 감정이 승엄하게 안겨 오고 있다.

돌이켜 보자. 땅도 이 땅, 겨레도 내 겨레이건 만 어이하여 지난 날에는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을 뼈 아프게 체험해야 했고 망국을 통탄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가.

예속과 굴욕으로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혔던 이 땅엔 한줄기 빛도 없었다. 산천초목도 흐느껴 울던 때가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그런데 광복된지 30년밖에 안되는 바로 오늘(그 당시를 넘두에 둬)엔 너무도 놀라운 전변이 일어 난 것이다.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과 더불어 온 세계가 부러워 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존엄과 영예를 떨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높이 우러르고 따르는 인민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민족의 위대성과 주체조선의 위황한 래일을 확신성 있게 그려 보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것이 아닌가.

명작은 위인의 가장 숭고한 경지에서 묘향산의 절경을 부감하시는 안목의 높이와 승엄한 사색의 폭에 적응한 시적구성과 시어, 운률로 하여 고전적 시가의 사상예술적풍격을 보장하고 있다.

민족제일주의, 애국애족의 사상정서를 일관시키면서도 련에 따라 집약화하고 점차적으로 심화, 승화시켜 나가는 간결하고 짜임 시적구성, 평범한 인민적어휘와 시구속에 만가지 사연을 함축하여 생동하게 표현한 아름답고 세련된 시어의 활용, 3.4 또는 4.4조로 이루어진 시구를 매개행에서 쌍으로 조화시켜 정서의 폭을 넓히면서 류창하고 멋들어 지게 흐르는 운률 등은 명작의 정



서를 숭고하고 웅건한것으로 특징 짓게 한다.

명작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로동당 시대에 대한 공지와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더욱 빛내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어린 주체의 강성대국을 이 땅우에 기어이 일떠세울 강철같은 의지를 더욱 북돋아 준다.

## 2. 후계자복에 대한 최상최대의 만족과 자랑 《광명성찬가》

예로부터 《복》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소원과 희망, 가장 높은 목표를 평범하고 뜻이 깊게, 소박하고 친근하게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복》은 사람들의 생사운명으로부터 민족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그 밑바탕에 놓이는 일종의 철학적인것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 어떤 운명적인것과 결부시켜 붙인 《복》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오늘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태어난 수령복, 후계자복, 인민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은 동서고금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인민은 수령복을 노래하고 수령은 인민복, 후계자복을 노래하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그 복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상만사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끄떡 없고 그 복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영원불멸할 태양의 노래와 더불어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게 될것이다.

불멸의 송시 《**광명성찬가**》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모신 화폭을 가정들에 모시고 가보로 여기고 있는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선견지명의 비범한 예지로 대를 이어 수령복을 지니게 해주신 아버지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

《**김정일**동지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충신중의 충신이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는 효자중의 효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1992년 2월 13일에 그의 생일 50돐을 맞으며 **김정일**동지가 문무충효를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른다는 내용의 송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김정일**동지와 같은 후계자를 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 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순둥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 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1992. 2. 16

**김일성**

송시 《**광명성찬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최고의 레찬과 그이께서 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감정을 비상한 예술적기교로 노래함으로써 시적형상의 높은 경지를 이루고 있다.

송시에 관통하고 있는 시정신은 주체혁명위업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칭송과 만족감이다.

자자구구 주옥 같은 시어로 다듬어 써나가시던 수령님의 깊은 사색과 숭고한 체험세계를 우리 다 헤아릴수 없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최대의 믿음과 만족이 명백하게 충만된 시세계의 정서는 우리의 온넛과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생전에 외국의 당과 정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실 때나, 우리 일군들을 만나실 때나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 **김정일**동지를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두신것을 최대의 복, 최대의 락으로 여기신다고 만족을 표시하신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김정일**동지는 곧 자신이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사상이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이고 수령님의 령도이자 장군님의 령도이며 수령님의 인격이자 장군님의 인격이고 수령님의 품모이자 장군님의 품모이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자신처럼 생각하시며 자신보다 더 믿으시였다.

위인이 위인을 알아 본다는 말이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 어찌하여 불멸의 송시를 지으시게 되였는가 하는 그 창작동기부터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무충효를 겸비한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어느 시대, 어느 위인도 지닐수 없는 위인의 품모를 알아보시였고 장군님을 흠모하며 우러러 따르는 인민의 모습에서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하나가 되여 운명을 같이 하는 이 나라의 기상, 주체조선의 참 모습을 보시였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의 심중은 무한한 기쁨과 환희에 넘치셨으리라. 온 세상에 대고 자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심정이시였다. 힘이 솟고 무서운것이 없으시였다. 찬란한 조선의 미래가 확신되시였다.

물어 보자 력사여, 우리 수령님께서서 걱정예 넘쳐 부르고 자랑하고 싶으시였던 그 노래, 《**광명성찬가**》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것이 아니던가.

우리의 귀전에는 송시를 쓰고 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감개무량하신 어조로 한평생 혁명을 하여 오지만 오늘처럼 보람을 느껴 본적이 없다고,

그것은 **김정일** 동지의 령도 밑에 우리 혁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기때문이라고 하신 절절한 말씀이 뜨겁게 울려 오고 있다.

위인에 의한 위인송가의 새 경지, 후계수령을 칭송하여 선대수령이 지은 송시의 새 력사는 이렇게 개척되었다.

송시는 6행밖에 안되는 짧은 시형식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폭 넓게 집약화하여 뜻 깊게 펼쳐고 있다.

감격도 새로운 력사의 그날 백두광명성 솟았고 항일의 투사들이 목 베여 웨치던 환호소리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한 인민의 환희에 넘친 모습인가.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키워 가시던 그날의 백두밀영고향집을 그려 보시었다.

백두산마루에 높이 솟은 정일봉, 굽이쳐 흐르는 소백수의 푸른 물의 류다른 정취, 못 견디게 북받쳐 오르는 정은 오늘의 이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로 잇닿아 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일 바로 그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하시었던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그 숭고한 뜻을 우리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단 말인가.

최고사령관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이 나라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 같은 칭송의 목소리를 김정숙동지께서 들으시고 계시는 것만 같으신 심정, 바로 그것이 지난해 12월 24일, 몇달전의 력사적사변이지만 벌써 50년전 그날의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우리 수령님의 감회는 끝없이 끝없이 깊어만 지시였으리라.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누를길 없는 걱정을 담아 송시에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르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 인민의 무한한 신뢰와 흠모가 하늘땅에 차넘치는 내 조국의 모습을 절절하게 터치시었다.

위인중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높이 칭송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세계의 위인, 세기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더욱 절절히 체험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한몸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지켜 주시었고 선군혁명령도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믿음직하게 계승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날뿐만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갈것이며 우리 혁명은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

리지 않고 활력 있게 발전해 나갈것이라는 철의 료리를 일찌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 주신 수령님, 수령님의 예언은 확정적인 현실이었고 불변의 진리였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오늘의 현실을 두고 더더욱 어버이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함께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복중에서 가장 큰 복, 수령복을 안겨 주신 그 은혜에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무한한 헌신과 불면불휴의 로고로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해 주시고 수령의 유훈을 어떻게 받들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었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고 다시 일어선다는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그렇듯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을 우리 인민은 어떻게 이겨 냈던가.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그 힘이 사람들을 불사신으로 키워 냈다.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굶으면서도 혁명의 노래를 부를수 있었으며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은 만대에 빛나게 되고 강성대국의 래일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오랜 정치경력, 비상히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가이시며 끝없는 열정으로 혁명과 건설전반을 이끌어 나가시는 희세의 정력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오늘날도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불멸의 송시에 깊이 심취될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을 수령님의 후계자로 모시여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게 된 우리 인민의 더 없는 행운을 두고 그토록 만족해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더더욱 심장깊이 새겨 안게 된다.

《광명성찬가》는 위인칭송의 송가특성에 맞게 그 감정정서가 비상히 장중하고 강렬하고 격동적이며 그 폭이 크고 울림과 여운이 강하다. 송시는 서정구조가 짙어 있고 정교하고 세련된 구성미를 보여 주고 있다.

1행과 2행에서는 시적정황을 제시하면서 백두광명성탄생의 력사적의의를 경건하게 노래하고 있으며 3, 4행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응집시켜 간결하고 명백하게 시적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5행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만민의 한결 같은 마음을 격조높이 토로하는 서정의 마루를 형성하고 6행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환희와 민족적공지로 시적감정의 여운을 주고 있다.

격이 높은 비유와 여러가지 표현수법들, 6행 7언의 한자로 쓰고 3, 4조의 음수틀로 풀이한 정교하고 세련된 운률, 정서적이고 음악적이며 간명하고 함축된 언어구사에서의 특성은 송시의 세련

된 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

송시 《광명성찬가》는 높은 사상에술성으로 하여 주체의 시가문학과 세계혁명적문학의 최고봉을 이루는 고전적본보기이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 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게 한다.

## 세계작가소개

# 괴테, 요한 월프강 폰

18세기 말~19세기 초에 활동한 도이칠란드의 작가.

도이칠란드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1749년 8월 28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시의 부유한 부르조아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법률가이며 시참사였다.

아버지의 요구로 라이프찌히와 슈트라스부르크의 대학들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동시에 문학과 철학,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도 폭 넓게 섭취하였다. 이 시기에 범신론적유물론의 영향을 받았다.

1771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고 얼마동안 고향도시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와이마르공작의 초청을 받고 1775년 이후 와이마르공국에서 살게 되었다. 여기서 괴테는 궁정의 추밀원 고문관, 재상으로 있었다.

1786년~1788년의 이탈리아여행에서 돌아 온후 관직에서 물러나 말년까지 전적으로 문학창작생활에 몰두하였다.

일찍이 문학에 뜻을 품어 온 괴테는 대학시절부터 문학창작을 시작하였으며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문학운동인 《질풍노도》운동에 참가하였다.

대학시절이었던 1770년~1771년에 도이칠란드민요풍의 서정시들인 《상봉과 리별》, 《들장미》, 《5월의 노래》, 《오랑캐꽃》, 《찾아 냈소》 등을 창작발표하였다. 도이칠란드인민가요에 바탕을 둔 이 시들

은 민족성이 선명하고 진실하고 소박하며 풍부한 서정과 랑랑한 음악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프랑스모방문학이 판을 치고 있던 당시의 도이칠란드문단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괴테는 대학을 졸업한후인 1773년에 희곡 《피츠 폰 베를리히겐》, 《프로메테우스》를 내놓아 명성을 떨친데 이어 1774년에는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편지체형식의 중편소설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을 창작하여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이 작품들에는 도이칠란드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로운 새 사회를 갈망하는 지향이 담겨져 있다.

1786년~1788년의 이탈리아여행을 계기로 고대 그리스문화를 동경하고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교양에 의하여 사회의 진보를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괴테의 창작에서는 현실부정과 향거의 기운이 사라지고 인간의 도덕적완성과 같은 문제들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에 창작한 비극 《타우리스의 이피제니에》(1787년), 《에그몬트》(1788년), 《토르쿠아토 타초》(1790년) 등의 작품들에 반영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시기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 대표적작품이 극시 《파우스트》(제1부 1808년, 제2부 1832년)이다. 괴테의 계몽주의적리상이 집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묘향산 가을날에》와 《광명성찬가》는 우리 인민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수령님과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해 질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혁명명도의 빛나는 길우에서 그 불멸의 의의는 더욱더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약되어 있는 이 작품은 인류의 복리를 위한 로동속에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이상이 있다는 계몽주의사상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무위도식하며 무의미한 향락과 쾌락만을 주장하는 반동적인 봉건귀족계급의 비관주의적이며 염세적인 철학을 날카롭게 폭로비판하고 이에 대한 락관주의적이며 생활긍정의 열정을 체현한 계몽주의사상의 승리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이 시기에 서사시 《헤르만과 도로테아》(1797년), 철학소설 《월헬름 마이스테르》(제1부 《수업시대》 1796년, 제2부 《편력시대》 1829년), 장편소설 《친화력》 등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시와 진실》(1833년 발표)과 같은 문예리론적인 저서도 남겼다.

괴테는 1832년 3월 22일 와이마르교외의 조용한 저택에서 여든 세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괴테는 한생에 1,600여편의 서정시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소설, 희곡, 서사시, 극시 등을 남긴 시인, 소설가, 극작가, 문예리론가로서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법학자, 철학자, 화가, 연출가, 자연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괴테는 인민구두어를 잘 살려 쓰면서 도이칠란드문학어를 세련시키고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가 쓴 많은 시들은 도이칠란드인민가요로 불리워지고 있다.

# 위대한 사랑

박동선

가을바람은 락엽을 끌고  
황황히 재를 넘어달아나 버리고  
서산에 지는 해도  
미끄러지듯 멀어 지는데  
말리혀 험한 길 떠나가신 어머니  
왜 아직 못 오시나  
초조하신 수령님눈길  
어머님 가신 길만 쫓고 있으니

발자욱소리...  
발자욱소리...  
나무함지 머리 이고 돌아 오시는  
강반석어머님  
수령님의 눈굽은 뜨거워 지는데  
어머님의 얼굴엔 웃음이 피여 오른다

합지안엔 소고기  
그 갈피속엔 두자루의 권총  
어찌라 장탄된 권총앞에서  
말리혀 전우들의 실책을 두고  
수령님 가슴 섬찔 놀라셨다.  
-이 동무들이 어찌자구?

허바닥 길게 빼문 군견들이  
코를 벌름거리고 골목골목 훑고  
쇠방거지 왜놈들 거리를 메주 밟듯 쏘다니는데  
그 속을 꿰고 오기란

피를 본 혈전의 길  
목숨 건 생사의 길

어머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시여라  
-내가 그랬다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게...  
피값이라도 해야지

광복성전에 아드님 받들어 올리시며  
혁명의 난국을 헤쳐야 할  
어머님의 마음속에  
떠나실 때 혁명의 피값이 계산되었다  
돌아 올 때 결사의 총탄이 채워 있었다

조국광복 큰 길에로 떠밀어 준  
어머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성스러운 총대를 넘겨 받으신  
우리 수령님  
항일의 총대숲을 자래워  
광복의 새봄을 불러 왔다

아, 못 잊어  
간고했던 무송시절의 어머님사랑  
오늘도 그 사랑  
선군의 총대마다 만탄창을 채워 주며  
빛나는 승리로 세월을 앞서누나

# 병사는 평양을 지켜 산다네

신지락

산 넘어 구름 넘어 평양은 멀고 멀어도  
초병의 맘속엔 제일로 가깝다네  
아버지장군님 계시는 그리운 평양아  
너를 지켜 나는야 병사가 되었어라  
아 평양 평양 나의 심장이

선군의 자옥어린 최전연 초소길마다  
최고사령부의 트랙에 이어 졌다네  
혁명의 수뇌부가 있는 정다운 평양아

너를 지켜 병사는 전호에 서 있어라  
아 평양 평양 나의 심장이

장군님 계시는 평양은 조국이었어서  
천만의 병사들 성새로 솟았어라  
21세기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심장이  
너를 지켜 내 한생 수호의 총대가 되리  
아 평양 평양 조선의 심장이

## 래양과 거목의 뿌리

김선일

한그루 거목이 푸르러 설레인다.

타드는 가물과 모진 비바람속에서도 이 땅에 깊이 심어진 나무에서 억센 줄기가 솟아 오르고 무성한 가지가 생기어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힌다.

그 어떤 시련이 앞을 막아도 언제나 굳건히 서 있는 태양의 거목.

페허우에서 일으켜 세운 전후복구건설은 바로 그 거목의 뿌리를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투쟁이었다는것이 총서 《불멸의 력사》(광복후편)중 장편소설 《변영의 길》(박용운)의 사상미학적주장이다.

여기에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소설의 철학적탐구의 세계가 있으며 예술적일반화가 있다.

하다면 그 거목의 뿌리는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작품의 인물형상과 사건줄거리, 세부묘사는 다 여기에 바쳐 지면서 감동 깊은 형상세계를 펼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서 힘 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

소설의 갈피마다에는 무엇보다도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거목의 뿌리를 튼튼히 심어 놓으십시오 민족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이 참으로 감명 깊게 그려 지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을 이겨 낸 우리 조국은 말그대로 재더미였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 타버렸으며 인민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었다. 오죽하였으면 전후복구건설 문제를 토의할 회의실 하나 변변한것이 없었겠는가,

우리에게는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아니 없었다. 한장의 벽돌, 한그람의 세멘트, 한꼬투리의 강재도 없었다.

참으로 미제가 우리 조국에 들썩은 전쟁의 참화는 인류전쟁사에 없었던 전대미문의것이였다.

과연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시대와 력사가 제기하는 절박한 과제였다.

당시 소련은 우리의 복구건설을 위해 10억루블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형제국가들의 원조는 고마운것이지만 그것으로 복구건설이 다 되는것은 아니였다.

한편 뒤꼍방에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쑥덕공

론이 벌어 진다. 《큰집아주바이》들의 덕분에 잘 살게 되였다고,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호상관계가 어떻소, 복구설의 현실적가능성이 어떻소라고...

소설은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당대의 력사적환경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면서 이 땅에 룡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놓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더미속에서 전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고 승리로 이끄신 력사적사실과 자료들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 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우리 당의 력사에 길이 새겨 질 불멸의 영웅서사시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구태여 력사에 없었던 이야기를 새로 꾸며 낼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격동적이고 가슴 뜨거운 그 사연들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재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뿐이였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포화속에서 승리할 때일을 내다보시고 휘황한 복구건설계획을 세우시고 그 준비를 다그치신 사실, 전승경축광장의 주석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 강남요업공장을 찾으신 사실, 재가루 날리는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여 복구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의논하신 사실, 당 제6차전원회의에서 전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선포하신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정부대표단을 이끄시고 소련을 방문하신 력사적사실 등이 그대로 그려 져 있다.

이외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수한 려객렬차에서 집무를 보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신 이야기와 저택에조차 들어 가지지못하시고 집무실에서 쉬시다가 너무도 무덤고 답답하시여 옥상에 올라 가셨으나 모기가 많아 온밤 주무시지 못한 가슴 저린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작품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는 식으로 력사를 단순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

작가는 실제한 력사적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그 밑바탕에 깔린 깊은 의미와 본질을 밝혀 내기 위해 위인의 내면세계에 대담하게 침투하여 깊이 있게 그리는데 힘을 넣고 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에 넘쳐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련 사흘째 꼬박 지새우시며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신다.

미제의 야만적폭격으로 모든것이 재더미로 변한데다가 일제가 남기고 간 식민지예속경제의 기형성과 편파성의 후파도 심하지,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군들의 각오와 준비정도는 높지 못하지...

참으로 수령님의 심증은 안타깝고 고통스러우시었다.

그러나 수령님의 고충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우리 인민에게 조상대대로 내려 온 가난을 영영 털어 버리고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면 어차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하는데 그러자면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을 겪은 우리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또한 인민의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의 피로움과 아픔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시련의 언덕을 넘으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은 우리 인민입니다. 이런 우리 인민은 마땅히 꽃수레에 태워 세상의 만복을 다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민에게 락을 누리게 할 대신 또다시 아니, 오히려 지난 전쟁 3년간보다 더 장기적이고 더 간고할수 있는 그런 길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말할수 없이 괴롭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수령님의 안광에는 물기 같은것이 번쩍인다.

근심과 걱정, 강철의 의지와 한없는 인자함,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찬 그 눈길...

수령님께서서는 결심하신다.

폐허가 된 조국강토를 일신하실것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피눈물로 얼룩진 민족수난사에 영영 종지부를 찍으실것을, 오늘은 비록 어렵지만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재가루가 날리는 이 땅에 민족이 영원히 변영할 튼튼한 토대를 다지는 전인미답의 그 길을 개척해 나가실것을... 하여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무르익혀 오신 전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엄숙히 선포하신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하여.

하다면 수령님의 이 결단은 무엇에 기초하신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주체의 신념, 오랜 세월 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놀리며 살던 우리 조선이 혜성처럼 솟구쳐 올라 당당한 자세로 대국들을 따라 앞서야 한다는 드림 없는 의지, 령토가 있고 인민이 있고 당과 주권이 있는 이상 우리의 리상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신, 비록 3년간의 어려운 조국해방전쟁을 겪었지만 온갖 난관을 이겨 내고 이 땅위에 부강한 조선을 세손으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에 대한 믿음

에 바탕을 두고 있는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수령님께서서 로선을 하나 채택하시고 정책을 하나 작성하시는 내용을 그러도 그 과정에 깃든 수령의 체형세계와 심리적굴곡과정을 다면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 들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기정사실화의 경향을 극복하려는 진지한 탐구적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창작태도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이끄시고 쏘련을 방문하시었을 때 대국주의자들의 시비와 압력을 물리치시던 수령님의 무겁고도 확신에 넘친 심중의 세계, 국가계획조절문제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신 수령님의 내면세계, 백흥건이 홍남비료공장조업을 보장하고 희생되었다는 비보에 접하였을 때 그토록 가슴 아파 하시던 수령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휘되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전후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독창적으로 밝혀 주시고 탁월한 령도로 복구건설의 길에 가로 놓인 난국을 타개하시며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을 보살피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명 깊게 그려 내고 있다.

소설에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진실한 형상은 주체의 진리를 심오하게 밝히기 위한 사상적 지향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작품은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은 단순히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는것을 심오히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사대와 교조에 물 젖었던 치욕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을 비장한 결심을 내리시고 사상사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엄숙히 선포하시는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감동깊이 그려내는데 형상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재더미를 헤치고 나라를 일떠세우는 길은 오직 자기 인민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는 길이라는 주체의 진리를 밝힘으로써 마침내 폐허위에 사회주의라는 거목의 억센 뿌리를 마련하신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성장하여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길에서 사회주의거목을 튼튼히 자래울 뿌리로 억세게 성장하는 참된 충신들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창조하고 있다.

항일의 그날부터 화약내 풍기는 군복을 입고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드림없이 받들어 온 김일, 성격이 쾌활하고 눈썹미가 빠르며 날과람 있으면서도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남 모르게 속삭이는 부관 주인홍, 조선로동계급의 억센 신념과 의지, 슬기를 체현한 강선제강소 용접공 림형관, 열렬한 조국애를 가슴에 안고 자기의 재능과

기술로 복구건설에서 한몫 하는 신철 등의 성격은 인상적이다.

소설에서는 특히 정준택, 백홍건, 리웅천의 성격창조에 많은 힘을 넣고 있다.

이들은 다같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대학까지 나왔고 광복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새조국건설에 떨쳐 나선 인물들이다.

그들의 경력과 처지, 가정환경은 비슷하다. 또한 국가경제관리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개성적인 면모는 서로 다르다.

우리 나라 국가계획위원회 초대위원장 정준택, 굵직한 검정테의 도수 높은 안경을 낀 그의 옷주머니에는 언제나 계산자가 있다.

자기가 직접 계산하고 분석하면서 과학적인 자료만을 수령님께 보고 드리는 그는 순결한 량심의 인간이다.

작품은 수령에 대한 그의 충실성이 정직성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는것을 밝히는데 모를 박고 있다. 정직성과 솔직성, 이것은 정준택의 개성을 이룬다.

소설에는 어느 날 이른 아침 정준택이 위대한 수령님을 기다리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다.

국가계획위원회가 제기한 계획조절안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시 검토할데 대한 의견을 주시였으나 정준택은 의연히 계획을 조절할것을 제기하려고 하는것이다.

조선의 원조로 건설하게 된 홍남비료공장전망이 막연한것과 관련하여 비료생산계획을 수행할 방도를 정준택으로서는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사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못하고 무엄하게도 계획조절안을 그대로 제기한다는것은 범죄이며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미흡한 계획을 그대로 뒤두고 불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할수도 없는것이였다.

과학적인 담보가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령님께 거짓말을 한다는것은 정준택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것이다.

(수령님을 만나뵙자! 설사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것이라 해도 그이께 솔직히 말씀 드리고 결론 받자.)

아버이수령님께 걱정되는 보고를 드리는 때가 가장 피로운 순간이지만 결코 자신의 피로움과 고통을 덜기 위해 그런 순간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 정준택, 여기에 충신으로서의 그의 개성이 있다는것을 작품은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

우리 나라 초대화학건재공업상이였던 백홍건, 그는 투신력이 있는 정력적인 일꾼이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의 뜻을 받들줄 아는 인간, 백홍건은 이런 성격이다.

성격이 결결하고 호방하면서도 배짱이 있는 강선제강소 기사장 리웅천, 그는 언제나 로동계급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주저와 동요가 없이 복구

건설을 내미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정신의 소유자이다.

리웅천은 정준택과 함께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 우리 당의 핵심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소설은 충신들의 개성적인 성격을 깊이 있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만 주체의 신념을 지닌 시대의 전형이 자라난다는 생활의 진리, 운명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밝히면서 그들이 바로 온갖 병균에 오염되지 않은 사회주의거목의 억센 뿌리라는것을 예술적으로 밝히고 있다.

작품은 전후복구건설에서 주체적립장에 서는가, 사대주의에 빠지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에 맞게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생활과 세부를 그리고 있다. 그것은 곧 사회주의거목의 뿌리를 마련하는 과정- 전후복구건설이 사상분야에서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는것이때문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복구건설을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가 아니면 외국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가 하는 작품의 기본문제가 예리하게 드러난다.

즉 강선제강소복구에서 제기되는 설비들을 수입하겠는가 아니면 로동계급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겠는가, 홍남비료공장복구를 쏘련이 원조하기로 한 질안비료공장에 기대를 거는가 아니면 자기의 힘, 자기의 자원에 의거한 류안비료공장을 건설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초점으로 된다.

이로부터 각이한 인물들의 사상적립장과 태도가 예리하게 드러나면서 사건이 심화되고 줄거리가 뻗어 나간다.

작품에서는 크게 두 인물집단, 자기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복구건설을 진행하여 나가는 참된 충신들과 외국의 원조에 대한 환상에 사로 잡혀 인민의 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이 설정된다.

두 인물집단은 처음부터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두고 병행적으로 대립되어 나가다가 점차 심화된다. 여기서 작품은 성격대조, 생활대조, 세부대조의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걸치레를 모르는 진심과 청렴결백성으로 오직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하며 그 길에서 기쁨과 피로움을 느끼는 정준택과 야심, 권세욕에 눈이 어두워 탄꿈을 꾸는 최일만은 사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대립된다.

중공업성 부상으로 있을 때나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최일만은 당의 로선과 방침이 해체되기만 하면 그것이 쏘련에서 하는것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부터 따져 보면서 덮어 놓고 의문시한다.

외국의 원조만을 절대시하면서 우리 힘으로 복구건설을 하는것을 부정해나선 그는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꿈 꾸며 자기 힘으로 공장을 복구하는 《반쏘분지》들을 《숙청》하기 위해 음흉한 음모

까지 꾸미는 비렬하고 악랄한 인간추물이다.

이처럼 작품은 국가경제관리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두 인물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해 자기 수령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일하는 사람은 충신으로서 사회주의라는 거목을 자래우는 역센 뿌리로 될수 있지만 민족의 넋을 잃고 큰 나라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종당에는 자기 수령도 조국과 인민도 모르는 간신으로 전락되어 헤어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다는것을 심각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한운호와 그의 누이동생 옥산의 성격도 대조적으로 그리면서 생활의 교훈을 밝혀 나가고 있다.

그들은 한피줄을 이은 남매라고는 도저히 볼수 없리만큼 생김새와 외모부터 판이하다.

한운호는 국가계획위원회 중공업담당국장이었다. 쾌활하고 싱싱하며 랑만적인 동생과 달리 한운호는 성격이 칼칼하고 내성적이며 무미건조한 사람이다. 《계획은 곧 바란스과학이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그는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타산된 계획작성만을 주장한다. 그는 인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의것만 쳐다보면서 종파사대주의자들에게 아부아침하던 나머지 당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

자기 인민의 힘을 보지 못하고 신념이 없으면 혁명의 길에서 락오자가 되고 만다는것이 그의 형상을 통해 밝히려고 한 심각한 생활의 교훈이다.

옥산이는 오빠와 다르다.

리지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그는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 조국이란 무엇이고 참된 사랑이란 어떤것인지 깨달으며 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것인지, 그 힘으로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안아오시는 우리 수령님은 얼마나 위대한분이신지 온몸, 온 심장으로 절감하는 인물이다.

벽찬 복구건설의 나날에 주체의 진리를 체득하면서 성장하는 인물로서 위대한 대양은 폐허속에서도 거목의 뿌리를 심고 역세게 자래온다는 심

오한 진리를 확인하는데 그의 형상적묘이 있다.

작품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특징 지을수 있는 인상적인 생활장면과 세부들도 대조의 수법으로 그리고 있다.

어렵고 곤란하지만 티없이 깨끗하고 랑만적인 강선로동계급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장면과 사치와 허영에 찬 반당종파분자 최일만의 리면생활을 보여 주는 장면, 조국애에 불 타는 신철의 《조약돌》과 개인의 영달과 향락을 추구하는 최일만의 딸의 가슴에서 빛을 뿌리는 《보석쁘로찌》, 정준택의 퇴색되고 낡아 빠진 만년필과 한운호가 즐겨 피우는 《까즈베크》담배 등은 대조적으로 묘사되면서 작품의 사상주제적 과제해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설은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사회주의거목의 뿌리가 어떻게 폐허속에서 마련되었는가를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다.

×

1950년대 전후복구건설의 그 나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왔다. 그러나 전후 재더미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 세운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빛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한 시련을 이겨 내고 강성대국을 향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1950년대와 같은 시련의 길, 고난의 길이다.

이러한 현실은 재더미우에서 허리띠를 조이고 전후복구건설을 벌리던 그때 그 정신으로 살며 일할것을 요구한다.

장편소설 《번영의 길》은 전후복구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동깊게 형상함으로써 그 나날에 이룩된 귀중한 진리와 교훈을 통해 시대의 이 물음에 대답을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 폐허속에 뿌리 내린 거목은 창공높이 푸른 아지를 펼치며 역세게 자라리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혁명시가

《조선의 노래》

《꽃 피는 처녀》

《사향가》

《조선인민혁명군》 주체23(1934)년

《반일전가》

《피바다가》

《가련한 신세》

《<토벌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주체25(1936)년

《모향산 가을 날에》 주체68(1979)년 10월

《광명성찬가》 주체81(1992)년 2월 16일



## 나는 사랑으로 함께 간다

홍현양

외로움 모르는 나에게  
때없이 찾아 오는 생각이 있어라  
나에게는 죽지 않는 삶의 길이 있다  
버림 받는 운명을 모르는  
나에게는 피가 뛰는 생명이 있다

그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이  
홀로 원고지우에 글을 쓸 때도  
내 곁에서 전등불을 낮추 드리워 주는  
다심한 어머니가 있어  
그 물기어린 눈빛을 목이 메어 우러른다

어찌하여  
내 삶의 길엔 끝이 없는가  
고향집 굴뚝모서리  
파리가 빨강게 익던 트랙에  
내 남긴 생의 첫 자욱처럼  
내 오늘도 가는 길은 푸르다

한번 떠난 생의 그 걸음  
쓰러질줄 모르는것은  
나에게 죽지 않는 생명이 있기때문  
그 불꽃 뛰는 심장이 있어  
어머니의 치마자락 붙잡던 그 시절처럼  
나는 사랑과 함께 간다

내 가슴속  
심장에 간직된 붉은 당원증이며  
수령님 헤치신 피 젖은 광야가  
눈물겹게 어려 있어

억천만번 죽더라도 싸워 이긴  
그 생명을 나에게 준 붉은 피방울이며

방울방울 그 붉은 피줄기를  
높뛰는 숨결로 생명으로 주신  
아버이수령님  
그 사랑과 함께 나는 산다  
조선로동당  
다심한 그 어머니와 함께 나는 간다

그 사랑은  
나의 죽지 않는 삶  
그 사랑은  
버림 받는 운명을 모르는 나의 생명  
고향집트락에 찍은  
그 자욱 그 걸음으로  
억천만번 죽더라도 나는 걷는다

만약 나에게  
아버이수령님 주신  
백두의 그 생명이 없었다면  
아, 세상은 나를 버리었으리  
거지처럼  
동양의 쪽박을 차고 나섰으리

나는 서러움을 모른다  
나는 아린 눈물을 모른다  
사랑과 함께 가는 내 운명은  
인생의 먼 길을 쉬지 않고 간다  
아, 인생의 해빛만을 알고 산다!

## 이 땅은 무엇으로 젊어 지는가

량덕모

푸른 하늘가에 땅이 닿고  
푸른 땅이 하늘가에 닿은  
연백벌 연백벌  
내 어디부터 걸으면  
변모된 새 모습을 노래에 다 담으랴

저 등말기에 올라  
눈뿌리 아득히 지경이 열린  
멋들어 진 포전들을 한가슴에 안아 불가  
춤 추듯 미끄러져 가는 기계들  
흥에 뜬 그 동음에 생각을 얹어 불가

시원히 허리 편 물길  
도란거리는 논물과도 속삭여 보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강남 갔다 온 사이 달라진 벌끝으로  
제비들도 멧에 겨워 이리저리 날으는구나

보이는것 들리는것 모두 꿈만 같아  
성큼 떼지 못하는 발길  
잠시도 쉴지를 말아  
끝없이 이끄는 별바람소리는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자락 날리는 소린 아닌가

아, 고지의 흙이 묻은 자욱으로  
그이 걸어 오신 두렁길은 어디나  
토지정리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 이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며  
차거운 대기에 날리시던 그 입김  
저 흙발마다 열기로 흐르는듯

가꾸는 농민보다 더 깊이 정을 묻으시며  
이 땅을 제일 많이 걸으신 그이 자욱자욱  
내 한걸음조차 흙으로만 밟을수 없구나

저 멀리 강원땅, 평북땅, 황해남도의 이 옥토라  
사회주의청춘대지로

새 세기와 마주 웃는 조선의 땅이여!

네가 말해 주는구나  
넓어 진 벌 좁아 진 이 땅에 펼쳐 진것은  
넋을 주시고  
심장을 다 주신  
장군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라고

목 메이는 고마움을 노래하며  
이 나라의 벌과 벌은 다 밟을수 있으련만  
내 한생 걷고  
대를 이어 후손들이 떠나 걸어도  
절세의 애국자 우리 장군님의 높으신 뜻  
아, 그 한끝에는 닿지 못하겠구나!

## 우리의 불은 뜨겁습니다

전승일

우리가 추켜 든 불은  
눈물을 흠치던 주먹에서 불 붙여 진것입니다  
뜨거운 갈망에 불 붙고  
입술을 옥물던 맹세에 불 붙여 진것입니다

이 불은  
파악 다시 조이던 허리띠에 불 붙고  
눈보라길에 얼어 불던  
그 흙마대에 불 붙여 진것입니다  
빈 쌀바가지를 들고  
떨리던 녀인들의 손에서 불 붙여 진것입니다

이 불은  
꺼져 가는 로를 불안고  
자기 집 울바자를 뿔아 들던  
그 억대우 사나이들의 눈동자에 불 붙여  
진것입니  
다  
쇠장대를 비껴 들고 맹호처럼 날아 들던  
그 땀 젖은 옷자락들에 불 붙여 진것입니다

불은 라남의 주먹 주먹들이 추겨 들었다만  
오 불은 장군님 심장에서 불 붙여 진것입니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움켜 쥐시던 그 주먹에서  
철령을 헤쳐 넘으시던 그 눈보라길에서  
이미 섬섬히 번개를 일으킨 불입니다

세상은 다 모를것입니다

우리의 불이 무엇을 태우고  
우리의 불이 무엇을 끓이며  
무엇을 소리쳐 일어 서게 하는가를

이 불은  
힘겹게 또 힘겹게 지켜 낸 붉은기가  
불새처럼 대공을 헤가르며 일어 서는것입니다  
우리가 지켜 낸 장군님의 진리가  
만리우주에 뢰성을 더치는것입니다

이 불은  
눈비에도 젖지 않고  
폭풍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은 새 세기 백년세월을  
불덩어리세월로 지동치게 할것입니다

서리서리 일어 든 분렬의 장벽을 녹이고  
제국주의아성을 휘감으며  
이 불은 노도쳐 갈것입니다  
드넓은 이 행성우에  
강성대국의 금빛노을을 펼쳐 놓을것입니다

오 열도도 위력도 크기도  
무한대한 우리의 불  
우리의 불은 뜨겁습니다  
새 세기는 우리가 추켜 든 이 불로 하여  
붉은 세기로 찬연히 빛날것입니다

## 봄의 고향

리수복

인생중의 인생은 창조를 아는 인생이라 일러왔다. 과학자들이 참인생을 산다는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 인생의 무게는 조국의 강성대국건설에 바쳐 온 창조의 열매만이 주는 것이었다.

인생의 그 무게는 과학자의 뜻에 따라서 옳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뜻이 높은 과학자라고 하여 그 인생마다에 창조의 봄과 가을을 다 불러 올수 있는것은 아니었다.

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세포공학연구실 실장이었던 《김일성훈장》수훈자 유숙근은 인민과학자이고 로력영웅이며 제5기부터 제9기까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었다.

후보원사이며 교수, 의학박사인 유숙근은 여든살로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청년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성심성의 지도하며 생물공학분야의 최첨단과학기술연구과제를 성과적으로 완성해 왔다.

우리 수령님께서와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하신 이 녀성과학자의 탐구의 첫 걸음이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선택으로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열살에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인 막내동생이 고고성조차 터쳐 못 본채 부엌봉당의 거적우에서 숨지는것을 보면서도 목 놓아 울지도 못했던 유숙근.

태여날적부터 한쪽눈이 완전히 실명된후로 다 른 한쪽눈마저 제대로 볼수 없었던 어머니를 모시고 두 동생까지 부양해야 했던 그 당시 유숙근의 유일한 소망은 가족을 굶겨 죽이지 않을만 한 직업을 얻는것이였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고는 꿈조차 꾸어 볼수 없었던 평범한 녀성을 걸음걸음 손 잡아 이끌어 인간으로서, 과학자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행복과 영광을 최상의 높이에서 안겨 주신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진정 대를 두고 전해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의학과학자 유숙근에 대하여 뜻 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내가 왜 그 동무를 사랑하고 아끼는가 하면 그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녀성의 몸으로 일구월심 우리의 소원을 풀기 위해 그처럼 애 썼기때문입니다.

내 한생에 품어 온 소원은 우리 인민들모두가

않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서 락을 보도록 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날 천대와 구박속에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아 오다가 오늘은 난생 처음으로 좋은 세상을 만나 사람대접을 받으면서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홍역이요, 토질병이요, 무슨 전염병이요 하는 병에 걸려 좋은 세상에서 마음껏 오래 살아 보지 못한다면 그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온갖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시키는것도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날 이때까지 애써왔는데 그 녀성의학과과학자나의 이 소원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녀성의학과과학자의 공적을 어떻게 공학이나 농학에서 무슨 문제를 발명한것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그 동무야말로 진짜 애국자이며 우리 나라의 보배과학자입니다.》

처음 이 글은 과학탐구에 묵묵히 한생을 바쳐온 한 녀성의학과과학자의 성실한 노력의 갈피갈피에 력연한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펼쳐 보려는 것이 필자의 의도였다. 그러나 취재과정은 그 의도를 자연스럽게 밀어 버리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다함없는 태양의 열광에 대하여 절절히 그리는것이 이 글의 참다운 사명인 동시에 유일한 생명력으로 된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유숙근박사만이 아닌 우리 나라 의학미생물학분야의 개척자의 한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 유일준, 이들 부녀의 성장의 자취를 더듬어 본다면 우리는 자연 세기적인 암흑의 심연을 영원히 가셔준 태양의 은혜로움에 대하여 심장으로 감득하게 될것이다.

봄의 고향을 환호할것이다.

## 순장된 삶

큰 피로움이 작은 피로움을 부러워 하고 더욱 큰 피로움이 그우에 쌓이고 덧쌓여 가던 시절이였다.

어느해 봄, 경기도 안성군 안성면 서리의 한 초가집에서는 한 소년이 삿잡문을 밀고 나와 서 울쪽을 바라보며 타박타박 걸기 시작하였다.

이마에 땀발이 솟아 오르도록 부지런히 걸던 소년은 고향마을의 마지막지경인 산굽인돌이에

이르자 길옆의 평퍼짐한 바위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멀리 보라빛 안개속에 묻힌 고향마을이 보인다.

《장돌뱅이》로 떠돌아 다니며 다섯식구의 생명을 실낱같이 이어 대는 아버지가 집을 떠난지는 벌써 한달이 넘었다. 풀범벅에 뽕수 한사발씩 곁들여 어뜩새벽에 조반을 치러 준 어머니는 먹을 만 한 풀을 찾아 앞산기슭을 헤맨지 벌써 오래다. 열살도 못된 두 동생이 마른 풀뭉치를 굽어 빨감을 마련하느라 애 쓰는 가공한 그 모습이 눈에 삼삼하다.

그 처량한 모습들과 영영 헤어져 서울바닥을 밟을것을 결심하고 집을 나선 소년, 그는 불을 타고 흘러 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그만 건잡지 못하였다.

소년의 나이는 열세살, 그가 바로 후날의 유숙근의 아버지 유일준이다.

아직은 기억할수 없는 앞길을 두고 부모형제도 모르게 고향을 떠나는 어린 그의 걸음은 더없이 무거웠고 걸음걸음 눈물이 고이였다.

유일준이 서른여섯살의 아까운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것은 20세기 초엽이였다.

그러나 21세기가 밝아 온 오늘도 세계의학미생물학계는 그의 탐구의 열매를 가지 있는 과학적 밀천들중의 하나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활용하고 귀중한 과학유산으로 후대들에게 물려 주고 있다.

망국민의 아들- 떠살이별이군의 아들 유일준이 어떻게 도이칠란트의 한 종합대학을 졸업하면서 백점만점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였는지...

그를 《황국신민화》하여 《야마도족》으로 귀화시켜 보려고 온갖 위협공갈과 회유를 집요하게 들이 대던 일제관원들과 어용매문가들, 사이비의 학미생물학자들까지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수 없었던 전도유망한 인재 유일준!

그가 무엇때문에 혈육들과 친지들사이에서는 《걱정 대장》, 《우울증증환자》로 불리웠고 인생에서도 탐구에서도 황금시절이라고 보는 30대 후반에 한강에서 익사하게 되였는지...

유숙근박사의 어머니인 홍혜순녀성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물려 준 남편 유일준의 수첩엔 이런 글이 씌여 있다.

인생의 봄은 어디에

나는 망국민  
인간의 조건 깡그리 빼앗긴 자  
희망은 망울진 채 어깨엔 호주의 명에  
빠스퍼르 뉴턴 노벨 에디슨  
꿈결에도 그 뜻이 사무쳐 오건만  
내 이름은

《망국노》 《팔리 운 놈》

짓밟혀 다시 짓밟혀  
저세상 넘보기 그 몇번  
허나 뜻이어  
저 세상 간대도 내 심장 고동치게 할 뜻이어  
뜻에 살며 뜻에 울고 뜻에 웃는  
나는 뜻에 미친 자  
아, 봄의 고향 그리는 내 인생아

만국의 뜻 높은 류학생들이 모여 든 이국땅에서 《당내의 재사》로 공인되어 《가장 전도가 촉망되는 동양인수재》로 불리웠던 유일준이 세상과 자기자신에게 흐느끼며 터쳐 놓았던 이 웨침.

그속엔 그의 파란많은 인생의 피눈물로 얼룩진 자욱자욱이 함축되어 있다.

그 갈피갈피의 큰 폐지들만 펼쳐 나가며 그가 세웠던 뜻이 무엇이며 왜 그의 걸음걸음에 자욱마다 피눈물이 고였는지, 과학의 세계로 날아 오르려던 그 억센 나래를 무참히 꺾이운채 왜 그리도 일찌기 저세상사람이 되어 버렸는지를 거의 100년전의 그날로 거슬러 그와 함께 걸어 가며 보기로 하자.

걸음마를 땔 때부터 《신동이》소리를 들으며 자란 유일준이었으나 열두살이 되도록 마을의 글방에 제대로 다니는 행운도 지니지 못하였다. 글방에 바치는 낱알과 돈을 댈수 없었던 까닭이다.

손바닥만 한 고향마을에서 더는 숨 쉴수 없었던 소년은 부모 몰래라도 서울로 가보기로 작정했던것이다.

그가 꿈마다 와보군 한 선망의 땅이였건만 《한일합병》을 한해 앞둔 한산하기 그지 없는 서울은 소년을 너무나도 뽕뽕하게 맞아 주었다.

《등대》없는 대양에서 방황하는 《난파선》을 찾아 린근 고을들과 서울장안을 헤맨 아버지가 아사지경에 이른 아들- 일준을 다리밑에서 부둥켜안았을 때는 눈썹이 허공을 콕 메운 초겨울이였다.

문자 그대로 퍼골이 상점한 아들의 물골을 쓸 어만지면서도 눈물 한방울 없던 아버지였으나 일준의 품속에서 굴러 떨어 지는 학습장 한편과 모지라진 연필꽂다리뭉음을 보고서는 그만 《으어허-》하는 이름 못할 고향소리를 내지르며 황소울음을 터뜨리였다.

아버지를 쳐다볼 기운조차 없는 아들이 그래가지고도 서울바닥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개를 외로 꼬자 아버지는 천천히 선언했다.

《일준아, 너 여기서 이러단 죽는다. 집에 가서 몸을 취세운 다음에 아버지가 너를 서울공부시켜 준다.》

행상지계우에 일준을 엮어 지고 돌아 오는 여

러날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없던 아버지는 일준을 어머니손에 맡긴후로 며칠동안 집에 들어 오지 않았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 온 날! 그날을 일준은 잊을수가 없었다.

《일준아! 너 장가를 들어야 서울공부를 할수가 있겠다. 너 장가 가지?》

유일준의 귀에는 《장가 가야 한다》는 말마디보다 《서울공부할수가 있겠다》는 말이 우뢰소리와 같이 크게, 번개빛과 같이 날카롭고도 명백하게 들려 왔다.

…처음 유씨는 린근 300여리아근에서 갑부로 인정하는 량반지주에게 빚을 내려 갔었다. 《유각쟁이》, 《유돌맹이》, 《바늘끝을 박아도 피가 안나올 사람》으로 불리우며 뿔건 주먹 하나로 다섯식구를 근근히 먹여 살리면서도 그 누구에게나 호락호락 수그러 드는 법도 없는 유일준의 아버지를 그 지주는 레의를 갖추어 맞았다.

용건을 다 듣고 나서도 한식경이 지나도록 장죽에 담배만 다져 넣었다 털어 놓았다 하던 지주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기와 사돈을 맺자고… 그 지주에게 딸자식이 없음을 번연히 아는 유씨가 눈을 치뜨고 건너다보자 그는 말꼬리를 달았다.

《아- 나에게 조카딸이 있지 않나.》하고.

《뭐요?!》

일준의 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이가 그렇게 우인 그 처녀와 어떻게? 그것도…》

《아?! 병신이라서 그러냐?! 그러니까 자네와 사돈을 청하는것이지…》

지주의 눈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그것을 입밖에 내어 말하기까지 하는 유씨를 오히려 불쌍하고 가련해 하는 빛이 력연하였다.

유일준을 가르친 서당훈장이 그 지주의 단골식객이었던 까닭에 지주는 유일준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서당훈장의 말대로 삼남을 다 뒤쳐도 찾기 힘든 수재라면야 뒤를 델만도 하지 않는가?!

《결혼》, 《사돈》의 그물이 아니면 결코 제것으로 만들수 없는 유일준이다.

…그래도 처음 팔려 갈 때는 그 자신이 팔리운다는것을 알기는 하고 팔려 갔다. 그러나 두번째로 또 팔리운 그때는 유일준자신도 모르게 팔리우는 비극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준이 도이츨란드에서 참담한 배움의 하루하루를 이어 가고 있을 때 고국땅을 휩쓴 전염병은 그의 첫 안해와 아들을 한날한시에 빼앗아 갔다.

일준에게 다문 얼마씩이라도 보내주던 학비를 더는 보낼수 없게 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옛 《장인》인 그 지주는 의논을 거듭하였다.

당시 삼남에서 호경기를 이루던 정미업에 날쌔

게 손을 대어 일정한 돈을 권 사람에게 나이 찬 딸이 있었다. 처녀가 착실했다. 그 정미업자와 먼 인척간이었던 《장인》은 이제까지 유일준의 학비를 내느라 들인 돈을 되뿔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서양물까지 먹고 이제는 조선안에서 몇손가락 안에 드는 인재 유일준을 그냥 놓칠수는 없다. 그 정미업자녀석에게는 과분한 사위감을 소개하는 대가로 정미소공동경영권을 내 손에 넣도록 해야 하겠다. 여기에 일준의 애비도 끌어 넣어야 일준이 그 녀석이 었다가지 았을테지…)

그렇게 되어 유일준은 두번 다시 팔리웠다.

국적을 도이츨란드로 고치고 함께 연구사업을 하자고 설유하는 종합대학 교수의 권고를 마다하고 유일준이 일본땅에 들어 섰다.

고국으로의 귀국이 실현되지 았았던것이다. 《식민지우민화》정책의 실천적산물로 현대교육을 받은 인재는 일본땅에 억류되어 《두뇌진노예》로 다시 팔리우는것이 웅당한 신세로 취급되고 았었던것이다.

일본의 어느 한 대학의 미생물교실(강좌) 교원으로 취직이 된 유일준은 옛 스승의 소개로 한 일본인교수를 알게 되었다. 그 역시 열을 내어 권유했다. 《귀화하라. 일본땅이야말로 수재인 당신의 활무대로 될것이다.》

그러나 가난하고 업수임 당하다 못해 끝내는 왜놈에게 먹혀 버린 피에 젖은 고국을 쓸어 만지고 기어이 안아 일으키고 싶은 열망 하나로 이국의 하늘아래서 배움의 갈증을 덜며 밤을 꿰워 온 유일준이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고국에 돌아 갈수 있는 길을 탐색하자!) 일준은 이를 사려 물었다. 유일준의 피 타는 노력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 오는데 성공하게 하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원의 일자리를 잡은 유일준은 부모처자를 만나보려고 안성으로 갔다. 안성땅에 들어 서서 자기가 다시금 《팔리운 몸》이 된것을 안 유일준은 행상걸음을 떠난 아버지앞으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기였다.

《…언제나 고마우신 아버지!

그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여났건, 고명한 스승을 모실만 한 행운이 있건 없건, 알맞는 배우자를 선택할 처지가 되건 안되건, 자식을 교육하고 재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수 있는 처지에 이르렀던 이르지 못했건간에 초보적인 인간의 조건을 보장해 주고 더우기 그가 나라와 민족에 인재되는 사람이라면 하늘같이 귀히 여기고 보살펴 자래워 주는 제 나라가 없는한 아버지나 저는 결코 그 저주로운 황금의 사슬에서 벗어 날수가 없고 눈물의 바다에서 헤여날 길이 없습니다.…》

…힘겹게도 취직이 된 의학전문학교에서의 10년간.

그곳에서 유일준은 동화 《못 생긴 오리》의 주인공이 겪던 피로움 같은것에도 비할수 없는 고통을 이겨 내야 하였다.

일제의 혹독한 식민지민족차별이 극도에 달하였고 그것으로 하여 수시로 터져 나오는 울분은 유일준을 숨 쉬기도 힘겹게 하였다.

고국땅에는 유일준이 지향하는 탐구의 세계에서 마음껏 활보해 볼만 한 연구소가 아직은 생겨나지조차 못한 때였으므로 의학전문학교의 실험실도 그에게겐 무한히 소중한였다.

어느 날 왜놈들은 전염성이 농후하여 그 누구도 손을 대려 하지 않는 실험 몇건을 《의뢰》의 명목으로 유일준에게 강요하였다. 그 내막을 알리 없는 유일준이었다.

일본인교장은 《유군의 신묘한 수기》를 믿는다고 등을 두드려 주며 삶의 웃음을 지었다. 유일준이 그야말로 《귀신이 왔다가 울고 갈 솜씨》로 초고정밀도의 정확한 수치를 얻어 냈을 때 왜놈교장은 《유군의 그 정신적인내력에는 하느님도 감탄할것이다》고 뇌까리며 다시한번 삶의 웃음을 보내주었다.

그래도 그것이 탐구의 길에서 얻은 하나의 귀중한 열매로 되리라는 과학도다운 순진성으로 희열속에 땀을 들이고 있는 유일준에게 땀수 한고뿌를 떠다 준 조선인 심부름군의 말은 그를 미칠듯 한 비분의 소용돌이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관례로 조선인교원들은 단 한번도 참가시키는 법이 없는 《교원, 간사모임》이라는데서 것처럼 중요한 실험에 《조센진》을 왜 참가시키는가고 항변하는자가 있었다 한다.

그자에게 교장은 《<조센진>다 감염되어도 좋다. 성공하면 열매는 <대일본제국>의것이고 그자가 죽으면 또 다른 <조센진> 많다. 제국에 통채로 팔리운 <조선>, <조센진>은 다 일본의 <속국>이고 일본인의 <노예>인것이다.》라고 태연히 뇌까렸다는것이다.

(아! 나는 도대체 인간인가, 사유하는 모르모트인가, 조국을 빼앗긴 나에겐 인생의 봄도 고향도 없었다. 내 삶의 유일한 지평점인 탐구의 세계까지 왜놈의것이었던 말인가?!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은 이 세상에 기여이 살아 있어야 하겠다고 뼈와 살을 깎던 이 세계가 아-)

링빈 교실에서 홀로 래질해야 하는 그에게도 이첼란드루학시절의 전우 한사람이 찾아 왔다. 고뇌에 찬 눈길로 그의 얼굴을 더듬던 유일준은 한강에 나가자고 하였다. 강물속에 발을 잠그고 앉은 유일준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려니 전우의 손목을 짊 그러쥐며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의 삶도 과연 인간의 삶이라고 볼수가 있나? 아니네. 이젠 말 그대로 순장된 땅에서의 순장된 삶일세. 나라를 빼앗긴 지식인인

나를 왜놈들은 어떻게 취급을 하나?! 음? 배양기안의 미생물이나 실험대우의 세균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내가 저 모르모트나 마우스보다 나은게 그래 무엇이란 말인가?!》

비통한 목소리로 유일준은 계속했다.

유일준이 매사에서 원칙을 지키면 그자들은 《자고자대》한다, 《고집통》이라고 비웃었다. 유일준의 아량과 도량은 《희협계 논다》로 되었다. 유일준의 공명정대성은 그자들에게 《천치성》으로 모멸 당했다. 유일준의 고민은 그자들의 조롱거리였다. 유일준의 결단성은 그들에게 《경솔성》으로 치부되었다. 유일준의 활동력은 《발광증》이나 《경망증》으로 취급되기가 일쑤였다. 그의 참을성은 《비굴》과 《순종》의 감투를 써야 했다. 그리고 그의 신중성은 《우유부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세상만사가 다 이렇게 거꾸로만 되어 가는것이라고 자넨 생각하나?! 그건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이 된 탓일세? 아! 도대체 왜놈들이 우리 조선보다 뭐가 우세하단 말인가? 력사가 유구한가, 문화가 찬란한가. 아닐세. 왜놈들이 우리보다 우세하다면 그건 <명치유신>이후로 진흥한 산업의 덕으로 황금광이 되려고 꿈틀거리는 그것뿐일세!

과연 언제 가야 우리 민족은 제 나라를 다시 찾고 인생다운 인생의 봄꽃을 피워 주는 해빛을 이 가슴에 안아 보겠나? 응?!》

친우의 침묵이 더욱 숨 막혔던지 유일준이 침통하게 말을 이었다.

《자- 그럼 물속에라도 뛰여 들어 머리를 식히며 한순간만이라도 시름을 잊어 보세! 강물속엔 아마 왜놈들의 압제의 사슬도 올라미도 없을것일세! <돼지가 되여 즐기는것보다 인간이 되여 슬퍼하고 싶다>고 한 쏘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되누만. 어두운 세상에 시달리는 자네를 보니까...》

이글거리는 눈동자에 평온한 빛을 담으려고 강잉하게 애 쓰는것이 알리였다.

그 다음날 한 신문에는 유일준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실리였다.

그의 죽음을 생리적인 심장마비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것이 당시 진보적인 학자들의 일치한 견해였다....

거대한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산줄기는 그래도 몇몇번 봄이 오가면 재더미를 털고 일어 나 파아란 새옷을 펼쳐 입고 다시 피여 난 그 거대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식민지민족의 멍에속에 안타까이 몸부림치다말다 숨진 유일준은 분명 가슴에 재를 안고 갔다.

《절름발이에 소경이라도 된다. 나는 나와 동등한 처지의 너성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유일준이 인생 처음으로 뜻도 마음도 하나로 이어 저 세번째로 맞은

홍혜순녀성이 바로 유숙근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 영생의 몸

주체59(1970)년 5월 어느 날 썰녘이었다.

지새여 가는 봄밤의 한껏 무르녹은 달빛은 그 빛이 가닿은 곳곳에 자연의 순결한 아름다움으로 고요로 이어진 사색의 바다를 끝없이 펼치고 있었다. 자연이 그 웅건함, 불가항력적인 힘을 뚜렷이 펼치며 새날을 불러 오는 그 시각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우리 장군님께서 온밤 한 녀성의학과 학자의 운명문제를 놓고 지새우시며 이 새벽을 맞으시었다.

어떻게 되어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범한 녀성과학자인 유숙근에 대한 자료를 놓고 그토록 마음을 쓰시었던 것인가!

이야기는 그 잊을수 없는 봄밤으로부터 두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겨울밤이었다.

평양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자정이 가까와 오도록 유숙근에 대한 놀라운 자료를 읽고 또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었다.

...미생물연구소 홍역연구실장 유숙근은 《숙청대상》이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홍역예방약을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무서운 전염병의 마수로부터 벗어 날수 있게 한연구집단의 실장으로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진 유숙근의 《숙청대상》으로 둔갑한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실장의 심중한 고려끝에 시당의 책임일군은 이 사실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직접 보고 드리였다. 그 자료를 깊이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당책임일군의 보고를 받으시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될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 일군을 곧 가까이로 불러 주시었다. 그때 자정이 켜 넘은 시간인데다 시름 많은 자료를 안고 온것으로 하여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해 하는 그 일군을 안심시키며 그이께서는 이런 문제는 지체없이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한 평범한 연구사의 신상에 제기된 문제를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은 근엄하시었다.

그 《자료》라는것의 객관성과 정확성은 이제 확인하면 명백해 질것이지만 거기에 맥맥히 흐르는 인간자체에 대한 맹목한 불신과 편견은 인간성 자체에 대한 심한 모독이였다.

그 자체에서 그 어떤 불순한 기도를 꿰뚫어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문제를 가장 정확히 처리할수 있는 명확한 방도와 방안을 위대한 장군님과 구체적인 토론을 하시었던것이다.

...유숙근은 진정 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산

녀성이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후에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수 있었다. 《미군정정치》하에서 유숙근에게는 아버지 유일준의 일제통치하에서 겪어 온 설움이 불행하게도 그대로 《유전》되였다.

딸 영진을 낳은 유숙근은 그만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말았다. 어린것을 맡길 탁아소라는것은 꿈도 못 꾸는것은 물론 젖을 먹이는 짧은 시간마저 《흠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린것이 배고프다고 울면 《장님》으로 불리우던 어머니가 어린것을 업고 대학에 찾아 온다.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된 곳을 지켜 보며 초조해 하던 유숙근이 그곳으로 달려 간다. 어린것을 넘겨 받은 유숙근은 맨붕당에 꾸그리고 앉아 사위를 결눈질하며 불은 젖을 서둘러 몇모금 먹여 준다. 그리고는 황황히 실험실이나 강의실에 뛰어 가곤 한다. 어떤 때에는 어린것에게 《최대의 특혜》를 베풀어 그애를 안고 실험실에까지 스며 든다. 실험탁의 서랍을 뽑고 그안에 어린것을 눕힌채 실험수치를 측정하며 젖을 몇모금씩 먹인다.

남조선사회는 그의 지적능력이 효률을 내는 값죽은 《로동력》의 한 부분으로서만 유숙근을 필요에 의하여 리용하여 정력을 최대로 짜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이 해방되자 새 생활의 활로에 들어선 그는 용약 의용군에 탄원하였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후리후리한 키에 의용군복을 가튼하게 차려 입은 유숙근은 자신이 더는 《값싼 로동력》, 《두뇌진노예》도 아니며 조상대대로 《유전》되어 온 《황금울가미》에 매달린 《순장된 몸》이 아닌 몇몇한 군의임을 꿈같이 체험할수 있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를 때의 일이 어제런듯 생생하다.

일제시대나 《미군정정》 때에는 조선인교사들에게 언제 한번 만져 볼수도 없게 하던 중요실험기구들과 값 비싼 의료설비들만 골라서 실은 군용차에 유숙근은 가족과 다 함께 타고 가게 되였다. 열다섯살이 되기전부터 개인병원의 간병원으로 일한 어머니나 유숙근은 처음 그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여도 왜놈이나 양놈이나 다같이 《금덩어리》 《신주 모시듯》 하던 그 귀한것들을 실은 우에 자기의 가족모두를 태우고 가리라고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유숙근이였고 그의 어머니였다.

대오의 엄호를 맡은 《김일성장군빨찌산》출신의 날파람 있는 소좌는 차에 오르기 서슴어 하는 그들에게 뜨겁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귀한 실험기구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대책은 다 취했습니다. 혹시 멀고 험한 길에서 그것들이 일부 손상이 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만 살아 있으면 그런것은 또다

시 구해울수도 있고 만들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인재가 첫째이지요!》

《나라의 인재가 첫째이지요!》

태어나 처음 들어 보는 말이였다.

눈에 흠이 들어 간다고 한들 어찌 그 말을 잊을수가 있으랴!

그러나 유숙근과 그의 가족에게는 보다 더 놀랍고 고마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 왔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시련을 이겨 낸 그에게 소좌의 군사칭호가 수여되였다. 당조직은 유숙근에게 어느 한 진료소의 소장으로 일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 주었다. 조국이 불바다로 된 그때였으나 최고사령부에서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유숙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영광을 안겨 주었다. 전 전선에 걸쳐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싸우는 대학생들을 배움의 전당으로 부를 때에는 유숙근을 평양의학대학 교원으로 소환하는 크나큰 신임이 베풀어 졌다. 미제살인귀들의 악랄한 세균전을 파란시킴기 위한 강위력한 반세균전이 펼쳐 질 때에는 그를 그 의료진의 기둥으로 내세워 주었다. 전후 평양극장에서 첫 보건의료대회가 열리였을 때에는 유숙근을 주석단에 앉혀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해주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불비속에서 유숙근은 조선로동당원으로 성장하였다...

어린 시절 유숙근은 얼마나 불우한 소년였던가?! 동생을 업고 술집불단을 인채 산순검에게 쫓기위 산비탈을 굴면서도 앞썰에는 연필꽂다리가 매달린 공책을 안고 있던 유숙근을 두고 앞날의 남편될 사람인 김홍기는 말했었다.

《넌 정말 외로운 불씨로구나. 외롭더라도 불은 타올라야 해!》

쳐너지절.

네식구의 호주가 된 그, 《대학을 당장 그만 두라! <서자>인 주제에 그것도 제집애가 대학공부는 무슨 대학공부야?》하는 구박속에서도 《수석생》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유숙근, 그에게 김홍기는 언제나 뜨거운 눈빛으로 고무했었다.

《너는 정말 바위틈에서 자라나는 새싹처럼 자라는구나! 그래 새싹은 기어이 태양 가까이로, 태양을 향해 솟아 오르거야 말거야!》

과학탐구에 온념을 바치려는 하나의 뜻으로 이어진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뜨거운 마음을 한곳으로 쏟아 부었다.

결혼후, 힘겨운 시집살이와 세방살이, 교사생활의 갖가지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마음 쓰던 김홍기는 나날이 애처로이 시드는 안해를 지켜 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내 아마도 당신을 눈바람 세찬 광야에 홀로 피는 나리꽃신세로 만든것 같구려. 용서해 주오. 이렇게 살자고 결혼한건 아니었소!》

불을 토하듯 그 말을 쏟아 놓으며 두눈에서 푸

른 섬광을 날리던 남편은 새로운 결심을 다지였다.

《3일동안 집에 들어 오지 않으면 그리워 하던 곳으로 떠난줄 알라...》는 쪽지 한장을 남겨 놓고 김홍기는 38선을 넘어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리던 평양으로 갔었다. 유숙근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것은 주체39(1950)년 8월이였다. 정치공작대원으로 **김일성**종합대학교원, 학생들과 함께 서울에 도착한 남편은 3일후 또다시 전라도로 떠나갔다. 그때 남편은 활기 띤 안해- 유숙근을 지켜 보며 기쁨에 넘쳐 말했다.

《당신이나 나는 물론 우리 자식들까지도 창조하는 인간, 사색하는 인간을 보다 귀중히 여기는 영원한 봄의 고향에서 창조적능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됐소. 그 봄의 고향이 바로 우리의 **김일성**장군님의 파사로운 품이시오! 자- 머지 않아 승리의 날 우리 함께 손 잡고 창조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저 푸르른 창공으로 날아 보지요. 우리 함께 지혜와 정력을 합쳐 탐구의 고귀한 열매를 키워 갑시다. 그날을 위해 승리의 날 앞당기리니 기다려 주오.》

기쁨에 겨워 울고 있는 유숙근을 어린애마냥 품에 안고 김홍기는 서로 굳게 약속을 다짐했다.

그날에 다짐 약속을 마음속 기둥으로 삼고 유숙근은 어려운 전쟁의 나날에도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영영 해방하기 위한 어려운 싸움에 남 모르는 정력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 왔었다.

...한 녀성의학과학자의 신상에 닥쳐 온 심상치 않은 일을 헤아려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력한 료해집단을 친히 무어 파견하시여 진상을 까밝히도록 하여 주시였다. 드디어 오랜 시일에 걸친 료해결과를 위대한 수령님께와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 드리였다.

그때의 일을 두고 후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여러 부문 책임일군들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그 《의료사고》라는것은 몇몇 질투군들이 일부 편협한 사람들과 짜고 들어 꾸며 낸것이였습니다. 거기에다 국가재산낭비요, 경력이 모호하오 하는것들까지 덧붙여 놓았는데 우리가 알아 본대의 의하면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애어린 소년시절부터 한껏 키워 온 푸른 꿈이 화창한 봄을 맞아 이처럼 창공높이 솟구쳐 오를 줄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사실 유숙근의 꿈은 너무나도 소박했었다.

《소아과개업의》가 되여 어머니와 동생들을 봉양하려는것이 삶의 유일한 꿈이였다. 허지만 유숙근에게는 졸업과 함께 직업선택만이 아닌 결혼이라는 인생중대사가 피할 길 없었다.

봄이였다. 창가에는 은행나무가지에 부채모양의 귀여운 아기일사귀가 미풍에 살랑거리는 저녁



이다.

유숙근은 아버지의 친우이자 자신의 은사이기도 한 강좌장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다. 그들의 대화는 퍼그나 오래 계속된 모양 서로의 표정에는 지친 빛이 어리어 있다.

눈을 내려 깔고 무릎위에 놓인 두손을 꼭게 포개어 엮은 유숙근은 입을 꼭 다문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유숙근의 머리에는 스승이 목소리가 또렷이 되새겨 진다.

《…네 말대로 졸업후 소아과개원병원을 차린다고 가정하자. 빛을 내어 차린 병원이라고 하여도 그럭저럭 생계유지는 해내겠지! <명의>가 되면 명성도 트락이나 서울장안이야 올리겠지!

그렇지만 너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쟁에 비유해 말해 보자. <개업의>를 한사람의 보충수라고 한다면 미생물학자 한사람은 위력한 공병대군단에 비할수 없으리만큼 그 역할이 막강하지 않느냐?! 너의 아버지가 왜 미생물학에 한생을 바치자고 나섰는지는 그에 대하여 너도 깊이 생각해보았을게다.》…

스승의 말은 옳았다.

유숙근은 아버지가 리상한 모든것에 대하여 리해하고 신뢰한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추세를 예리한 안목으로 투시하여 온 유일준은 《개업의》를 희망조차 하지 않았었다.

대학졸업장을 간판으로 내걸고 개업한다면 돈을 벌어들여 근색한 살림살이처지에서 벗어 날 길이 열릴수 있음을 모르는 유일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뼈를 갈아서라도 고국에서는 아직 그 씨앗도 뿌려지지 않은 의학미생물학분야를 개척해 보려는것이 유일준의 뜻이었다.

한자루의 보병총이 아니라 위력한 《방역》의 대집단군으로 불쌍한 겨레를 병마의 침해로부터 지켜 내보자는 아버지의 뜻이 그 딸에게 리해되지 못할리가 없는것이다. 그러나 가혹한 현실앞에서 유숙근은 아버지의 그 고결한 뜻과 리상을 그대로 받아 들일수 없었다.

어머니는 지금 벽지에 집을 둔 보성중학교 학생 셋을 위한 《려인숙》을 《경영》하는 대가로 받는 보잘것 없는 쌀과 돈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샳빨래, 샳바느질, 샳그릇닦기… 갖은 잡역의 고역에서 얻어 진 푼돈일을 고름근에 매달았다가는 유숙근의 학비로 내주곤 한다.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천길절벽에 거꾸로 매달려 풀뿌리에 의지한채 사품치는 강물을 내려다 보며 절망에 찬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처지에 자신을 비유하였겠는가?!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가지가지의 설움과 고생에 부대끼우는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건져 내고 싶은 애절한 마음에 시달리는 유숙근이었다.

스승 역시 《수제자》의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아

픈 말을 앞세웠다.

참말 외형마저 그대로 아버지를 닮은 딸이었다. 공손하면서도 도고한,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처녀로 성장한 지우의 딸이었다. 그에게서는 너대학생의 위엄 있는 침착성이 풍겨 나와 주위의 공기마저 정화시키는듯 하다.

쭉 빠진 키에 가름한 얼굴, 탄력이 넘치는 몸매, 크림 한번 바르지 않은 흰 살결과 빛나는 검은 눈, 기름기 흐르는 검은 머리칼은 얼마나 조화롭게 어울리는가! 정말 서울장안의 이름난 미인들이 남 몰래 훑쳐 보며 부러워 한숨 짓는다는 뛰여 난 미모까지 가진 뛰여 난 수재가 아닌가! (너는 정말 인제다!)

유숙근의 솔직하고 의미심장한 몸짓과 눈빛은 허심하게 하소하고 있다.

《졸업하고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 이제는 제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말을 듣고 난 스승은 힘겹게도 입을 열었다.

《너의 과학연구를 뒤받침해 줄수 있는 유력한 배우자를 선택하는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너는 생각해 본적이 없느냐?! 내가 알고 있는 청년이 한 사람 있다. 그의 집은 조선안에서는 몇손가락안에 드는 갑부이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길만이… 너의 그 학구적인 두뇌가 오직 연구사업에만 전심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스승의 어조는 너무도 침중하였다.

어찌하여 생활까지 이다지도 《유전》되어 또다시 가슴 아픈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 더는 그 길을 다시 걸을수 없다.

유숙근은 스승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때로부터 6년후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써 그학으로 서울의 어느 한 대학에 다닌 열혈청년 김흥기와 결혼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때 유숙근은 스승의 다심한 권고대로 쓰라린 운명에 엮여 모든 불행을 이겨 낼 결심을 다지였다. 하여 유숙근은 서울녀자의과대학 미생물교실(강좌) 교사로 취직하여 급료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동경하던 의학미생물학세계와 인연을 맺기로 하였던것이다.

그때 유숙근이 《천하를 움직이려는자 우선 자기부터 움직여라》는 옛 성현들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지향을 바꾼것은 아니었다. 대학의 의학미생물학교사가 되면 급료로 어머니를 봉양해 드릴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스승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유숙근이었던것이다.

이렇듯 유숙근은 오직 가정의 생계유지에만 일심정력을 다하는 밥벌이군으로 고달픈 생활을 이어 가는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남편 김흥기만은 언제이든 과학자의 참다운 탐구의 세계를 펼쳐갈 패일을 그려 보았다.

…그가 평양으로 떠날 결심을 유숙근에게 털어

놓던 날 밤이었다.

《...내가 떠난후 술한 시집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몸을 풀면 자식도 키워야 하는 무거운 덧짐을 지게 되리라고 보오. 허지만 이대로만 살수 없으니 내 먼저 평양에 가서 자리를 잡겠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오. 고달프게 기다리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수 있소.

마음의 라침판과 등대는 어디에서 오가고 당신은 묻고 싶겠지?! 어렵고 힘겨울 때일수록 마음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야 하오.

...우리에게도 **김일성**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 마음껏 탐구의 세계를 헤쳐 갈 보람찬 인생의 넓음이 펼쳐 질거요.》

유숙근은 언제나 남편의 말을 마음속으로 깊이 되새기며 전쟁의 어려운 나날에도 과학탐구의 길을 헤쳐 나갔다.

더우기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께서 전쟁시기 전염병으로 인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깊이 심려하고 계신다는것은 알게 된 유숙근은 지혜와 정력만이 아닌 제 한몸 서슴없이 바쳐 갈 각오를 안고 전염병과의 어려운 싸움을 벌렸다.

지어 홍역예방약을 만들어 인체실험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도 유숙근은 자기의 가족친척들에게 먼저 그 주사를 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그 모든 사실을 일일이 료해하신후 몸소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 드리는 은정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던것이 다.

그 자료를 보아 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은정 깊은 말씀은 한생을 두고 유숙근의 심장에 굽이쳐 온 사랑의 샘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정력적인 탐구와 사색의 나날로 이어 진 유숙근의 남다른 수고를 일일이 헤아려 보시며 그 이후에도 일군들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뜻 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바로 그 연구사동무가 홍역을 예방하는 주사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 주사약을 1965년 9월에 만들었기때문에 우리가 《659-주》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

사실은 그의 이름을 달아 주려고 하였는데 전염병예방주사약에 사람의 이름을 달면 그 동무가 좋아 할것 같지 않아서 그만 두었다.

이렇게 그는 우리 인민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데서 큰 공을 세웠다...

...실로 유숙근은 자신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미처 다는 몰랐다. 날이 어둡도록 문헌연구에 골몰하고 있는데 연구소의 책임일군이 들어 왔다. 그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침 일찍 출근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나갔다.

다음날 아침, 유숙근은 새해를 경축하는 국가연회에서 자기가 어버이수령님께 첫 축배잔을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뜻 믿을수가 없었다!

...유숙근박사는 자기의 속생각을 그대로 털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과학자였다.

《홍역예방약은 물론 이외의 연구에서 거둔 성과는 모두가 우리 연구집단의 공동의 성과이다. 긴밀한 협동연구에 의한 긴장한 전투의 열매이다. 그럼에도 나에게 돌려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정은 앓는 자식에게 몇갈절 더 정을 쏟아 붓는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친부모의 정, 바로 그 뜨거운 정이었다!》

정말이지 유숙근이 모르고 받아 안은 사랑은 너무도 많았다.

1998년 4월 18일이였다. 유숙근박사는 전사한 남편 김흥기에게 수여된 《조국통일상》을 받아 안는 꿈 같은 영광에 접하게 되었다.

남편과 헤어진지 20년이 가까와 오던 때에 유숙근은 남편의 《애국렬사증》을 수여 받았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흘러 갔다. 흘러 간 나날 유숙근은 그가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그리워 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오랜세월의 이끼에 덮여 애 타던 갈망에도 단념과 망각이 깃들게 되었다.

하지만 반세기 되는 세월 전사의 자취와 숨결, 그 빛나는 위훈을 한자옥두자옥 힘겹게 훑아 가며 찾아 주시는 품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전사에 대한 사랑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동지애의 화원속에 **김일성** 종합대학 력사학교수였으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였던 애국렬사 김흥기는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영생의 언덕우에 높이 서 있는것이다.

전설 같은 사랑에 목이 매인 유숙근은 청춘시절에 다진 한마음으로 봄의 고향에 짙은 향기를 풍기려 수십년세월 하루같이 일심전력을 다해 왔던것이다.

80고령의 녀성의 몸으로 우리 나라 의학미생물 발전에 높은 탑을 쌓아 온 고결한 뜻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영원히 꽃 피나고 있다.

세월을 두고 그토록 갈구하던 봄의 고향에 뿌리내린 유숙근은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민족의 슬기를 떨치며 과학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설수 있었다. 그의 한생을 값높이 빛내여주시고 영생의 언덕우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정녕 태양의 품이였다.

유숙근은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첫 녀성의학과 학자이다.

## 젖줄기

최영화

생의 고마운 젖줄기여!  
갓난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젖을 빨며  
이슬방울 같은 두눈동자에 태어난 기쁨을  
반짝이듯-

갓 스물 한창나이에  
심장에 불이 일도록 살고 싶었어도  
차디찬 서리에 가랑잎처럼 시들어 가던  
나의 청춘을  
그 은혜로운 젖모금으로  
뜨겁게 되살려 준 당의 젖줄기여

당은 어머니에게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으로  
그 가슴에서 샘치듯 솟는 젖모금으로  
나에게 어떤 힘으로도 꺾을수 없는  
삶의 노래를 길러 주었거니

내 홀로 어느 처너림에서  
툼소리에 시상을 모을 때도  
때로 적도를 넘은 먼 남쪽끝  
어느 작은 섬에 가 있다 해도  
내 만일 잠시나마 당의 이 젖줄기를 놓친다면...

깊은 밤, 끓아 떨어 진 잠결에서조차  
내 만일 이 붉은 젖줄기를 빨지 않는다면  
순간 나의 생의 노래는 끊어 지고 심장은  
멎으리니...

아, 나는 살수 없어라, 한평생을-  
아기는 돌전에도 엄마의 젖줄기를  
떨어 저 살수 있어도  
나는 정녕 살수 없어라  
수령님의 당의 이 붉은 젖줄기가 없이는!

주체52(1963)년

## 평화의 붓

-원산에 있는 인민군렬사탑앞에서-

주 경

총창과 푸른 하늘이  
그리도 잘 어울려  
한쪽의 그림마냥 안겨 와  
붓을 들고 화판에 마주 섰건만  
물결쳐 오는 하많은 사연에 젖어  
나의 붓은 움직일줄 모른다

해무를 옷자락인양 날리는  
항구문화도시의 아름다운 전경  
하얀 백사장으로 뿌려 지는  
억만의 구슬들...

이 땅의 평화를 지켜  
한목숨 바친 그날의 병사들은  
남산재 높은 언덕에  
그날의 총창 역세게 틀어 쥐고  
락원의 기슭을 바라보고 있으니...

오늘도 그들은 저 총창으로  
갈매기의 부드러운 날음에  
아름다운 노래를 실어 주는가  
아이들의 맑은 웃음에 가없이 들린

푸르른 하늘가에  
그 푸르름을 더하여 주는가  
아 총창끝엔 흰 구름이 흐르고  
총창아래 꽃들이 무리져 피었어도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하늘가엔  
포연이

그날의 불비가 쏟아 저 내린다  
그대들 피로 목숨으로 지켜 낸  
락원의 이 강산에  
자유로이 새들은 날아도  
그날의 원수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있어  
결전의 불언덕을 새겨 주는  
총창이여

너를 한순간이라도 놓는다면  
이 땅은 또다시 포화에 불 타고  
침략의 검은 해일은  
아름다운 이 기슭으로 밀려 오기에  
천만이 함께 틀어 쥔 총창이여

내 차라리 저 총창을  
살륙의 검은 먼지를 씻어 버리는  
평화의 붓인양 틀어 쥐고  
평화를 그리고 싶다  
삼천리 강토우에

내 너를 들어 그려 가는  
새 세기의 행성우에  
자주의 푸른 하늘이 열리고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시고  
온 겨레가 목 메어 환호하는 그날

총창이여 너를  
평화의 기념비마냥 세워 놓고  
아 나는 그리리라  
통일된 삼천리 나의 조국  
네 총창으로 지켜 낸  
영원한 평화의 화폭을-

## 까툴골사람

안동춘

### 망각된 과거로부터

먼저 까툴골에 대한 역사소개부터 하려고 한다.

까툴골이라고 하면 다들 짐작하겠지만 깊은 산 골짜기이다. 경치로 말하면 칠보산의 어느 한 계곡을 련상하면 되는 곳이고.

이 골안에 사람이 처음으로 붙은것은 봉건말년 때의 산포수들이라고도 하고 대정 《천황》의 목을 치겠다고 입산한 도술수련생들이라고도 했는데 이삼십호 잘되는 마을이 생겨 난것은 안의사(의로운 사람이라는 뜻- 의병대장 안무)를 따라 갔던 우리 할아버지대 어른들이 돌아 온 뒤부터라고 한다.

까툴골이라는 이름의 유래만은 명백하다. 까투리가 많다는데서 지어 진 이름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까투리가 많았다. 광복직전에 장주사라는 자가 쌍대배기 련총에다 매까지 받쳐 들고 장끼란 장끼는 잡아 없앤데서 더욱 그렇게 됐다고도 한다. 《대동아전쟁》이 막판에 들어 섰을 때 남정들이란 남정들은 짝 뽑아 가고 맨 아낙네들만 남은터수로 《과연 까투리골이구나.》라는 우스개 말까지 돌았다.

그때 《징용》이나 《보국대》에 의례 뽑힐 대상이지만 그 올라가기를 면한 젊은이가 엄한규였다.

그것은 장주사의 《덕》이라면 《덕》이라고 봐야 했다. 간도로 떠나가던 어느 류랑민이 이 골안막바지에 흘려 버리고 간 엄한규는 고향도 부모도 미상인 고아였다. 다 해여진 무명두루마기에 감싸여 울고 있는 열두살짜리 소년을 다래바위밑에서 발견하여 데려 온것은 나의 아버지였다.

쫄쫄리와 송기로 근근히 살아 가는 집에서 한창 먹어 댈 나이의 소년은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골안 인심이 후해서 오늘은 이 집, 래일은 저 집에서 아이를 돌려 가며 먹여 주고 돌봤으나 그것도 한두달이지 몇달 지난후부터는 아예 우리 집의 군식구로 어머니의 바가지를 긁게 했다. 《예구, 청승맞은 녀석이 와서-》 어머니는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면서도 자기가 먹던 죽마저 남겼다가는 그의 배만은 굶지 않게 하느라 모지름을 썼다. 엄한규가 열네살이 잡혔을 때 장주사가 이 골안에다 도목수와 미쟁이를 데리고 와 촌사람들의 눈이 휘돌아 가도록 멋진 집을 짓고 주저 않았다. 린근 200리의 산과 땅의 임자인 그가 도회지를 떠나 이리로 온것은 폐가 나쁘기때문에 중

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라는것이였다. 그런데 이 고장사람들은 본래 외지사람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다가 그가 일본놈의 살밀에서 알랑거리는 부자라는것으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이 골안의 령감쟁이들 거개가 한때는 독립군에 관계했고 자기따위에는 외눈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 장주사는 집들이에 마을좌상들을 청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덕》을 보였다. 하나 그 잔치판에는 서당집령감 혼지 가서 모두결이인사를 하고 왔을뿐 누구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장주사는 여간한 인내심이 아니여서 이번에는 엄한규를 자기가 돌보겠노라고 하였다. 마을좌상들과 우리 집안 어른들이 두루 의논한 끝에 엄한규를 화전살이의 농군으로 썩일바치고 장주사의 집에 가서 삼시 끼니래도 제대로 먹게끔 하자고 했다.

어머니는 한규를 보낸 날 밤새 울었다.

장주사는 약속대로 엄한규를 괜찮게 돌봐 주었다. 우리 집에 있을 때의 엄한규는 눈 뜨기 바쁘게 나랑 함께 산판에 올라 가 나무를 하고 늘 밭에 붙어 땀을 빼야 했으나 장주사집에 가서는 물이나 길어 주고 장작이나 패는 정도였다. 음식도 우리가 먹는 감자범벅이나 송기죽이 아니라 조밥이던 귀밀밥이던 밥을 먹을뿐아니라 때로는 흰쌀밥도 먹는다고 했다. 우리 동생들은 그가 흰쌀밥을 먹는다는 말에 부러워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탈바가지란 오래 못 가는 법이다. 한해가 넘기 바쁘게 엄한규는 장주사네 집에서 멍에를 쓴 소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장주사는 《근로》해야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엄한규를 산판에 내몰아 나무하는것으로부터 그 나무를 읍장에 내다 파는 장사일까지 껴묻혀 부려 먹었다. 열여섯살이 되자 어느 보통 장정 못지 않게 튼튼 체구에 기운이 펴펴해 진 엄한규는 《네가 그 집 머슴이 되고 말았구나.》라고 한탄하는 우리 어머니의 말에는 오히려 별썩썩 웃으며 《일 없수꾸마. 그 집에서 노린내 맡기보다 바람 쐬는게 좋수꾸마.》 하며 우울한 기색이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저녁이면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하였는데 읍에 가서 보고 들은 이야기며 귀결에 배운 창가 같은것을 우리에게 들려 주곤 하였다. 그는 목청이 좋아 노래를 참 거들지게 잘 불렀다. 그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미세 당기세 미세 당기세》라는 톱질군의 타령이였다. 때로 장주사는 엄한규에게 자기의 인력거를 끌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인력거를 끌고 읍에 갈 때마다 엄한규에게 단벌치기 국방색양복을 입혔다. 물론 읍에 갔다 돌아 오면 그 양복은 벗어야 했고 설사 겨울이라 하여도 배운을 입어야 했다. 우리가 양복쟁이가 되어 인력거를 끌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일이 가슴 아파 비웃는 말을 할라치면 그는 씨물씨물 웃었다.

《노래야 내가 부르고 싶어 부르는걸.》

그런데 그가 부르는 《미세 당기세》는 때와 장소에 따라 곡조와 가락이 변하곤 하였는데 어떤 때는 슬픈가 하면 어떤 때는 더없이 유쾌하였다.

인력거를 끌 때면 골안메부리가 다 울릴 정도로 굵고 탁한 소리를 내었는데 얼핏 들으면 즐거운 것 같았으나 우리 어머니나 동리어른들은 보기 민망하여 외면하곤 하였고 나도 속이 좋지 않았다.

엄한규는 종이 되고 만것이다. 그 억센 체격과 락천적인 행동거지는 어찌하든 그는 장주사의 입짓, 눈짓에 따라 개처럼 움직이게 된것이다.

장주사는 인물 좋고 씨원씨원한 엄한규를 놀음에 붙이고 다녔다. 특히 꿩사냥 같은데는 꼭 데리고 갔다. 물푸레몽둥이와 양푼을 든 엄한규는 《후여! 후여! 까투리야!-》 하고 소리치며 실로 삽살개처럼 가파로운 산비탈을 주름 잡아 내달렸다. 물이군으로는 그 이상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가 산판에서 고향을 치고 팔각뿔을 시작하면 까투리건 장끼건 다 하늘로 뿔고 놀란 짐승들이 네굽을 쳐 도망쳤다. 어슬어슬한 해거름녘이면 엄한규는 옷등을 벗어 제긴 몸에 화려한 깃털이 번쩍이는 꿩들을 줄느러히 달아 매고 골짜기를 내리었다. 그뒤에서는 장주사가 령총을 거꾸로 메고 어슬렁어슬렁 따르고 동리늑은이들은 그 모양에 혀를 찼으나 마을처녀들은 그의 구리빛 잔등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문밖으로 지켜 보았고 딸 둔 어머니들은 한숨을 지었다. 이 마을처녀치고 그를 싫어 하는 처녀가 없었고 어머니들 역시 같았다. 허나 악진 집념으로 굳어 진 타관사람에 대한 경원과 장주사의 종이라는 배타심으로 하여 그에게 끌려 가는 마음을 붙잡아 댔다. 마을청년들이 거의다 《징용》과 《보국대》로 끌려 가자 총각으로서 그의 인품은 더욱 높아 지었다. 그러나 그의 뒤모습을 반한 눈길로 보던 처녀들도 일단 그가 접근하고 수작을 불일라치면 외면하였다. 입이 살찬 서당집 춘영이는 《체, 부자꼬랑지 같은거.》 하고 맵싸게 썩붙이기도 하였다. 그럴 때도 한규는 성을 내지 않았다. 겨우내 트고 여름내 탄 적동색얼굴이 약간 어두워졌을뿐 오히려 웃었다. 그렇다 해서 바보스럽게는 보이지 않았다.

광복되기 이태전 늦가을이었다.

돌개소 여울목에서 세천어잡이로 반두질을 하던 나는(그때 나는 징병을 피하기 위해 면에서 하는 신체검사때 간장을 많이 마신 관계로 속타를 만났다. 그 치료에 세천어가 좋다고 하여 저녁마다 이 놀음을 하였다.) 장주사와 함께 사냥을 하고 돌아 오는 한규를 보았다.

산판을 싸다니느라 땀주머니가 된 장주사는 한규와 함께 돌개소 옆 너럭바위에 앉아 땀을 들이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시각 새바람이 일며 장주사의 민머리를 가리우고 있던 맥고모가 홀들려 날다가 돌개소에 빠졌다. 장주사는 민머리를 감싸쥐며 아부재기를 쳤다.

《야, 엄쇠야. (그는 한규를 이렇게 불렀다.) 저걸 건져야겠다. 저건 생기찌어른의 선물이다. 선물!》

그 소리를 들은 나는 기가 막혔다. 생기찌라는 것이 도지사인가 하는 놈이라는것을 한규를 통해 알았지만 제아무리 하내비 같은 놈의 선물일지라도 여하튼 모자에 불과하지 않는가. 더구나 거품을 떠인 물살이 모자를 안고 뱅뱅 돌아 가는 돌개소의 한가운데는 아직 누구도 해염쳐 가보지 않은곳이었다. 너덧발되는 통나무도 그 소가운데로 달려 들면 눈 깜박할새 사라졌다가 한참 지나서야 아래 여울목에서 다시 솟구쳐 나오는것이였다. 그런데 더 한심한것은 엄한규가 아무 주저없이 베적삼을 홀 벗어 버리더니 침병하고 그 소에 뛰어드는것이였다. 늦가을의 산골물이란 얼음같이 찬데.

《한규야!》

내가 목이 터지게 불렀으나 절벽만 메아리를 일으킬뿐 한규는 돌아 보지도않았다. 잠시후 거품을 물고 원을 그리는 물살과 함께 엄한규의 몸이 풀잎처럼 돌아 갔다. 그런데도 연신 팔을 허우적거리더니 끝내는 모자를 움켜 쥐는것이였다. 그찰나 일이 벌어 졌다. 한규가 몸을 솟구쳐 되돌아서는가 싶더니 강한 물흐름에 끌려 팽이처럼 돌며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되자 장주사도 벌떡 일어 나 당황한 꼴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한규야!》 하고 울음 질린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그쪽 기슭으로 울리달렸다. 그러나 몇발자국 못가서 멈춰 서고 말았다. 열뿔절음알 물가녘으로 엄한규가 기여 나오는것이 아닌가. 조약돌이 하얗게 드러나보이는 강녘에 이르자 우르르 몸을 떨며 일어 난 그는 재채기를 하였다. 소름이 파랑게 돋은 손에는 물이 푹푹 떨어 지는 맥고모가 들려있었다. 나를 알아 본 그는 비죽이 웃어까지 보였다. 나는 그만 눈물이 콧 솟구쳤다.

《에익, 죽기나 하지.》

그날밤 엄한규가 우리 집에 찾아 왔다.

《제마! (그는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불렀다.)  
나요. 문… 열어 주…》

숨이 넘어 가는 소리였다. 문을 열자 그는 비  
칠거리며 들어 와서는 노전우에 맥없이 쓰러졌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불덩이 같았다. 낮에  
있는 사연을 들었던 아버지는 그가 독한에 걸렸  
다고 했다. 침술을 하는 서당집령감을 데려 오고  
이 집 저 집에서 풀이며 산제담이며 약제로 쓰  
인다는것은 닥치는대로 가져 왔다.

서당집할아버지가 이마에 피칠이 랑자하게 입  
침을 놓고 또 무슨 약을 달여 먹이게 하고 어머  
니가 밤새 물수건을 싸들고 시중한 끝에 새벽녘  
에는 한결 피여 났다. 한규는 다음날까지 내쳐  
우리 집에 있었다. 장주사가 닭알 몇알과 아스피  
린 몇알을 보내왔으나 성질이 피박한 우리 아버  
지는 고스란히 되돌려 보냈다.

오후녘이 되자 한규가 수건을 싸맨채 감자음을  
고쳐 파는 나의 일을 돕겠다고 밖에 나왔다. 나  
는 그를 보는척도 안했다. 아무리 매여 사는 몸  
이기로서니 모자 하나때문에 사지에 발을 들어  
미는 천치가 어데 있단 말인가.

《흥, 뭇 있더구나. 삽살개!》

《어른 보고 무슨 수작질! … 내 그 두상한테  
본패를 보여 주려구 그랬다.》

한규는 장작더미우에 주저앉으며 어색하게 웃  
었다. 그의 대답과 웃는 꼴이 더욱 밍살스러웠다.

《본패를?! … 사람이 인두집을 썼으면 사람답  
게 뼈대가 있어야지 그 구린내나는 놈의 밀시중  
이 그리 종단 말이나. 우리 집에선 남의 자식 데  
려다 일시키는게 죄스럽다고 너를 보냈지만 장주  
사의 종노릇하는걸 보면 가슴이 터진다고 한다.  
그런데 넌 뭐가 좋아 늘 널리리요 당기세요 하며  
시죽벌죽 하느냐 말이야. 내 같으면 그놈을 인  
력거채로 뒤집어 놓고 삼십륙계를 한지 오랬겠다.  
네 기운에, 네 일숨씨에 어데 가서 밥술을 굶겠  
니.》

나의 말에 한규는 고개를 푹 떨군채 움썅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반응이 없는통에 입을 다물고  
보니 그의 거북등같이 갈라 지고 터진 손잔등에  
눈물이 푹푹 떨어 졌다. 매발톱에 굽히우고 겨울  
추위에 얼어 터지고 나무가시에 찢린 손, 손톱들  
은 어제 낮 강바닥을 훑어 나오며 그렇게 되였는  
지 무드러진채 피가 빨갛게 고여 있었다. 걸어  
올린 무르팍은 돌에 찢기여 퍼렇게 멍이 들고…

《에익.》

내기 화김에 다시 팽이질을 하려 하자 그가 내  
팔을 잡았다.

《그래 넌 내가 울었음 좋겠니. 그 두상앞에서,  
그리구 마을어른들앞에서 울며 다님 좋겠는가 말  
이다. 종살이가 설버(슬퍼) 내가 울고 땀기면 넌

그렇다치고 제마랑 아버지랑… 동네어른들이 열  
마나 가슴 아파 하겠니. 그렇다 해 내가 가면 어  
델 간다는거냐? 난 이 동리를 뜰 생각이 없다.  
내쫓아두 말이다. 난 부모가 없어. 부모를 잃고  
이웃따라 떠돌아 다니다가… 여기서선 모두가 나를  
혈불이처럼 봐주었다. 난 장주사밑에서 아무리  
피로워두 이 동리어른들을, 제마랑, 맏아바이랑  
보면 가슴 없힌것이 다 풀린다. 난 그래서-》

한규는 여기서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이제껏  
감추고 있던 온갖 설움이 터져 나와 억센 몸집을  
폭풍 맞은 나무처럼 떨게 하고 진한 눈물을 비  
처럼 쏟아 지게 한것이다.

《한규야!》

나는 팽이를 뿌리치고 그를 꼭 그러안았다. 박  
달나무 같은 어깨가 와득와득 소리를 내는것 같  
았다. 결국 한규는 나의 숨김 없는 비난의 말에  
속을 터뜨려 보인셈이었다. 그런데 나는 얼마후  
에 이 일을 두고 두고 후회하게 될줄은 몰랐다.

첫눈이 온 다음날이었다. 우리 집 맞은편 둔덕  
에 있는 장주사네 집쪽에서 한방의 총소리가 터  
졌다. 뒤미처 《살인이다!》하는 피성이 들려 왔다.  
짚신을 삼고 있던 나는 무언가 불안한 예감에  
절려 맨발바람으로 밖으로 뛰쳐 나갔다. 장주사  
네집쪽으로 마을사람들 여럿이 내닫는것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 갔다.

대문은 열려 진채였다. 생전 들어 보지 못한  
차거운 너털웃음과 가쁜 숨소리, 뭔가 췌박는소  
리가 들려 왔다. 대문안에 들어 서던 나는 발을  
딱 멈추고 말았다. 대문안 마당에는 래일모레 아  
들잔치를 치르게 된 쏜새령감이 쪽발구끈을 감쳐  
진채 부들부들 떨며 대청마루쪽을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장주사와 맞붙어 선 엄한규가 있었다.  
그의 베옷잔등은 갈기갈기 찢어 진데다가 피에  
화락하니 젖어 있었다. 줄줄이 흘러 내리는 피는  
베바지아래단까지를 벌겍게 물 들이고 있었다.

장주사의 처첩들이 그의 어깨며 팔에 매여 달  
려 새된 소리를 내지르며 기승을 떨었다.

한규는 왼손으로 장주사의 저고리목깃을 틀어  
쥐고 오른손을 천천히 들었다가는 철썩! 하고 뺨  
을 후려 쳤다. 그의 팔이 움직일 때마다 어깨에  
매달렸던 장주사의 처첩따위들이 옆으로 나동그  
라지였다. 장주사는 얼굴이 죽장처럼 부어 오른  
채 금시라도 숨이 넘어 갈것 같이 할딱거리였다.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한규의 얼굴은 채빛을 띠고 있었다. 삐뚜름하  
게 한쪽 귀가 처져 올라 간 입술은 퍼렇다 못해  
꺼멧게 보였다. 그런데 그는 이따금 히죽히죽 웃  
는것이 아닌가. 나는 무엇보다 그가 미치지 않았  
는가 하고 겁을 먹었다.

《자, 이건 퐁푸개질값이다.》

또다시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장주사가 애고 소리를 질렀다.

《이건 신 밥을 먹인 값이고-》

한규는 매우 침착한 동작으로 이번에는 장주사의 눈통을 쥐여 박았다.

《한규, 이게 무슨짓이요.》

나는 얼결에 달려 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희번득이는 눈이 불줄기처럼 나에게 닿았다. 그러나 나를 알아 보자 크고 흰 이를 보이며 싱긋 웃었다.

《회계를 보는중이다. 회계를!》

그가 한번 용을 쓰자 나는 저만치 밀려 나갔다. 나의 아버지며 여러 어른들이 달려 들어 그를 간신히 떼어 내었다. 장주사는 먹 찢린 돼지처럼 늘어져 움썩하지 못했다. 한규는 대문밖으로 안겨 나오다가 번득이는 눈길로 돌아 보았다.

《동리어른들덕에 명이 남은줄 알아라.》

한규는 이 말을 남기고 대문밖에 나와 몇걸음 걷다가 꼬꾸라지였다. 입으로 피를 토했다. 조금 있어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떠난 그는 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텅텅텅텅 눈물을 쏟으며 뒤따르는 썩새령감의 이야기를 통해 사태를 어렵פות이 짐작할수 있었다.

썩새령감은 아들잔치준비로 초가을부터 산에 웅노며 뒷을 놓았다. 이날 새벽에도 어느 때의 일과처럼 웅노를 돌아 보던 그는 소발통 같은 메돼지발자국이 매바위등밀에 놓은 웅노쪽으로 향한것을 보았다. 얼싸 좋다 하고 달려 가니 웅노 자리는 장정 네댓이 붙안고 싸운 자리인듯 흙이다 패어나가고 웅노는 풀려 진채로였다. 썩새령감은 그 주변을 살피다가 두사람의 발자국이 아래로 뻗었고 잡관목들이 소 한마리쪽으로 깨끗이 눕혀져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웅노에 붙어 있던 메돼지털을 떼내 가지고 그 자취를 따랐다. 쓰러진 나무가지들에도 메돼지털이 듬성듬성 붙어 있었다.

그 흔적과 발자국은 장주사네 집으로 곧추 들어갔다. 룡십평생을 살면서 남의 웅노에 걸린 짐승을 제것으로 만드는 법이란 없는 이곳 인심에 습관된 썩새령감은 쪽발구를 끌고 다시 와 장주사를 찾았다. 《메돼지를 끌고 와 주어서 감사하운데 그만 이젠 내가 가져 가겠습니다.》 하고 썩새령감이 말하자 장주사는 이 무슨 괴변날 소린가고 펄펄 뛰었다. 그 호통소리에 소먹이를 끓이던 한규가 나왔다.

《한규, 이 사람, 그래 우리 웅노에 걸린 메돼지를 끌어 오지 않았나? 바루 좀 말해 보게.》

썩새령감은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규에게 애원하듯 물었다. 한규는 눈 덮인 산밭을 쏘다니느라 바지자락이 온통 눈투성인데다가 눈

물, 코물이 수염에 매달려 떨고 있는 썩새령감을 보다가 혼연히 대꾸했다.

《아바이네 웅노에서 가져 왔수꾸마. 돌려 드리겠지요.》

그 말에 장주사는 낮이 익은 가재가 되어 불편을 푸들푸들 떨었다.

《주사님, 그럼 이젠 그만 룡담을 하고 돌려 주시우다.》

썩새령감은 너무 반가운 김에 덩석 무릎까지 꿇고 억지웃음을 지어 보이며 장주사에게 간청했다. 장주사는 썩은 룡 씹은 상으로 썩새령감을 아니꼽게 노려 보다가 툅명스레 대답했다.

《령감의 웅노건 아니건 다 상관 없어. 여기 산관은 내 관할이야. 허가없이 웅노를 놓은것도 패씹한데 잡은 좀생을 끝내 가지려 드는 소위가 패씹해. 그러니 두말 말고 돌아 가라구. 그리고 마을에도 알리게. 이제부터 내 허가 없인 메토끼 한마리 못 잡는다고. 되지 못한것들이 남의 산관에서 감자알이라도 심어 먹는걸 대수로 보지 않고 짐승까지... 썩 불려 가.》

썩새령감은 화들화들 떠는 무릎을 겨우 펴 일어났다. 목구멍에서는 가래만 끓을뿐 아무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때 한규가 픽 돌아 서 씨엉씨엉 절어 갔다. 빼그덕- 하고 허청간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100키로는 실히 될 메돼지를 꾸쳐 메고 돌아 나왔다.

《아바이, 갑시다.》

그는 한마디 하고는 장주사쪽은 보지도 않고 걸어 나갔다. 장주사의 벽력 같은 고함도 개화장으로 들이 치르는 매채도 그의 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기가 뒤집힌 장주사는 쌍대배기럼총을 벗겨 가지고 나와 대문턱을 넘어 서는 한규를 쏘았다. 다행히 채워진것은 산탄이었다. 한규는 불로 지지는듯 한 아픔이겠건만 비칠했을뿐 넘어 지지는 않았다. 메돼지를 뿌리쳐 내리고 돌아섰다. 몇초동안 꼼짝 않고 장주사를 노려 보던 한규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 기가 질린 장주사는 총을 든채 뒤걸음치다가 대청마루에 걸려 넘어 졌다. 한규는 뜨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으로 다가갔다...

한규의 잔등은 국수분들처럼 구멍이 송송했다. 연알들을 파내고 그 자리에 숨을 태워 불었다. 나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으나 한규만은 꿈쩍하지 않았다.

《아프지?》

아버지가 물으면 《아니, 뜨끔도 안하우다.》 하며 흰소리를 쳤다. 잔등을 다 지지고 느릅나무 껍질을 불인후 어머니의 단별 머리수건으로 감아 뒷을 때 그는 찬물을 찾았다. 그때 나는 그의 입술에 이발자리가 깊이 패이고 산탄알에 윈손

새끼손가락이 무질러 진것도 알아 보았다.

한규는 이날 밤으로 우리 집을, 우리 동네를 떠났다. 장주사가 무슨 흥제를 꾸밀지 모르는 형편에서 그의 걸음을 막을수 없었다. 그는 우리 집에 모인 동리어튼들과 나의 부모님께 무릎절을 하고는 노전바닥에 이마를 대인채 한참이나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동구밖을 벗어 날 때는 현현한 장부의 태도였다. 나와 서당집 춘영이가 그를 바래주었다.

희푸른 조각달빛에 거뭇거뭇한 산그림자가 길게 누운 발구길로 한창 내려 가던 그는 마을이 어슴푸레 멀어 지는 달구지길에 들어 서자 불현듯 씩씩한 태도로 말을 하였다.

《내 노래 부르라니.》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목 갈린 소리로 청을 뽑았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월궁속 선녀각시  
님 찾아 나는 간다  
...

엄한규의 행방은 한해가 다 지나서야 알려졌다. 청진에 갔던 춘영의 오빠가 술집에서 일하는 한규를 보았다는것이다.

이 소식은 마을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불러 일으켰다.

《글쎄 가 박힌다는것이 술집이라니 사람되긴 싸수가 글렀다.》 아버지는 온 하루밤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 그런 어느 날 술한 순사들이 골안에 쓸어들어 온 동네를 발각 뒤지며 한규를 찾았다. 한규가 강도질을 하고 술집녀자까지 꺾치고 도망질을 쳤다는것이였다. 왜놈들 말이라면 덮어 놓고 도리질하는 마을사람들이었건만 이번만은 기웃하게 되였다.

《끝내 신세를 그르쳤구나.》 우리 집에서는 이때부터 엄한규에 대한 말을 일체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를 데려다 길렀던것까지 후회막심해 하였다. 그런데 광복된 해 가을 뜻밖에도 엄한규가 우리 골안에 나타났다. 그것도 홀몸이 아니라 얼굴도 희고 손도 흰 《하이칼라》녀자를 데리고 찾아 든것이다.

동네 개란 개는 다 떨쳐 나 짓어 댔다. 벼웃 하나로 일년 사시절을 지내는 골안 사람들과는 너무나 유표한 차림때문인것이였다.

한규는 맥고모에 밤색 폴덴양복차림이였고 이 고장 녀인들의 눈이 휘돌아 갈 정도로 예쁜 녀자는 초록비단치마에 흰 모본단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한규때문에 문밖에 나왔던 녀인들은 도회녀자의 요란스러운 차림에 기가 질린듯 도로 들어

가 경멸과 시샘이 섞인 눈길을 문창호지구멍에 대고 점도록 보았다. 도회지녀인은 몸차림에 알맞추 조그마한 보파리를 하나 이였고 한규는 커다란 껌짝 두개를 질빵으로 동여 지였다. 그는 곧바로 우리 집을 겨뉘 찾아 들었다. 도회지생활 탓인지 그의 얼굴은 이전의 적동색이 아니라 배추속대처럼 허영게 피기를 잃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상이란 수만외적을 쳐물리치고 온 개선장수와 같았다. 우리는 처음에 그를 어떻게 맞았으면 좋을지 당황했다. 《...강도질을 하고... 술집녀자를 꺾치고...》 하는 불미스러운 과거와 그 사실을 반증하듯 하는 도회녀자의 출현은 무작정 솟구쳐 나가려는 반가움을 억제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릴 믿고 찾아왔는데...》 하는 아버지의 말이 모든것을 결정하였다. 한규의 험악스런 과거는 모르쇠를 하기로 타협이 되였다.

한규가 가지고 온 재산이란 옷가지 몇벌에 이 불과 그릇따위들이였는데 거기엔 우리 어머니에게 해오는 모본단치마저고리 한벌과 아버지며 동리어튼들께 대접하려고 장만했다는 되들이 술 2병이 있었다.

그날 저녁 동네어른들 거의가 한규를 찾아 보러 왔다. 어쨌든 이 마을에 있으며 정을 붙였던 사람이 아닌가. 한규는 도회에서 살았으나 예전의 레법은 어기지 않고 오는이마다 문전에서 맞아 무릎절을 하였다. 색 다른 녀자들(분명히 술집논다니였을) 차고 왔다는데로부터 미리부터 이마살을 찌프리고 들어 서던 로인들도 눈물이 그렁해 무릎절을 하는 한규를 보고는 얼마간 숙부드러워들 졌다. 한규가 지고 온 짐속에서 축음기인지 뭔지를 꺼내 놓지 않고 앞전스레 묻는데나 대꾸하고 과거의 《허물》을 툭 빼개놓았다면 모든지 대해서 널리 《용서》를 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규는 자기의 《강도》건이나 데리고 온 녀자에 대해 털어놓고 《회개》할 대신 축음기를 틀어 놓고 《가르치려》 드는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아니, 어째서 여긴 조금도 달라 진것이 없수꾸마. 광복이 뻤으니 우리 세상 아니꾸마. 이제 다들 노래랑 부르며 즐겁게 살아야 하우다.》

그는 더없이 장한 일을 하는양 두눈이 거스름해서 축음기 태엽돌리개를 술술 돌리며 여기 싱긋 저기 빙긋 웃어 보였다. 축음기판이 련속 바뀌며 돌아 가자 무슨 《맹꽁이타령》, 《날 다려가소》, 《울산타령》이요가 거들먹지게 흘러 나왔다. 어깨가 들먹거릴 정도였다. 국수를 누르느라 부엌에서 서성이던 아낙네들까지 눈에 《바람기》가 일어 올라 왔다. 그러나 엄한 표정을 짓고 땡땡히 앉아있는 동네좌상들의 시뻘한 기색을 보고는 자기네도 별로 흥심이 없다는듯 되돌아나갔다. 눈치없이 좋아 하는것은 아이들뿐이였다.



한규는 아이들덕에 몇판 더 돌리고는 축음기뚜껑을 닫았다.

《…다들 좋아 했는데…》

우리 골안사람들은 비록 배운것은 없어도 레실과 도리는 아는 사람들이어서 한규가 먼저 까밝히지 않는 한 그의 께름한 전 생활을 캐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로 이러저러한 억측과 꾸며진 말들이 이 입 저 입을 통해 온 마을에 나돌았다. 한규는 술집에서 웃음 팔고 몸 파는 녀자와 정분이 나 강도질까지 했고 그 덕에 가막소(감옥)를 나왔다. 광복바람에 가막소에서 풀려 나온 그는 몸 파는 일을 할수 없게 되어 한지에 나앉은 녀자를 께차고 살데 없으니 이 골안으로 찾아 들었다.… 하고. 특히 녀인들의 입심이 심했다.

이 고장 녀인들은 인정에 무르고 어질었지만 그 입심들이란 여간 아니였다. 더구나 일생 비단 옷 한벌 못 입고 살면서도 그 께끗한 마음과 결백을 보물처럼 안고 살아 가는 그네들에게서 《이 남자 저 남자 마구 곁들인 녀자》에 대해서는 같은 녀성으로서의 분격과 수치를 느끼며 멸시하였고 자기들의 거치른 손과 얼굴과는 판이하게 고운 분결 같은 살을 두고 시샘과 질투까지 느꼈으니 말끝마다 가시가 섞여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서의 이런 뒤시비를 본인 당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것이다. 딱한 일이었다. 생각갈아서는 그전 일들을 툭 빼개놓고 물어 보고 싶었지만 남의 상처를 꼬집는듯 싶어 주저되었고 또 그럴 틈도 없었다. 마당질과 겨울나이 화목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속에서 한규 역시 우리 집 마당질로부터 손로가 모자라는 집일을 돕느라 뛰어 다니다나니 끼니때에나 얼핏 마주 볼뿐이었다.

그가 우리 집에 와 며칠을 지낸 뒤 앞으로의 거처를 어데 정하는가 하는 문제로 마을어른들 몇이 와서 의논이 붙었다. 모두가 장주사의 사랑채가 비였으니 (장주사는 광복되는 날 밤 행랑머슴만을 남기고 술가도주를 했었다.) 립시 변통으로 엄한규내의를 거기서 살게 하자고 했다. 그런데 엄한규가 거절했다.

《안되우꾸마. 거긴 공산당위원회 꾸릴 자리로 그냥 뒤야 되꾸마.》

공산당이라니. 모든 사람들의 눈이 떠꾼해 졌다. 읍에서랑 무슨 혁명자들이 공산당을 조직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 까막산골바우들이 있는 화전골에 공산당이 선다는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걸 내주자하고 나서는 사람이 엄한규라는데서 뭐가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학교안 문턱조차 밟지 못했지만 세상사에는 자못 밝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어른들은 뼈꼭소리도 못하고 그의 입만 지켜 보게 되었다. 이렇

게 되자 한규는 전마 잡힌 생원님격으로 조를 뺐다.

《참, 아주바이들두… 정말 맥혔수꾸마.》 하는 말로 시작된 그의 공산당해설의 골자인즉은… 공산당은 제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활빈당》 비슷한것인데 왜놈이나 장주사따위를 미워 하던 사람들은 죄다 들어야 한다. 김일성장군님께서두 공산당편이시다…

어하, 장군님께서 공산당이라, 그러면 공산당이 돼야 하고 말고. 소동축들은 물론 로인들이 더 들고 나섰다. 한규의 거치문제는 마당질될거дум이 끝나는 차례로 집을 짓는다는것으로 일단락을 보고 공산당조직문제로 의논을 펼치던 끝에 다음날 나랑 몇사람해서 군에 가 알아 보기로 했다. 군에는 벌써 공산당이 조직돼 있었다. 군당비서가 우리를 만나 공산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돌아 가는 길에 꺾은 지도원(부원) 한사람을 달려 보냈다. 그 지도원은 마을의 좌상들로부터 우리 같은 소동축까지 거의 전부를 만나 담화를 한 끝에 일곱사람으로 이 골안의 첫 당세포를 꾸렸다. 나까지 포함되었다는데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일곱사람은 우리 골안에서 그 누구의 말밥에도 오르지 않을만치 성실하고 뜨글뜨글한 농군들이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엄한규는 당에 들지 못했다. 다들 그의 께적지근한 과거를 두고 머리를 저였기때문이다. 그를 보기가 딱했다. 여하튼 공산당조직을 설도한것이 그가 아닌가. 그러나 공산당에는 아무사람이나 드는것이 아니라 는것을 온 마을이 알고있는 때라 어찌는수가 없었다. 다행히 한규는 별로 타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첫 당세포모임을 우리 집 옷방에서 했는데 한규는 온 종일 장작을 패었다. 온통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굴이 뻔쩍게 질린 한규는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우리들께 병그레 웃음까지 지어 보였다.

한규네 집은 노루막치기 삼굿터에 지었다. 닷새동안에 온 마을이 달라 붙어 달구질을 하고 채목을 마르고 벽을 쌓고 하여 3칸짜리 집을 열싸하게 세워 놓았다. 우리 동리인심은 이런데서 나타났다. 아낙네들까지 다 떨쳐 나 찰흙을 이긴다, 서까래를 다듬는다 분주랑을 피웠다. 한규네가 비록 옷차림은 프르르하게 하고 왔지만 피쌀한 말 없다는것을 아는 아낙네들은 좁쌀이면 좁쌀, 감자면 감자를 바가지에, 함지에 담아 저저마다 가져 왔다. 그런데는 이 《도고한》 촌부녀들이 《술집기생》과 인사수작이 싫어 황황히 구들에 쏟아 놓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는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 그 며칠 엄한규는 내쳐 말이 없었다. 약간 낮이 빠진듯 한 기색으로 여기저기 일에 빠져 들다가는 멍하니 무슨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안해라는 녀자 역시 그랬다. 썩의 깃털같이 아롱거리는 치마저고리를 입은채 이영짚을 맞들어 올리기도 하고 저쪽에서 부뚜막매질흙을 찾으면 그 가냘픈 손으로 흙반죽을 싸들고는 허둥지둥 달려 갔다. 그러나 그 열성이 허탕을 볼 때가 많았다. 부뚜막매질흙을 가져 간다는것이 쉼이 쉬운 지봉흙을 가져 가고 지봉흙을 나른다는것이 부뚜막매질흙을 가져 가는 판이었다.

《이녀는 그만두라구.》

로인들이 말릴 때까지 녀인은 어쩔바를 모르며 이렇게 일판의 여기저기에 보람없이 뛰어 다녔다. 동리 부조가 연신 들어 올 때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기만 했다.

《집들이잔치》를 요란스럽게 했다.

아버지는 집에 하나밖에 없던 돼지를 잡게 하고 이미전에 부조날알들을 가지고 왔던 마을녀인들까지 줍쌀떡이며 감자지짐 같은것을 해가지고 왔다.

큰상앞에 한규부처를 나란히 앉힌 아버지는 한규가 가지고 온 되들이병술을 동리어른들께 한잔씩 붓게 하는것으로 식을 떼었다. 그리고 보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날을 예견한셈이었다.

술이 한순배 들자 아버지가 거나한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한규 이 사람, 우리 죄가 막심하네. 소년에 이 끝안으로 와 우리한테 정 붙여 의지하고 살려줬네만 다 같은 망국노신세라 끝까지 돌봐 줘야 부족해 험한 길을 걷게 했어. 일인즉 정말 안됐네만 이제 와서 과거지사들 더 따져 뭘하겠나. 오늘의 이 자리를 환도길로 삼으세나. 그리구 여기 들까부는 아낙들이 임자네 대해 빼꾸기소리가 많네만 이제부턴 더 없을것으로 아네. 다 나쁜 세상 산 탓이 아닌가. 그러니 새댁도 이걸 알구 우리 끝안붙이들을 혈육으로 삼아 잘 살아 봅세나. 자, 그런 뜻에서 임자두 들게.》

아버지는 한규가 가져 온 술이 아니라 이 고장에서 머루와 다래로 담근 발효주를 한바가지 푹 떠서 내밀었다. 한규는 무릎을 꿇쳐 두손 받쳐 바가지를 들고 갱생의 결심을 보일듯이 단숨에 밑굽까지 비워 버렸다. 화주는 아니여도 이 술은 몸에 즉시 피는것이여서 한규의 얼굴은 대변에 오지독이 되었다. 벌거우리한 불에 눈물이 맺혀 번들거렸다. 아버지는 대견스럽게 머리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작은 보시기에다 술을 담아 한규의 처에게 권했다. 모두의 눈이 《놀아 난》 녀인의 술 마시는 모양을 호기심 넘쳐 보았다. 그때의 상식으로는 술집녀자들이란 남자들 못지 않는 술고래라는때문이었다.

뿌직뿌직 라는 거름등밑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녀자의 동그스름한가 하면 네모져 보이기도 하는

얼굴이 밀랍처럼 해죽한 빛을 띄었다.

그 순간 방안에는 숨소리조차 꺼진듯 했다. 하지만 인차 실망어린 한숨이 새어 나왔다. 한규의 처는 보시기에 입술만을 대였다가 떼었을뿐이었다.

《에구, 역기도(찌바르다) 하지비. 여기선 제법 내우를 하는구만.》

어느 구석에선가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 왔다. 모두가 술에 거나해 지고 밤도 깊어 파장이 될턱에 갑자기 한규가 벌떡 일어 섰다.

《아부님들, 아재들, 고맙수꾸마. 제... 이 신셀 잊지 않겠수꾸마. 정말... 눈에 흙이 들어 가도...》

술기운으로 떠들썩하던 방안이 삽시에 조용해졌다. 손등으로 눈굽을 뺨 닦고 난 한규는 앞웃자락을 자주 비트는데 굵직한 목의 울대뼈가 오르내리는것이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그가 다시 입을 떼었을 때 목소리는 울음져 있었다.

《한데... 아부님들... 아재들... 우리 저 사람들 나쁜 계집이... 기생이... 아니꾸마. 정말이꾸마. 정말!》

그리고는 풀쩍 물었다. 그때까지 고개를 짓속이고 있던 한규의 저 세월은 《흑》 하는 소리와 함께 두손으로 얼굴을 싸전채 연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고장에는 지긋은 봉건이 있어 녀인들이 웃어른들앞에서 우는것은 도덕머리가 없는것으로 비난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좌석에서는 누구도 그런 티를 보이지 않았다.

썩새령감이 세월에게 다가가 어깨를 쓸어 주었다.

《새애기, 울지 말라구. 임자 스나말이 옳네. 암, 그렇구 말구.》

썩새령감의 눈굽도 붉어 졌고 우리 아버지나 다른 어른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그의 말에 공감을 표실했다.

이날 밤의 일로 하여 한규 처에 대한 뒤소리는 가신듯이 없어 졌다. 마당질과 겨울나이차비까지 다 끝나게 되자 그들 찾아 오는 녀인들이 많아 졌다. 마을 어른들속에서는 그 새애기(새각시)의 인사례절을 본 받으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듬해 토지개혁때에는 마을어른들의 일치한 주장밑에 이 끝안에서 일등 가는 노란자위인 장주사의 약초밭과 새로 일군 화전을 한규네가 부치도록 했다.

파종때가 가관이였다.

겨우내 삼실을 갖고 베 짜는 법을 배우느라 시종 방에 있어서인지 이 끝안에 올 때보다 얼굴이 더욱 희여 진 세월이가 머리수건을 푹 눌러 쓰고 밭에 나서자 온 마을녀인들이 저마끔 그의 선

생노릇을 하였다. 조씨는 어떻게 뿌리고 감자씨는 어떻게 묻고... 억대우 같은 한규가 밭갈이를 먼저 끝낸데도 있지만 인정 많은 너인들의 도움으로 이해 파종은 그들이 제일 먼저 끝냈다.

한규는 힘이, 세월은 아악이 발발했다. 동네 《빔》을 갇겠다고 늘 밭에 나와 살았다. 달이 있을 때는 밤에도 나와 후치질과 호미질을 했는데 세월이도 꼭꼭 따라 나서곤 했다. 둘사이의 금슬이 대단히 좋았다. 일하다 말고 둘이 나란히 앉아 땀을 들이는것을 볼 때면 막 부러워 날 지경이었다. 놀라운것은 술집녀자로 살았다는 세월이가 농사일에 매우 쉽게 익숙된것이었다. 한여름이 지나자 그의 손과 얼굴도 이 고장녀인들 진배없이 까맣게 탔으며 일쏘씨도 벌췌다. 호미질 몇번에 손바닥이 터져 나가던 녀자가 진거름을 주물고 한함지 넘는 거름을 이고 산비탈로 쉿췌 오르내렸다. 한해도 채 안되는 사이에 세월은 완전한 까툼골사람이 되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모든 녀인들이 한규의 처라면 오금을 못 쓸 정도로 정을 붙였다.

녀자가 인물이 고온데다가 성정이 유순하면서 도췌췌했다. 혼자 있을 때면 호수 같은 눈에 침침한 그늘 같은것이 어려 있어 접근하기 어렵지만 녀인들속에 있을 때면 고요한 호수 같은 눈에서 웃음의 불꽃이 방긱거리고 까르르 터치는 웃음은 성난 사람의 얼굴마저 밝게 할 정도로 발랄하고 정겨웠다. 특히나 음식췌씨가 뛰여 난것으로 마을집대사때마다 불리워 갔다.

첫해 가을을 하고 탈곡을 끝 마쳤을 때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알았다. 현물세를 바치고도 한해반 여분의 량곡이 남았던것이다.

한규의 처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이 골안 녀인들의 가슴을 굶었던 비단웃들이 늘어 나고 그 웃들을 차려 입고 한규네의 축음기소리에 맞추어 춤을추는 법이 새로 생겨 났다. 나날이 웃음과 노래속에 한해가 저무는 어느 날 황해도의 한 농민이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에 고마움을 아뢰이며 애국미를 헌납했다는 소식이 날아 들었다. 그날저녁으로 우리 집은 동리어른들의 《회의장》이 되었다.

《우리 골 사람들이 제일 곧은 백성이라구 하지만 다들 개나발일세. 백성으로 말하면-》

이렇게 운을 뽀 서당집할아버지의 불충불효에 대한 지탄과 제마끔의 《자기비판》들이 있었다.

하지만 먹고 남을 량곡들을 거의다 웃이요, 그릇이요에 써버린통에 다음해로 미루는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토방터에 주저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듣고만 있던 한규는 동리어른들을 바래주려 나온 나의 손목을 느닷없이 잡아 쥐고

뜻밖의 질문을 들이댔다.

《동생, 날 왜 당에서 받자 하지 않나.》

딱한 질문이었다.

《왜 말을 못하나. 노루막아주바이랑은 공산당의 공자도 몰랐는데 당에서 들라구 해서 들었다 구하던데 난 뭐가 부족한가. 영, 말해 보라구.》

《형님, 그 소린 틀린거우다. 노루막아주바이야 지식은 받지만 왜정뽀 순사들도 패주고... 우리 김일성장군님을 얼마나 높이 받들었소.》

《뭐라구. 그럼 난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지 않는다는거나.》

《아, 그런건 아니구, 좀 진정하랴요. 이제 어떤히 들게 되지 않을려구요.》

《어련히?!》

《한데 왜 갑자기 그걸 따지고 드시우?》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난 당원이 뽀으면 선 참 애국미를 마쳤을거다.》

《아니, 그건 무슨 헛뽀 소리우. 당원이 뽀야 바친다는건.》

《젠장, 세포위원이란게 들치소 한가지구나. 자격이란게 있지 않니, 자격! 아 그런데 그 하늘같이 높고 높으신 김장군님께 쌀을 바치자문 못해 두 당원이 뽀야 할게 아닌가.》

억이 막힌 소리였지만 가슴 쓰리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저런 푼수 없는 소리까지 하겠는가.

그날 밤으로 아버지와 의논한 끝에 세포위원장을 만났다.

사람은 진국인데... 그지간도 한규의 입당문제를 놓고 가끔 말이 있었으나 《과거의 흠》이 걸림돌로 되여 있었다. 더구나 이때는 광복직후와 달리 입당대상을 채로 치듯이 엄선하는 판이라 더욱 난감했다. 저마끔 한숨들을 짓던 끝에 그동안 본인한테도 괴로울것이고 우리에게도 더 큰 실망을 안겨 줄수 있다는것으로 불문에 붙였던 《과거》를 정확히 알아 보자는것으로 락착을 보았다.

그 다음날 저녁 나는 밥술을 놓기 바쁘게 그의 집을 찾아 갔다. 살얼음진 둔덕길을 넘여 그의 집앞에 이르자 연한 웃음소리와 함께 흥 뽀 노래가락이 흘러 나왔다.

미세 당기세 미세 당기세

까투리가 날아 가면

장끼눔이 뒤따른다

뒤이어 꺾꼬리같이 고운 목소리가 그 노래를 되받았다.

봉항 같은 아들 낳으면

세상 으뜸 일군 되교

백합 같은 딸 낳으면  
세상 으뜸 효녀 되고

청 고운 목소리에 취해 슬깃슬깃 다가가던 나는 문창호지에 비낀 그림자를 보고 낮이 화끈해 굳어 졌다.

두사람의 모습이 하나로 엉켜 돌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처를 두손 받쳐 안아 든 한규는 방안을 빙빙 돌아 가며 이번에는 《어화둥둥》을 불러 댔다.

《아유- 이젠 내려봐 줘요.》

《어째.》

《아과요.》

《어이쿠, 우리 아가 웬일이냐. 어화둥둥 내 사랑아.》

나는 입을 싸진채 물러 섰다. 공교롭게도 마당에 흘린 장작가치를 건어 차는 바람에 방안의 말소리와 기척이 똑 끊어 졌다. 나는 도적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드바빠 고양이걸음을 하였다. 《누구요?》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리었다.

《아니, 적은이가 아닌가. 어서 들어 오라구. 어서.》

나는 진땀이 내뿜는 속에 노루막아주바이네 집으로 가던중이라고 둘러 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썩-하고 내달려 온 엄한규가 나의 어깨를 틀어 잡았다.

《저짓부리지.》

황소눈같이 어질고 맑아 진 눈을 보자 그를 속인다는것이 미안스러웠다.

《실은 마실을 왔됐는데...》

《응, 그러니 우리 료락서닐 보고 삼십륙계로구나.》

《안됐수다.》

《어익, 좀스럽다.》

한규는 내 잔등을 툭 치더니 뜨거운 입김을 쏘으며 속삭였다.

《우리 처가 애를 뱌어. 애를...》

《애기를?!...》

《그럼, 그래도 그냥 갈셈인가. 한잔 처 줘야지.》

《형님두, 내가 술 못하는것 알지 않수.》

《그럼 날 찾아 온 이유는 뭔가?》

노엽찬 소리였다.

《그렇다면... 좀... 저리 갑시다.》

나무가리뒤에 있는 쪽발구에 가앉은 나는 예뻐서 없다고 강심을 먹으며 말폭지를 뱉다.

《내 한가지 물을게 있수.》

《뭔데. 혹시 어제일때문에 아닌가.》

매바위에 올라 탄 쪼각달의 푸르스름한 빛발에

한규의 커다란 두눈이 님은 소방울처럼 번쩍였다.  
나는 툭 털어 놓고 말했다.

《그렇수꾸마. 다른것 아니구 형님이 강도질한것하구 가막소에 간거. 술집 생활한거... 죄다 알자는거우다.》

발구들이 움썩했다. 부르르 몸을 떠는 한규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줄기가 일어 섰다. 뭔가 큰 고향을 지르려는 형용이었다. 그러나 한규는 씩-하고 무거운 한숨만을 내쉬었다. 한참 있어서야 말을 떼었다.

《다들 그렇게 오끼(오해)를 하고 있나...》

《글쎄 말해 보우다.》

《허허.》

한규는 불시에 너털웃음을 터쳤다.

《그래 내가 강도질할 사람 같나?》

《...》

《하긴 나두 세월이나 나에 대해 뭔가 오끼를 하구 있다는걸 알았네만 임자까지...》

한규는 부드득 이를 갈았다.

《그럼 말하세나.》

이렇게 되어 나는 오늘날 소설이나 영화들에서나 보게 되는 슬픈 사실인 한토막을 듣게 되었다.

장주사를 때려 눕히고 청진으로 간 엄한규는 한동안 일거리를 잡지 못해 여기저기 떠도는 품팔이군이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세월이를 알게 되었다. 하오리바람으로 장거리를 밀러 다니던 왜놈 쟁까도리(싸움군)들이 물고기합지를 이고 가는 처녀를 희롱하고 있었다. 그 희롱을 받아 들이지 않자 물고기합지가 떨어 저 내리고 처녀의 옷이 갈기갈기 찢겨 졌다. 장마당엔 사람들이 많았건만 다들 혀만 찰뿐 어찌지를 못하고 있었다.

한규가 제지시키려 했다. 허나 그 대답으로 모두매가 날아 들었다. 힘이 억대우 같고 성정이 곧은 한규가 어찌 참을수 있으랴. 두놈이 태질을 당하고 한놈이 부살을 움켜 쥐고 공공거릴 때 쓰바(쇠나 빼끄라이트로 만든 흉기)를 든 놈이 그의 뒤꽂을 들이쳤다. 한규가 정신을 차린 곳은 세월이가 일하는 술집 뒤고방이었다. 머리에는 흰천이 두둑이 감겨있었다. 세월이가 자기의 속치마를 찢어 감싸맨것이였다. 미음그릇을 놓고 앉아 있던 세월은 한규가 정신을 차린것을 보자 눈물이 글썽해 반가와 했다. 한규로서는 어릴적 장질부사로 죽은 녀동생을 다시 보는듯 한 기분이었다. 세월이가 손수 미음을 떠먹일 때도 부끄러움이란 전혀 느끼지 못한채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

세월의 친척이라고 하는 술집주인내외도 한규에 대해서 여간만 친절하지 않았다. 한규의 일신사를 듣고는 자기들의 술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다. 한규로서는 술집이라는것으로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맞춤형 일자리도 없는데다 그들 내외의 친절과 계월이의 눈길에 끌려 선뜻 동의해 나갔다. 그런데 얼마간 지내놓고 보니 술집 주인이란 사람은 촌에서 갓 나온 한규가 부러 먹기 좋고 이름 짜한 망나니들을 짓조기는걸 보고 집 지키는 개비슷한 격으로 써먹는것이였다. 술집이 웬간히 피자면 주먹깨나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들한테는 한규가 안성맞춤이었던것이다. 이로부터 한규는 술망나니들을 다스리는 《주먹군》노릇과 함께 그 집에서 나무를 사오고 장작을 패고 불을 때고 술을 받아 오고 하는 온갖 허접 쓰레기일을 도맡아 하는 신세로 되고 말았다. 역스럽고 고달픈 일이라 떠날 생각도 있었으나 계월이때문에 참았다. 이 집에서 계월은 음식도 하고 손님대접도 하였는데 돈밖에 모르는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친척이라는 연고때문인지 몸 파는 일까지는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돈냥깨나 있는 놈이 오면 노래 부르는 일만은 꼭 하게 했다. 한규로서는 계월이가 술 취한 놈들이들앞에서 노래 부르는것이 제일 질색이였다. 그래서 계월이가 그런 방에 갈 때면 술머시 따라 가서는 인기척도 내고 안 나오는 기침까지 하면서 어슬렁거렸다. 주인도 그것을 알았으나 모르는척 했다.

한규가 온 뒤부터 왁자패들의 야료와 공술먹기가 적어 진때문이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열병에 걸려 덜덜 떨며 앉아 누운 한규에게 계월이가 달려 왔다. 주인이라는 사람이 반회장치마저고리를 주면서 오늘저녁에는 목욕도 하고 치장도 잘한 다음 귀한 손님 한명을 잘 접대하라고 했다는것이였다. 계월은 이제까지 그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비 맞은 병아리처럼 떨었다.

계월이도 한규와 같은 고아였다. 신통히도 장질부사가 돌아 한규네 부모들과 누이동생이 잘못된 해에 부모식솔을 죄다 잃고 친척집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 먹다가 한규보다 한해먼저 이 집에 자리 잡은 세월은 그 처지의 공통성때문에 한규를 더욱 따랐고 한규 역시 그런 사정을 듣고부터는 아예 혈불이처럼 계월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 수상스럽게 짝이 없는 《접대》에 계월이가 불러 간다는 사실을 놓고 어찌 누워만 있을 수 있겠는가. 계월이로부터 《접대》방을 알아 든 그는 귀한 손님이 온다는 그바루해서 기다실이 뒤마당에 나가 작대기 하나를 얻어 들었다. 그것 없이는 한걸음도 내질기 어려운 몸이였다.

복도처럼 긴 널마루 한쪽편의 기둥뒤에 쭈그리고 앉은 한규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 녀인들의 발길도 몇자 주인이라는 사람은 미달이 안쪽마루의 색전등마저 죄다 꺼버렸는데 그것으로 하여 계월이가 들어 간 방을 더 잘 살필수 있었다. 붉은색전등이 오염한 빛을 뿜는 그 방에서

계월의 노래소리가 울리고 그 뒤를 이어 너털웃음과 손벽 치는 소리를 들으며 한규는 장다리를 계속 꼬집어 댔다. 심한 고열로 정신이 흐려 지기때문이었다.

한식경도 못되어 그악을 부리는 웨침과 씹씩거리는 사내의 숨결이 흘러 나왔다. 끔 하고 일떠난 한규는 제잡담 문을 열어 젖히며 방으로 뛰쳐 들어 갔다.

계월은 옷이 흐트러진채 구렁이에 감긴 병아리 꼴이 되어 있었고 그를 덮쳐 안은 놈은 가슴팍이 온통 털부숭이인데 배꼽우의 문신을 보니 왜놈이었다. 후에 알았지만 이놈은 도경찰부장의 동생되는 오입쟁이로 북관땅의 미인들을 차례돌림으로 못쓰게 만드는 색마였다. 놈은 그런 개짓을 하는 왁자패들이 대개 그러하듯 호신용단도까지 가지고 있었다. 한규가 앓지 않을 때라면 그간것이 무엇이라. 작대기덕택으로 그놈을 겨우 때려 눕혔다. 다행스러운것은 그때까지 주인이건 뭐건 얼씬하지 않은것이다. 이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건 꿈쩍 말라고 한 주인놈의 신척때문이었다.

《죽었어요.》 계월이가 하는 말에 엄한규는 정신을 차렸다. 놈은 정말 죽은것 같았다. 먼저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절반 사색이 된 계월을 그냥 두고 간다는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여 무작정 계월의 손을 틀어 잡고 밖으로 뛰쳐 나갔다. 달도 없는 밤이라 천방지축 내달리다가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을 몇개나 넘었는지 모른다. 열병도 그 길에서 툭 떨어 진듯 했으나 어느 한 산골짜기의 초가마리에 들어 서자 정신도 기운도 죄다 사라져 버렸다.

나흘간을 꼬박 누워 앓은 끝에 일어 나보니 먹고 살 일이 막막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들, 며느리 내외가 함께 사는 초가마리주인들의 인심은 후터웠으나 하루 두끼 송기죽으로 지내는 집의 군식구로 놀러 살순 없었다.

어데로 가서 어떻게 살것인가.

아직도 걸음걸이가 제대로 못되어 먼 길을 갈수 없는 형편이라 전전공공하고 있을 때 계월이가 소리없이 사라졌다.

주인집할아버지는 계월이가 뭔가 변통을 하겠다고 떠나갔다고 했지만 한규로서는 부아가 터질 지경이었다. 역시 술집에서 치어나다나니 버릇이 잘못 붙었다고 원망도 하고 한탄도 했다.

그런데 계월이가 떠난지 닷새만에 우편배달이 편지를 가지고 나타났다. 이 집 로인의 이름으로 온 편지봉투안에는 돈 20원과 한규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었다. 글을 모르는 계월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쓴 편지에는 병이 도치지 않는가, 다달이 돈을 부칠터이니 피로운대로 그 집에 그냥 놀러 살면서 다른 소식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규는 울었다. 세월은 자기때문에 그 한심스럽게 그지없는 친척이라는 자의 술집에 다시 간 것이었다. 사내명색에 돈과 편지를 받고 그냥 있다는 것이 죄스러워 졌다. 무엇보다 그 친척이라는 자의 손에서 세월을 빼내야 한다는 생각이 불같이 앞섰다. 하여 신세막심한 집에 하직인사를 고하고 세월을 찾아 떠났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도경찰부장의 동생을 중태에 빠뜨렸다는 죄명으로 한규에게 지명수배가 붙어 있었다. 결국 한규는 술집어방을 에돌다가 세월이와는 만나지도 못한채 오라를 지게 되었다. 그 다음 재판을 받고 청진감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재판정 증인으로 출석한 술집주인에게 세월이가 잘못되는 날에는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길로 밝아 죽이겠다고 한 말때문에 형기를 만년 넘게 더 받았다.

그때의 으뜸장타인지 광복덕에 놓여 나오니 그런대로 세월이가 무사한 것이 기쁨으로 되었다. 한규가 역을 지고 살 때 세월이가 여러번 면회를 왔다고 했다. 면회실 창구멍으로 정성스레 담아 쓴 음식꾸레미를 들이 밀며 눈물이 갈그렁해 부디 건강하라고 당부하는 세월의 모습은 두번 죽었다 살아 나도 이 녀자와는 헤어질수 없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여 감옥에서 풀려 나면 그가 설사 몸을 망쳤더라도 일생 떠받들며 살겠다는 결심을 굳히었고 실지 그렇게 되어 짝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렇겠지.》

한규의 과거사를 알게 된 마을어른들은 하나같이 무릎을 쳤다. 이로부터 한달후에 한규의 입당 문제가 결정되었고(이 일때문에 세포위원장은 물론 비당원인 쏘새령감까지 군당에 찾아 다녔음을 부인하게 된다.) 이듬해 봄에는 한규의 처가 쌍둥이를 그것도 오누이를 낳았다. 그 집의 경사이자 까툴골의 경사였다.

《장끼와 까투리가 알맞춤 날겠구나.》

서당집할아버지는 이 일을 놓고 세월이 좋아가는 징조라고 하였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로 한규와 세포위원장이 당책벌을 받는 사건이 생겼다.

일인즉은 군당지도사업차로 나왔던 도당부장이라는 사람이 까툴골에 찾아 뜬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장주사의 사랑채에 당원들을 모이게 한 그는 사전료해를 어떻게 했던지 다짜고짜 《반봉건투쟁》에서의 《태공》을 놓고 억지다짐의 추상 같은 질책으로 절반 벌거 놓은 다음 매 당원들을 불러 세웠다.

남녀평등권법령이 언제 나왔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너필중부》(녀자는 남편의 노복이라는 뜻)인가. 녀자들은 남정네만 나타나면 머리를 수그리고 길까지 비켜 선다는데 이런 《까막산골》이 어디 있는가. 그뿐인가. 여기 남자들은 몇살우의 사람만 보면 무릎절인지 앉은절인지 한하는데 이

거야 공자 맹자의 수제자이지 맑스, 레닌선생의 프로레타리아트라고 할수 있는가. 우리 당은 당신들과 같은 농민들도 프로레타리아투사로 되기를 바란다, 프로레타리아투사! 프로레타리아투사는 첫째도 둘째도 오직 투쟁, 투쟁만을 알아야 한다... 도당부장이라는 사람의 말을 쥐어 짜면 이것이 전부라고 할수 있다. (미리 밝혀 두건대 이 부장이라는 사람은 당시 우리 도당의 요직에 잠입했던 종파분자 장순명과 단짝을 이루고 있던 《얼마우재》였다.)

《그래 계속 봉건편에 설텐가.》

도당부장의 서슬 푸른 물음에 다들 입을 비끄러매고 있었으나 한규만은 레외였다.

《설에 세배랑 할 때두... 무릎절을 하면 안됩니까.》

《허, 이 사람이, 그래 동문 계속 봉건질을 하겠다는건가.》

《봉건질이야... 그렇지만... 세배를 할 때 그냥 뻗치구 서 있을수야 없지 않수꾸마.》

탕! 오동나무웅접탁이 드르릉 울었다.

《동무도 당원이야? 어떻게 돼서 저런 사람이 당에 들었는가.》

부라리는 눈매가 험악스러웠다. 그와 함께 왔던 군당일군이 뭐라 말하자 시퍼렇게 질려 굳이 젖던 얼굴에 차거운 비웃음이 비졌다.

《문제가 있구만. 문제가... 동문 나가보우.》

뻥뻥한 긴장이 서린 가운데 엄한규가 나가자 그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졌다.

《저 동무를 출당시키는데 찬성하는 동무들은 손을 드시오.》

너무나도 뜻밖의 사태에 다들 아연실색한 기색으로 침묵을 지키자 부장은 느닷없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문제로군. 다들 싸고 돈다?!... 세포위원장! 동무부터 의견을 말해 보오.》

세포위원장도 절반 사색이 된 얼굴로 일어 섰으나 말은 바르게 했다.

《그 동물... 출당시키는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동문... 사람이 진국인데다가...》

《여보!》

또 한번 웅접탁이 울었다. 세포위원장을 쏘보던 눈길은 우리에게 멎었다.

《동무들도 이 세포위원장과 같은 생각인가.》

《...》

《흞, 그러고 보니 여긴 부하린도당의 소굴이구만.》

이렇게 되어 엄한규의 출당은 책벌로 바뀐 대신 세포위원장도 경고책벌을 받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만스럽게 그지없는 일이었으나 더 다른 방법은 없었다.

까툴골당원모두에게 가슴 아픈 상처로 된 이 사건이 있는지 얼마후 군에 갔던 춘영의 오빠가

꼭두새벽에 되달려 왔다.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군을 찾으시여 우리 같은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만나 담화도 하시고 연설도 하신후 전날 저녁 온 천골로 떠나셨다는 희한스런 소식때문이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온천골이라면 우리 골안과 오륙십리 채 안되는 곳이었다. 다들 그분을 만나뵙겠다고 떨쳐 나설 때 마을존장들이 말렸다. 김정숙동지께서 아무리 농민과 노동자들까지 만나주셨다지만 까막산골바우들이 마구 밀려가서야 되겠는가.

장시간의 공론속에 세포위원장과 내가 가기로 의합을 보았다. 하여 단벌치기 나들이옷을 갈아입은 나와 세포위원장이 온 마을의 전송을 받으며 길을 떠나게 되었다. 정한 옷을 마치지 않자면 행길로 가야 했으나 달리는 마음에 끌려 산길을 탔다. 행길로보다 한두시간 단축할수 있는 길이기때문이었다. 그런데 험한 산 두세개를 넘자 배잠뱅이차림의 엄한규가 험씩이며 다쫓아 왔다. 새벽바람으로 송이버섯을 따러 올라 갔던 그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이처럼 다쫓아 온것이였다. 먼발치에서 뵈기만 한다는 약속말에 함께 갔다. 가는 도중에 전설처럼 알려 진 김일성장군님의 축지법이며 백두산녀장수의 신묘한 사격술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저… 임금님을 만날 때 존전에 헌신하옵니다던가 알현하옵니다던가?》

이야기도중 엄한규가 문득 이런 물음을 올렸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해 하는데 그가 재차 말했다.

《거 있잖아. 서당집할아버지가 들려 주던 옛책에서 상감마마를 만나뵈일 때 소인… 아무개하는…》

《엄동무, 그게 봉건이라는거요.》

세포위원장이 눈을 부라리는 바람에 한규는 짙금해 입을 다물었다.

점심녘 채 안되어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가나다대결》에 이르렀다. 《가나다》란 이 고장에 틀고 있던 왜놈기업가의 이름이었는데 그놈이 지어놓은 이 《대결》에서는 그 비슷한 왜놈과 부자들이 온천욕을 하며 즐겼다고 했다.

마침 지나가는 한 청년을 통해 지금 이곳에는 반일운동을 하다가 몸을 다친분과 김일성장군님 밑에서 싸우다가 철알을 맞았던 투사들 몇이 와서 치료를 받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백두산녀장수께서 와계시는가의 여부는 그도 잘 모르고 있었다. 줄지에 맥이 풀리고 그간의 용기도 사그라 졌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집박을 예도는데 어깨가 딱 바그라지고 눈이 칼끝 같은 젊은이가 우리를 멈춰 세웠다. 보위색군복을 입은데다가 총까지 멘것으로 대번에 기가 질렸다.

어데서 왔는가, 무엇때문에 왔는가, 아래우를 훑어 보며 따져 드는 물음에 내가 김정숙녀사를

뵈자고 왔다는 말을 하자 그는 대번에 코방귀를 뀌었다.

《흥, 다들 이 모양이라니까. 도대체 제 정신이 있는 동무들이요. 녀사께서는 지난 밤도 꼬박 밝히시고 오늘은 약초때문에 몇십리를 걸으셨단 말이요. 그러니 두말 말고 썩 돌아 가요. 썩!》

《아저씨!》 하는 소리에 사납던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 졌다. 오래전부터 와 있던듯 싶은 뱀장개(칠성고기) 몇마리를 버들가지에 꿰 소년이 나무 람어린 눈길로 《호통쟁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와 눈길이 마주치자 각듯이 인사를 했다. 레사치 않은 소년이라는것으로 우리는 얼른 머리를 끄덕였다.

《아이, 많이 잡았꾸마. 정말 대단합니다.》

《호통쟁이》가 반색하는 말에 소년은 민망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아저씨, 난 그렇게 말씀하시는것 싫어요.》

소년은 또 한번 우리를 쳐다보고는 집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사라지자 쑥스러운 기색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던 《호통쟁이》가 자못 상냥스럽게 말했다.

《내가 좀 소릴 쳤는데 량해를 하시우다. 나두 이 고장사람인데 동무를 맘이야 왜 모르겠소.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시우. 이렇다할 용건도 없이 다들 만나뵈자고만 오니… 그제 건국하는 인민의 도린가 말이요. 방금두 봤겠지만 저기… 어리신 자제분두 제가 자시자고 뱀장개를 낚은줄 아시우. 녀사님께서 아끼시는 혁명자들때문에 그런단말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들 가우다. 이젠 내 혼자소리가 아니라 우리 군보안대장동지의 특별명령이우다. 명령! 명령이 뭐인지 아시우?》

그의 눈은 다시 칼끝처럼 되었다. 그때 《박동무!》 하는 소리와 함께 눈매가 별 같은 녀인이 나타났다. 그 뒤로는 방금 들어 왔던 소년이 따르고.

나는 《박동무》라는 책망어린 음성과 그 녀인을 본 순간 총창처럼 쏘듯해 진 《호통쟁이》를 보면서 그 녀인이 다름 아닌 김정숙동지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내 생각이 맞았다.

《나를 찾아 오셨다지요. 제가 김정숙입니다.》

그이께서는 활기찬 웃음을 머금으시며 뜨겁게 손을 잡아 주시였다. 어리둥절해 졌다. 그 당시 약속법이 생겨 난것은 알고 있었지만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손까지 잡아 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떻게 왔느냐는 그의 물으심에 까툴골농민들의 이름으로 인사를 올리러 왔다고 말씀 드렸다. 그이께서는 무척 반가와 하시면서도 딱해 하는 기색이었다.

《그때문에 예까지 오시다니요. 인사로 말하면 독립군을 하던 로인님들도 많으시다는데 제가 먼저 가뵈는것이 옳은것인데.》 라고 하시면서 집으

로 들어 가자고 하셨다. 들어 가고 싶었다. 하지만 정하게 비다듬어 입은 옷이긴 하지만 험한 산길을 오다나니 신발로부터 바지아래단까지 말이 아니어서 그만 돌아 가겠다고 했다.

《돌아 가다니요.》

그이께서 채차 들어 가자고 말씀하실 때 《호통쟁이》 박동무가 엄한규를 잡아 냈다. 집을 둘러싼 콩치림속에서 기웃거리는 그를 누군들 수상스럽게 보지 않겠는가. 박동무의 손에 끌려 나오는 그의 물결이 말이 아니었다. 걷어 올린 베바지 아래단의 장판지는 풀과 흙에 게발려져 있었고 피터진 자욱도 여러 곳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자못 의아해 하시는 기색이었다. 세포위원장께서 둘러 그가 우리 끝안사람이고 당원이라는 것을 못박아 말씀 드렸다.

《그런데...》

그이께서 엄한규를 보실 때 한규는 무너지듯 꿇어 앉으며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렸다.

《너사님!》

나는 속이 한줄만 해졌다. 《상감마마》와 《존지에 현신》이라던 그의 말이 되살아 오르며 혹시 그런 말이 튀어 나오지 않을까 하여 겁이 더러웠다. 다행스럽게도 한규는 엎드리기만 했을뿐더러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아니, 이 동무가.》

박동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상을 하며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때야 김정숙동지의 안색이 몹시 흐려 있음을, 노기라고 할지 슬픔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그늘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보았다. 엄한규도 그것을 알아 차렸던지 황황한 눈길을 어디다 돌지 몰라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래 무슨 일인가요?》

김정숙동지의 부드러운 물으심에 엄한규의 눈굽이 불깃해 졌다. 꺾꺾 막히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 너사님! 저때문에... 우리 세포위원장동무가 책벌을 받았습시다.》

《책벌이라니요?!》

내가 말씀 드렸다. 엄한규의 과거사로부터 그와세포위원장의 책벌경위를 다 듣고 나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이의 눈에도 물기가 고이는 듯 싶었다.

《다들 좋은 동무들이군요.》

그이께서는 엄한규로부터 나와 세포위원장을 따뜻한 눈길로 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우리 세상에서 동무들과 이웃들을 위하고 아끼는것이상 아름다운것은 없어요.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일찌기 우리 장군님께서 혁명은 투쟁인 동시에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겨레와 동지들,

부모처자들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 우리가 투쟁하는 목적도 바로 이런 사랑이 온 나라에 차넘치

게 하자는것이예요. 착취와 압박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오직 사랑과 화목, 기쁨만이 넘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열정 넘쳐 하시던 그이의 말씀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비록 30분 채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이날에 들려 주신 그이의 말씀으로 하여 우리는 혁명과 투쟁의 온갖 진리를 다 터득한 듯 싶었다. 김정숙동지와 헤어져 얼마 못 갔을 때 뜻밖에도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를 찾으시었다.

《이걸 바르십시오.》

그이께서는 눈이 휘둥그레서 있는 엄한규에게 크지 않은 약병을 주시며 장판지의 상처자욱을 가리켜 보이시었다.

《의사선생님들은 자그마한 상처라도 꼭꼭 약을 발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머님도 마음을 놓으실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리신 장군님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내뿜어 있었다. 그이와 헤어져 산언덕을 하나 넘어 섰을 때 엄한규가 불현듯 풀썩 주저 앉으며 나무통을 들이쳤다.

《이거야 어디.》

황소영각 같은 소리를 내었다.

《이봐, 이게 무슨 약인지 아니. 아까징크란거야. 장주사란 놈은 매발톱에 조그마한 굵힌 자리만 나도 이걸 바르군 했는데 내 장판지가 찍 갈라져 피가 날 때도 그 약은 빛도 보이지 않았어. 한데... 세상 이런 인정이 어데 있나 응. 어데 말해보라구.》

조국해방전쟁이 일자 우리 고장은 원래의 이름 뜻 그대로 까투리골이 되고 말았다. 땃땃한 남자들은 다 군대로 나가고 나나 한규처럼 신체검사에 불합격이 된(한규는 평발이었다.) 남자들만이 남았다. 이렇게 남은 남자들도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시기에는 다들 관모산줄기를 타고 유격대활동을 하였다. 보름가웃 집을 떠나 싸우다가 재진공과 함께 마을에 돌아오니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불행이 한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처인 세월이가 동리 소들을 다 잡아 먹은 피뢰군중대의 중대장과 함께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 중대장이라는자는 그전 술집주인노릇을 하던 5촌당숙벌 되는 사람의 아들로써 세월이의 음식습씨때문에 제놈의 식모노릇을 하게 했다는것은 그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당장은 아이들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하는수없이 끌려 갔다는 세월의 문제로 하여 동리사람들의 안부도 미처 물을새없이 한규네 집부터 찾아달려 갔다.

온통 수라장이 된 한규네 집에서는 썩새령감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규는 보이지 않고 그가 썩새령감에게 말기고 간 편지가(한규는 광복된 이듬해에 문맹퇴치를 하였다.) 있었다.

-세포위원장동지앞, 처와 아이들을 찾으러 갑니다.



단 두줄짜리 편지를 본 나는 땅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꿈새령감이 붙잡으려다 못해 끝내 놓치고 말았다는 소리에 자리를 차고 일어선 나는 집안식구들을 만나려 홀어 진 대원들 몇몇을 불러 두세시간전에 적들이 쫓겨 난 길을 따라 줄달음을 쳤으나 군에 이르렀을 때는 적들이 도망치며 질러놓은 불을 끄느라 범석이었고 일단 거기까지 가니 한규를 찾는다는것은 바다속의 바늘을 찾기보다 더 어려우리라는것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규는 열흘이 지나도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규를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군내무서원으로 판모산유격대의 정찰조원이었던 그의 말에 의하면 한규 비슷한 사람이 어대진바다가에 세워 둔 적의 배에 오르다가 치렬한 육박격투 끝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여러명의 적들이 그를 무슨 마대짜처럼 바다물에 집어 던졌다고 했다. 그 사실의 진가를 확인하려 우리 마을사람 거의다가 어대진 앞바다를 이틀씩이나 훑어 헤맸지만 《원자란》 선전바람에 끌려 가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람 몇만을 보았을뿐 한규나 한규를 알아 볼만 한 아무런 물건짝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행여나 하던 마지막희망과 기대마저 허물어 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규를 원망하게 됨과 함께 그보다 세월이라는 녀자를 놓고 분함을 참을길 없었다. 집안어른들과 마을로인들은 그가 간 것이 제 뜻이 아니라 피뢰군중대장의 억지다짐이었다고 채삼 말했지만 제아무리 억지센 피뢰군중대장일지라도 사생결단하고 뻗쳐 대는 사람이라면 부디 꼭 끌고 갈수야 없지 않겠는가.

나의 이런 분통어린 말에 대해 세월이한테서 크게 신세를 졌다는 집안어른들과 마을로인들도 이렇다할 반대말을 못했다.

세월의 신세라는것은 장주사내 소외양간자리에 갇혔던 어른들이 거의 매일이다싶이 세월이 가져다 주는 옷가지며 음식꾸레미덕에 살아 난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뒤 재진공의 열과속에도 나도 인차 군대에 입대할수 있었는데 이따금 주고 받는 편지를 통해 한규의 뒤소식에 관심을 돌렸으나 그의 행처는 전쟁이 끝난 뒤까지도 밝혀 지지 않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 날리가 있는가. 비통한 결론속에 아까운 사람을 잃게 한 세월에 대해 지울수 없는 한을 품게 되었다. 《녀자란 약한 존재》라거니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다거니 하는 외국책들에서 나오는 글귀들을 들을 때면 세월을 련상하게 되었고 그 곱디고운 얼굴도 흉물의 가면처럼 느껴 졌다. 나의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컸던지 《세월》이라는 이름을 놓고도 락인의 도수를 더 높이게 되었다. 옛날부터

화류계나 기생노릇을 하는 녀자들의 거개가 명월이요, 화월이요 하며 달 《월》자를 즐겨 썼다는것으로 그전 술집 생활에서의 정신까지 의심하게 되었고 그의 집 래력이 기생물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세월이에 대한 이와 같은 감정은 그후 나의 인생길에 부닥친 젊은 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역할을 미쳤다. 아니, 부정적역할이라기보다 부정적견해라고 하는것이 정확할것이다.

정치부중대장을 하던 내가 군대에 더 있지 못하고 제대된것은 1211고지계선에서 싸울 때 당한 심한 타박상의 후유증때문이었다. 그때문에 제대길은 곧바로 전상자병원으로 이어 졌는데 평양을 지나던 길에 이미 제대된 전우들의 집에 들렸다. 피로써 맺어 진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 좌석에는 녀성들도 오군 했는데 거기서 나는 한 녀인과 눈이 맞게 되었다. 어느 성의 교환수로 일한다는 녀자는 인물도 처신도 나무랄데가 없었고 첫 대면에서부터 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한것이지만 세월이와 비슷한 용모와 살색에 행동거지까지 비슷했다. 그옥한 호수 같은 눈이며 간호원들과 엇섞여 가르르 웃음을 터칠 때의 입가에 새겨 지는 두세줄기 주름살마저 신통히 세월이를 닮았다고 할수 있었다.

전우들의 부촉임속에 이른바 사랑의 고백 비슷한 말들이 오가게 되자 녀인은 전상자병원에까지 따라 와 입 맞는 음식을 사온다 검진정형을 알아본다 하며 더없이 각근한 정을 보였다. 검진과정에 간이 나쁘다는것을 알고서는 산꿀까지 구해다주며 신심을 잃지 말라고 따뜻한 위로와 고무의 말도 해주었다. 그런데 대퇴부타박처에 대한 투시조건에서 하반신마비가 올수 있다는 결론이 내리자 그만 휴가기일이 끝났다는것으로 병원을 떠나고 말았다. 그 다음 한장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눈물자국이 점점이 어려 있는 편지장에는 부모들의 강박으로 다른 대상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니 널리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뒤 전우들을 통해 알아 본데 의하면 그때의 결혼이란 알쫄한 거짓말이었고 일년이 켜 지난후에야 어느 한 무역일군에게 시집을 갔다고 했다.

이것은 나에게 커다란 심적타격으로 된 동시에 세월이와 더불어 녀자 일반을 더깊이 연구하게 된 계기로 되었다. 후날 내가 문학에로의 길로 들어 선것은 전쟁시기 함께 싸우다 희생된 전우들의 투쟁을 후세에 전하자는것과 타박상후파로 별찬 일을 못하게 된다는것이 주되는 요인으로 되었지만 우리 사람들에게서 있을수 없는 그 비슷한 배신을 타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여 문학통신원으로부터 문예잡지 편집원, 작가로 조국

발전의 현실과 더불어 성장하는 나날에 인간과 사랑, 사랑과 조국이라는 주제의 글도 몇편 썼으니 그때마다 그 너자는 물론 한글과 세월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머리에 백발이 없혀진 오늘에 와서는 그 너자와 세월에 대해서는 거의나 잊다싶이했고 가끔 한글을 그려 볼 때마다 《에이 한심한》하는 정도로 쉽게 기억에서 지워 버렸다. 고향인 까툰골에서도 한글나 세월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손 꼽아 몇 안되었었다.

그런 어느 날 엄한규가 나타났다.

온 나라가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놓고 환호를 올리고 신문과 텔레비전에 그들의 모습과 투쟁담들이 련이어 실리는 때에...

## 마감. 사랑의 힘

인조대리석바닥의 방에는 당중앙위원회 일군과 나, 엄한규의 소식을 《안고 온》 비전향장기수가 있었다.

《알아 볼것 같습니까?》

《알아 보구 말구요.》

나는 치받치는 흥분을 누르며 록화기의 화면을 지켜 보았다. 화면의 질은 좋지 못했다. 중간중간 지워진 곳이 많아 부득불 비전향장기수의 보충설명을 들어야 했고 나는 나대로 제판의 상상을 보태야 했다. 이 록화테프는 이 비전향장기수가 가지고 왔는데 국심원 요원들의 손을 거치는 바람에 대부분의 화면들이 지워졌다고 했다.

네면벽이 유난히 하얀 크지 않은 방에는 텔레비존화면을 통해 알게 된 몇몇 비전향장기수들과 각양각색의 남녀들, 기자완장을 두르고 카메라와 록화촬영기를 든 사람들로 차고 넘쳤다. 그통에 잡음이 심했고 묻고 대답하는 말소리도 잘 가려 들을수 없었다.

다행히도 화면의 초점은 침대우에 누워있는 수염이 더부룩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나를 알겠는고?》

대답은 없었다.

가죽박피에 묶이운채 천정만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수염이 더부룩한 사람을 놓고 엄한규라고 하기에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의 풍우를 가산한다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았다. 폭 꺼져 든 불로 하여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관골과 덩실한 코마루로써 엄한규의 실체라고 믿었다. 어찌 보면 이미 숨을 거둔 뒤 같았으나 점적대의 관으로 흘러내리는 약물방울을 보며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시간 안 있어 끝날 그의 마지막호흡을 지키고 함께 그의 최후의 말을 들으려 모인 감옥동지들과 비전향장기수후원

회 성원들 그리고 《말》잡지와 《한겨레신문》기자들이었다.

그를 가죽박피로 결박해 놓은것은 폭발적인 요동으로 심장이 멎을수 있어 취한 조치라고 했다.

《그럼 나도 모르겠나.》

지리산빨찌산에서 싸운것으로 신문에 알려진 한 비전향장기수가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엄한규는 그때도 물끄러미 보지만 했다.

《이 문둥아, 그럼 니 이름은 뭐냐.》

《뭐라꼬.》

남도말투였다. 한글이 입을 뗀것으로 술한 마이크와 록음기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켰다.

《니 이름 말이다. 니 이름. 고향 가셔도 머저리 되던 어찌느냐.》

울음찬 소리에 엄한규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가슴이 조여 들었다. 적들의 심한 고문으로 20여년전부터 기억력이 적잖게 마비된데다가 뇌타박후유증에 치명적인 뇌출혈로 생명도 사고도 분초를 다투는 마지막시각이기에 더욱 그랬다.

《뭐라꼬, 고향?》

《응, 고향말이다. 그래야 데려갈것 아니냐.》

침대가 움썩했다. 온몸을 떨며 일떠서려는 그를 여러 손이 제지시켰다. 불시에 그의 입에서 놀랄만큼 발음이 똑똑한 말소리가 튀어나왔다.

《나 엄한규, 까툰골사람이다. 까툰골, 까툰골이다.》

나는 가슴이 몽클해졌다. 그의 본래 고향은 남강원도인것이다.

《옳다, 맞아.》 누군가 그의 어깨를 다듬어 주자 한글의 얼굴에 웃음이 피는듯 싶었다.

《통일, 통일을 해야 돼. 까툰골사람들. 얼마나 좋은지 아니. 손을 잡아라.》

《옳다 옳아.》

한규의 얼굴빛이 갑자기 험악해졌다. 목소리도 괴성이었다.

《니들 알아라. 이 벌거지들아... 우리 백두산...》

여기서 말이 끊어졌다. 말이 끊어졌을뿐 아니라 화면은 거뭇게 흐려지고 희스름한 줄들만이 어지럽게 뒹놀았다.

순수건으로 눈굽을 닦던 비전향장기수가 말을 떴었다.

《<국정원>량반들이 저 대목을 지워버린것은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선전때문이었습니다. 이자 <...벌거지들아...>라구 한것은 놈들과 대드리판 싸움을 벌리며 한 소리였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사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엄동지가 아니었다면... 영상사진은 잃었을것입니다. 그가... 몸뒤짐을 하는 놈들과 맞붙어 싸우는 사이에 다른 사동으로

보낼수 있었으니까요... 그통에 엄동진... 반주검이 되었겠지요.》

비전향장기수는 잠시 말을 끊고 있다가 계속했다.

《평소의 엄한규동지는 늘 고향소리를 하면서 고향에 가기 위해서도 죽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문에 놈들의 웬간한 모욕과 드살쪼에는 맞서지두 않았고 결의 우리 동지들까지도 보기 민망할 정도로 고분고분하기까지 했는데... 놈들도 정 악질들을 내놓고는 그의 사내싼 인품과 락천적인 행동거지때문에 그닥 심하게는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전향장기수들을 없애는 전향공작반이 나오고 전향테로가 벌이지자부터 사자처럼 사나와 졌는데 원체 기운이 장사여서 제몸에 닿는 매채쪼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지만 동지들이 고문을 당할제면 온 감방이 떠나갈듯이 야단을 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통에 누구보다 고문도 심하게 당하구 늘 먹감방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야... 이 자리엔 엄동지가 와 있었을테지요.》

비전향장기수는 또다시 눈굽을 훔쳤다. 나도 흐르는 눈물을 감출수 없었다.

《그가 뇌를 상한 다음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웅근 이틀을 자지도 먹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가 처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작가선생의 이름을 부르며 <야, 너 날 욕 많이 했지. 하지만 까툴골의 엄한규야 엄한규지 다른 사람이 됐겠니.>라고 하곤 병글썩 웃었습니다.》

그가 체포된것은 전쟁직후에 얼마 안 남은 오대산빨찌산의 마지막소조를 이끌고 북행길에 올랐을 때입니다.》

비전향장기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어졌다. 록화기의 화면이 되살아 났던것이였다.

침대가 놓였던 방이 아니라 두면벽에 가장집몰과 책들이 가득 쌓인 널찍한 방이 나타났다.

옛날식의 상복차림에 베갯두를 쓴 사람들과 양복에 검은 완장을 낀 사람들이 숙연한 자세로 줄서 있었다.

엄한규가 나를 보고 있었다.

검은 땡기가 드리운 사진속의 엄한규는 까툴골의 소년때처럼 까까중이였는데 똑 부릅뜬 눈에는 조소와 분노가 비껴 있었다. 가슴팍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감옥에서 찍은 사진을 확대한것이라고 했다. 제상밀의 향불연기가 모락모락 피여 오르며 일종의 환각을 불러 일으켰다.

환히 웃고 있는 엄한규가 보이는가 하면 언젠가처럼 씩게 우는 모습으로도 보였다.

텔레비죤에서 본 몇명의 비전향장기수들과 생판 알지 못할 늙고 젊은 남녀 몇이 고인과 작별하는인사말들을 하였다. 이번에는 먼저번처럼 화면까지는 지워 지지 않았으나 각자의 추도사이자 애도사로 되는 부음의 말들은 거의나 찢려 졌다.

대부분 그들의 입놀림과 비분에 찬 모습들로 하여 그 내용을 어렵곳이 짐작할수 있었다.

병원방장면에서도 피땀 본바 있는 흰 조선치마 저고리에 머리도 하얀 녀인이 맨 먼저 제술을 붓고 그뒤를 이어 비전향장기수들과 비전향장기수 후원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술을 부었다.

식의 마지막은 모두가 팔을 걷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것으로 시작되었는데 3절이 끝나기 바쁘게 화면은 또다시 지워 졌고 가로줄만이 계속 뛰놀았다. 나는 지워진 그 화면이 무척 보고 싶었으나 물을념을 하지 않았고 록화테프를 가져 온 비전향장기수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태도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하긴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속에 내가 먼저 말을 떼었다.

《시신은... 화장을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유골함이라도... 가져 올수 없었는가요?》

나의 물음에 흐려 졌던 비전향장기수의 얼굴이 한결 밝아 졌다.

《그건 앞으로 꼭 오게 될겁니다. 그의 유언이 있으니까요.》

《한데 앞으로란건...》

《그 유골함은 엄동지의 부인이 전사하고 있습니다.》

《부인?!... 부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리단심이라고 하는데.》

《리단심이라구요?》

순간적으로 번쩍하던 기대가 허물어 졌다. 나의 얼굴색을 가늠해 본 비전향장기수로인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그 부인도 작가선생과 까툴골사람들이 잘 알수 있는 녀인입니다. 그는 늘 작가선생네에 대해 말했고... 참 내가 늙다 보니... 그의 본명은 리계월이라고 나랑 우리 여러 동지들이 지금까지 살게 된데는 그 부인의 공덕이 정말 큼니다.》

나는 숨이 꼭 막혀 드는듯 했다.

《리계월! 그러니 엄한규동지의 부인도 우리 사람이였습니까?》

《우리 사람?!... 작가선생이 우리 사람이라고 한 뜻은 채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껏 살고 있는것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하데 있고... 또 복을, 우리 공화국을 진심으로 동정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해야 할테지요.》

머리가 핑 돌았다. 심장이 잦은 복을 쳤다.

《그가 우리 편이 된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나는 70대의 작가라기보다 10대의 소년처럼 되고 말았다. 비전향장기수로인은 눈이 휘둥그레 보다가 말을 떼었다.

《지리산빨찌산에 있던 내가 그 부인을 알게 된것은 엄동지와 같은 감옥에 있을 때인 1955년부터인데 그 부인에 대해선 엄동지한테서보다 오대

산에서 그와 함께 싸우던 동지한테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살았다면 좀 더 자상히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대략 들은데 의하면 51년 봄 오대산빨찌산의 한개 소조가 경찰서 구류장에 갇혀 있는 엄동지와 리단심녀성을 구출했답니다.》

《그때 아이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껌먹이 아들이 있었다는데 엄동지 말로는 그 애 쌍둥이누이동생도 있었는데 남으로 나올 때 잘못되었답니다. 그들이 무엇때문에 남으로 왔는지는 그도 부인도 말을 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러니 엄한규동진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로 오대산빨찌산에 갔겠습니까.》

《아니, 그는 고향으로 간다고 그들과 헤어졌는데 두달후에 다시 찾아 왔더랍니다. 처음엔 다들 투쟁심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별치 않게 봤지만 2년 안가서 지대장까지 하였으니 그가 어떤 투사였는가는 충분히 짐작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지요. 한데 그의 부인은 언제부터... 우리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글쎄, 제 짐작으로는 빨찌산의 비밀아지트의 공작원을 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부인의 말로는 아무것도 한것 없다고 한결 봐서는 그 말을 믿어야겠지요. 엄동지의 말을 들어 봐도 그렇고... 엄동지가 그 부인을 다시 만난것은 적들에게 체포된 사실이 신문에 난 때였다고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면회를 왔는데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후원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자그마한 음식점을 차려 놓고 돈을 좀 모았는데 그 돈이 우리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눈물이 콧 솟구쳤다. 다행히도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제끼 옷에 넥타이까지 맨 엄한규가 자그마한 앉은뱅이책상앞에 울방자를 틀고 앉아 있고 교복차림의 젊은 남녀들이 경건한 눈길로 그를 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는것은 우리 혁명에 대한 소신피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혁명은... 겨레와 동지들, 부모처자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것입니다. 이것은...》

엄한규가 한다하는 교사처럼 한손을 쳐들며 엄숙한 표정을 짓는 순간 또다시 화면이 지워 졌고 뒤이어 끝났다는 표식이 새겨 졌다.

이 순간 나는 반세기전의 온천골로 가 있었다. 지금 나는 휴양소의 특별호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까툴골의 장주사집터에 새로 세운 이 휴양

소는 로력혁신자들만을 받고 있는 휴양소라지만 까툴골사람, 까툴골의 영웅을 소개한다고 하니 《특빈》대접을 받게 된것이다.

글을 쓰다가도 뭔가 막히거나 감정이 격할 때면 비록 나이 많은 몸이긴 하지만 그제날 엄한규와 함께 올랐던 관모봉 제일 높은 바위부리에 오르곤한다. 그곳에서는 백두산이 보인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디서나 백두산이 보이지만 이곳에서는 마음으로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게 된다.

희스름한 구름에 휘감겨 언제나 순결과 지조의 상징처럼 보이는 희디흰 백두산, 엄한규는 밤이고 낮이고 백두산을 보았을것이다. 그리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그리운 장군님을...

무엇이 그를 영웅으로 되게 하였는가.

엄한규는 까툴골사람들의 인정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인정을 새겼기에 그는 세월이라는 녀자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

엄한규는 언제한번 백두산3대장군을 잊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김정숙어머님과 우리 장군님을 만나뵈온것은 불과 반시간도 채 못된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받아 안은 사랑이 반세기 넘는 동안에도 꺼질줄 모르는 불길로 심장을 덥혔으니 그는 인간중의 인간, 영웅중의 영웅으로 되었고 영생의 삶을 얻게 된것이다.

심장이 제일 즐겨 받아 들이는것은 사랑이다.

조용히 산길을 내릴 때면 나는 세월이와의 상봉을 즐겨 그러 본다. 세월은 통일되는 날 남편의 유골을 가져다 이 까툴골에 안치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만날가, 그날이 언제이고.

하지만 반드시 만나게 될것이라는데 대해서만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덕정치의 따사로운 빛깔은 동서남북 어디나없이 비쳐 가는것이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오해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는 이렇게 말할것이다.

《오해라니요. 저는 원래 신통치 못한 녀자였던걸요. 하지만... 믿어 주겠지요.》

믿고 말고... 이런 때는 언젠가 나를 배신한 녀인에 대해서마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 사랑이 뜨겁지 못했던탓이라고.

나는 세월이와 함께 백두산에 가볼 꿈을 꾸며 펜을 놓는다. 백두산에는 한겨울에 올라도 후더움을 느끼게 된다.

펜을 놓으려 하니 《아까징크》(외래어-빨간약) 병을 부여잡고 줄줄이 흘리던 엄한규의 눈물방울이 내 가슴을 불로 지지는것 같다.

《용서하십시오. 난 동지에 대해서까지도 믿음을 잃을번 했댔소.》

마음도 밝고 세상도 더 밝게 보인다.